현대불교

제 78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음력 5월 12일 · 불기 2554년 · 주간)







6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 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하라”

종교인들 남북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 527명 서명 동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6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 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종교인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최초의 일로, 남북 경색 관계가 극악에 다다랐음을 보여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KNCC 前 회장 박경조 대주교, 천도교 이창번 종무원장,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도법 스님, 세계복음주의연맹 의장 김상복 목사, 은혜심기운동본부 본부장 김성효 교무,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대북담당 김훈일 신부 등 50여 종교지도자들이 동참했다.

종교인들은 성명서에서 “6 · 2 지방 선거 결과로 봤을 때 국민 대다수는 현 정부의 대북강경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 , 국군 포로와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문제 등을 협의 등 얻을 것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1990년대 후반기와 같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봉착해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남북 군사 대결 구도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은 남북 갈등의 최고 희생자가 돼 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최근 북한의 사정을 설명했다.

종교인들은 “동포애를 바탕으로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전면 중단 정책을 즉시 철회 하고, 지금 당장 인도적 대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북한 주민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호소했다.

종교인들은 성명서 마지막에서 “종교인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선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참회한다”며 “민족통일을 위한 일꾼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제물들이 되기를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본 법륜 스님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일체 중단됐으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식량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화폐개혁 실패, 남북경색관계가 지속 등으로 북한 주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며 “90년대 후반과 같은 대량 아사 상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종교인들의 책무를 느끼게 됐다. 극도로 악화돼 가는 식량난을 위해 종교인들은 남북 갈등,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남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서 낭독에 앞서 5대 종교인들은 남북화해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종단별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법타 스님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평불협이 설립한 사리원 평양과 황해도 사리원 국수 공장의 기계는 녹슬어가고 있다”며 “먹어야 한다. 부처님도 먹어야 산다. 통일은 밥이다. 밥이 통일이다. 밥이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했다.

천도교 이창번 종무원장은 “먼 훗날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동포가 굶어 죽어갈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볼 때는 대응책이 없다. 식량지원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의장 김상복 목사는 “한반도의 안녕을 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고 평화의 추구”라며 “정부가 나서서 고난에 처한 북한 주민을 순수한 동포애로 끌어안아야 한다. 마음의 통일은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대북담당 김훈일 신부는 “정부가 대북 지원에 유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유엔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책임을 물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 서명한 종교인은 개신교 122명, 불교 108명, 원불교 81명, 천도교 150명, 천주교 66명 등 총 527명이다. 서명인 중 개신교계에서는 소망교회 원로 곽선희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조용기 목사 등 보수기독교 단체도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불교계에는 불교환경연대 대표로 수경 스님이 포함돼 있으며,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도문, 오심, 의연, 일문, 정범 스님 등 5명이 서명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종단에 통일교 운영방안 참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통일교 문형진 세계회장 만나



6월 11일 서울 용산 통일교 세계본부교회를 방문한 자승 스님(오른쪽)이 문형진 세계회장(왼쪽)으로부터 시설을 안내받고 있다. 사진제공=통일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11일 서울 용산 통일교 세계본부교회를 방문해 문형진 세계회장을 만났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의 통일교 방문은 문형진 세계회장이 스님의 취임식,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등 2차례 예방해 초청한 것을 수락해 이뤄졌다.

자승 스님은 방문 전 통일교 측에 통일그룹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이날 방문에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그룹 계열사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스님은 “조계종단 경영 책임자로서 통일그룹의 성장에 자극받았다. 신도 시주금 중심의 종단 살림에 통일교의 통일그룹 운영 방안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이상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이웃종교인을 만나왔다.

조계종 관계자는 “총무원장스님의 종교간 소통 마인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종교간 화합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차원을 넘어 이웃종교에서도 배울 점은 배워 종무에 반영하겠다는 실용적인 자세”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창립

“불보살정신으로 경제 버팀목” 발원

불교계를 대표하는 경제인 25인이 주축이 돼 결성된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가 6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도덕 경영 실천을 통한 경제부국 건설, 청년 불자 양성 등을 기치로 1년여 동안 창립준비에 힘써온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주식회사 ‘자연과 사람’ 구자선 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회적으로 덕망 높은 인사들이 다수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자비정신의 구현사업, 불교 경제 원리의 연구 및?보급 사업 등을 통해 불보살정신으로 한국경제에 버팀목이 될 것을 발원했다. 또 수익의 일부분은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전국 광역지역의 경제인 불자들을 중심으로 시 · 군 · 구 조직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경제인 불자 양성 지원 등도 목적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불교의 역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종단과 함께 발맞춰 가면서 불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가 돼 달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오영교 동국대 총장과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선주 기자

“문수 스님 추모사업 적극 나서라”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문수 스님의 추모사업과 수경 스님의 승적 반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도법, 실천불교승가회 퇴휴, 불교미래사회연구소 법안, 불교환경연대 지관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웅기 사무총장 등은 6월 17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불교단체들은 “문수 스님 추모사업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수경 스님의 승적반납으로 이어졌다”며 사회부장 경질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불교단체의 요구에 총무원장스님은 “현안이 많으니 (수경 스님이 돌아와) 회향해줬으면 좋겠다. 문수 스님 추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4 선지식-지성 스님 ▶4 인터뷰-일묵 스님 ▶9 현장-‘법화경’ 사경대회 ▶16 강의-향봉 스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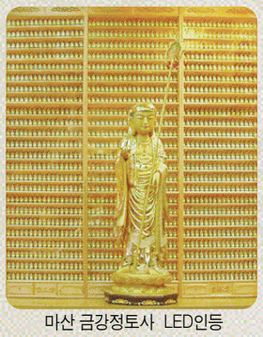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789-022010.6.2111:9AM페이지1(1,1)

교육원 소통 이제는 통했나?

교직자스님들, 교육원 개선안 수용 시사… 총무원 예산 아끼지 않겠다

"교육원이 한문불전전문대학원 설립안과 같은 계획을 밝혀줬다면 성명서 발표 같은 극단적 행동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장 법광 스님)

"강사들이 승가교육의 변화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교육원이 처음 교과목 개선안에서 제시한 과목들은 강사들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다. 승가교육을 향한 강사들의 진정성을 밥그릇 싸움, 밥그릇 지키기 위함이라며 왜곡하지 말아달라." (前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연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6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한문불전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교육원의 승가교육 개선안에 강한 반발을 보여 온 교직자스님들이 교육원의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세미나는 네 차례에 걸친 교육원의 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로 은해사 승가대학장 지안 스님, 교직자연합회장 법광 스님,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 前 통도사 승가대학장 우진 스님, 법주사 승가대학장 철안 스님, 봉선사 능엄학림 정원 스님, 前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연 스님, 동학사 승가대학장 법성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오윤희 실장,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박상준 연구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토론에서 교직자 스님들은 교육원의 개선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으나 교육원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교육원안을 수용·이해하는 교직자스님들이 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졌다.

범어사 승가대학 용학 스님이 "승가교육 개선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고, 봉선사 능엄학림 정원 스님은 "6년 동안 <화엄경> 하나도 공부하기 힘들다. 한문불전전문대학원 설립안에서 제시한 수업연한 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前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연 스님도 "구족계를 받은 승려의 교과목치고는 너무 많다"고 동의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장 우진 스님은 "교육원안을 보면 불전전문대학원이 강원 대치하는 교육기관으로 설정됐다. 교육대상은 강원과 전문대학원이 달라도 교육내용·목적 같아 보인다"며 "선·율장·초기불전·한문불전 등 나뉘어 전문대학원이 교육기관 난립을 초래해 승가교육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승가교육 제도화되면서 30년간 하향평준화 돼 왔다. 행정부서인 교육원이 교과목, 교육방법론까지 말하는 상황 부적절하다"며 "수행자에게 실용주의적인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강원에 대학원에 설립하는 등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도 승가교육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해 교육원 안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문대학원 설립안이 확정되는 11월까지 교수스님들이 자리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동국역경원과 유사한 한문불전 번역기관인 (가칭)한문불전번역원을 설립하겠다", "전국의 전·현직 강사스님들을 지원하겠다"며 교육원 승가교육개선안에 대한 교직자스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교육원이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초기불전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 다수가 초기불교가 조계종 승가교육에서 공론화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석·박사 과정까지 책임진다

조계종, '장학금지급령' 발표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앞으로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비 걱정을 덜게 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종무회의에서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령'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정된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령'에 따르면 조계종 재적 비구·비구니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스님은 과정 수료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종립대학에서 수학중인 스님 중 석사과정은 학기별 225만원씩 연 450만원, 박사과정은 250만원씩 연 500만원을 받고, 일반대학 석사과정은 450만원씩 연 900만원, 박사과정은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해외 유학승 중 일본 소재 대학은 연 1200만원, 중국 지역은 1000만원, 인도·동남아 지역은 800만원, 미국·유럽 지역은 3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내년 6월 중 설립될 (가칭)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스님들도 매월 일정액의 연구비를, 교육교역자 스님들도 프로젝트 수행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조계종 장학승 선발은 그 대상이 해외에서 유학중인 스님들로만 한정돼 있었다.

지급금액과 인원도 불규칙하고 일회성에 머물러 장학 목적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해외장학생 선발과 종비생 선발기준으로 이원화된 장학제도를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법령을 마련했다. 장학승 선발 과정부터 불교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교와 종단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자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를 종단(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찰 등)에서 장학 수혜기간만큼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장학금 지급규모와 전공분야 선정, 장학승 선발은 승가교육진흥위원장이 위촉하는 9~11인으로 구성되는 장학위원회에서 집행한다.

교육원은 7월초까지 장학위원회 구성 후 7월 중순경 장학승 선발공고를 시행하고, 9월 중 장학승 선발과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6~17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린 제2차 승가교육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승가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종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4대강 정부·환경단체 의견 청취키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견 정리를 위해 정부와 환경단체 관계자를 초빙해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봉은사 사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차원에서 총무원과 봉은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10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은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봉은사소위원회는 지홍 스님을 위원장으로 원택·보광·법안 스님과 성태용 교수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 소위원회의를 열고 총무원과 봉은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4대강 관련 의견 청취는 화쟁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화쟁위원회 총무위원 법안 스님은 "우리도 화쟁이 잘안되더라"고 말해 화쟁위원회의 내부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조계종은 6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사의 골수를 취해야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도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해인사 토지매각 진상 조사 촉구

'해인사 현안문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가 종단의 해인사 토지 매각 승인에 유감을 표명하고, 호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종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해인사 현안문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소위원회)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스님들은 "4월 초 소위원회가 해인사 토지매각 유보를 요청했음에도 종무회의에서 토지매각을 승인한 것은 유감이다. 호법부가 해인사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동섭 기자

유 장관 "템플스테이 재조정" 물의

조계종 "부적절한 발언 유감스럽다"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이 대구지역 개신교 관계자를 만나 템플스테이 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재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소 불교계에 호감을 보여 온 유장관의 행보와는 상반된 이 발언은 불교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6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4일 문광부 청사에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흥식·평산교회 목사)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템플스테이가 운영되는 사찰) 몇 군데를 다녀보니 템플스테이용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너무 크게 짓고 있더라"면서 "그래서 더 이상 짓는 것은 곤란하며 새로 짓는 것은 못하게 하라는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사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방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면 고치는 정도로 해야지 호텔처럼 20~30개나 되는 방을 새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다.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정부 지원을 받아 사찰을 증개축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불교테마공원에 관해서도 "팔공산 불교테마공원은 이름 자체부터 잘못됐다. 초조대장경을 복원하는 데 어떻게 600억원이나 들어 가냐.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불교계에 집행되는 국가예산이) 관행처럼 너무 오랫동안 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템플스테이사업단 등 불교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불교계에서는 유인촌 장관이 호텔식 운운한 시설에 대해서 "사찰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초가집에 재래식 화장실을 갖춰야만 하느냐" "20~30개 침대방을 갖춘 호텔식 시설이 불교계에 어디 있느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한국템플스테이사업단 이민우 기획홍보팀장은 "예산 집행에 '방만하다'는 표현이 사용되려면 전용 등 불법 집행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템플스테이 예산은 매년 국회·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 큰 이상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면서 "주무장관이 '방만'이라는 단어를 감성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템플스테이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며 정책적 사안으로 주무장관이 이웃종교인에게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갖고 장관 발언의 진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종단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문광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issue - 길 떠난 수경 스님

흐르다가 돌아오소서

수경 스님! 오늘도 강은 제 소리조차 삼킨 채 묵묵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졸지에 어미 잃은 충격에 어쩔 줄 몰라 하염없이 맴돌다가 안으로 아픔 삭인 채 그리 흐르고 있습니다. 스님이 계실 때처럼, 서울선원에는 지관 스님과 현국장과 명국장과 유팀장이 자리하고, 사부대중은 생명평화대화마당에서 지혜의 말씀 들으며 생명의 등불을 가슴 가득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종단에 대해서는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맞서던 사천왕이 미물인 버들치와 쑥부쟁이의 아픔에는 매일 아침 강가에 나와 그지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마거사셨습니다. 초인적인 의지로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를 하시고, "중이 될 때 부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셨다며 아프신 몸을 이끌고 여강선원으로 떠나실 때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보살이셨습니다. 이원규 시인은 "삼보일배로/이미 다 닳은 무릎 연골은/절뚝절뚝 온몸 삐걱거리면서 빛나는 사리요/오체투지로 더욱 침침해진 두 눈이야말로/마침내 살아 청청 진신사리"라고 노래했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흘리시던 스님의 눈물이야말로 진신사리 중의 진신사리였습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강과 역사의 물길을 제 자리로 돌리고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힌 지극히 숭고한 죽음 앞에 그 누가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그 누가 스님의 고독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추모제 때 고독과 절망의 극단에 이른 자만이 낼 수 있는 사자후를 토하시더니, 그에도 변함이 없는 세상을 보며 더 깊은 고독과 절망에 잠기셨습니다.

환계(還戒)! 출세를 또 떠나셨으니 보살이 되는 게고, 허명과 과분한 대접이 싫어 촌로로 돌아가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다 어느 따뜻한 겨울날에 바위 옆에서 졸다 죽으면 그 삶이 바로 부처겠죠. 허나, 저 아름다운 연꽃이 향기 욱연한 언덕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피는 이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내가 지금 퍼뜩 깨달아 부처가 되었더라도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있다면, 그를 구제하지 않는 한 나는 부처가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수경 스님! 스님의 떠남에 시퍼런 달빛 안고 비수처럼 수직으로 내리꽂는 폭포가 연상되어, 이제 그만 홀로 여여한 스님으로 남겨두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중생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님의 눈물에 살 자리를 찾을 생명이, 스님의 사자후에 두려움에 떨 무리들이, 스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을 중생들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하여, 선정에 든 스님 대신 미물들과 불쌍한 것과 못생긴 것들과 더불어 환하게 웃는 스님을 떠올립니다. 생사일반이 다 한 생각에 있으니, 발길 닿는 대로 돌고 돌아, 절로 절로 흐르다가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이도흠 교수 (한양대)

수경 스님은?

삼보일배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스님은 2002년 북한산 살리기를 위해 홀마선원에서 정진, 2003년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아스팔트에서 65일간 삼보일배로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었다.

이때에도 수경 스님은 삼배일배도중 탈진해 쓰러지거나 평소 앓아왔던 무릎 관절염과 녹내장이 심해져 실명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링거 주사를 맞으며 서울에 입성해 전 국민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도 했다.

스님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오체투지 순례단 등을 통해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3월에는 여주 신륵사에 여강선원을 개원했다. 컨테이너로 지어진 여강선원에서 무리한 생활을 했던 스님은 요양이 필요한 상황할 만큼 건강이 악화됐으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쉬지 않았다.

충남 청양 출신인 수경 스님은 1967년 수덕사에서 사미계, 1970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006년 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화계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이상언 기자**



생명평화로 소통하다 문수 스님 추모기간 첫 날인 6월 8일 생명평화 대화마당에 참가한 수경 스님은 대화마당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를 감싸고 있다가 몸이 좋지 않아 자리를 떴다. 대화마당에 앞서 열린 108배 기도를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오체투지로 진행했던 스님은 많이 지쳐보였었다. 오른쪽부터 수경 스님, 도법 스님, 법륜 스님, 이도흠 교수. 사진=박재완 기자

모두 내려놓고 초심으로 떠나

수경 스님 승적반납… 교계 당혹감에 휩싸여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이 승적반납과 함께 화계사 주지 등 모든 소임에서 물러났다. 스님의 급작스런 사퇴에 불교환경연대, 화계사 등 불교계는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수경 스님의 사퇴는 6월 13일 밤 '다시 길을 떠나며'라는 제하의 글과 함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스님은 글에서 "남은 인생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살고 싶다"며 "환경운동이나 NGO단체에 관여하면서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시절을 보내며 정치권력과 대척점에 섰던 것도 하나의 권력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수경 스님은 글에서 "생사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이다. 대접 받는 중노릇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이어가는 인생이 너무 불쌍할 것 같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 지난 과거가 번다했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난다"고 밝혔다.

스님은 5월 말 서울 한강선원 개원 이후부터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한강선원에서 노숙을 하며 강행군을 해 왔다. 4대강 사업이 중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투혼을 벌이던 스님은 최근 행사 도중 체력이 많이 소진돼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문수 스님 소신공양 이후 분심을 내고 전력을 다해 활동을 펼쳐왔다.

수경 스님의 사퇴 소식에 가장 당황한 것은 스님이 직접 챙기며 활동했던 불교환경연대, 화계사, 여강선원, 서울 한강선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스님의 뜻을 이어가겠다. 수경 스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수경스님의 결정은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입적 이후 많은 시간을 갖고 고심한 결과"라며 스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불교환경연대는 "문수스님 추모기간을 맞아 수행 정진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흔들림 없이 맞설 것"이라며 "종단의 풍토를 쇄신, 종단 혁신에도 힘쓸 것"을 선언했다.

또 스님의 사퇴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려는 일각에 "모든 권위와 소임을 벗어던지고 초심으로 가셨다. 일체의 직을 사임한 것이니 일체의 억측이나 왜곡은 삼가달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 한강선원장 지관 스님은 "4대강 생명살림 운동 지장 없이 하겠다"며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밝혔다.

화계사 신도회(회장 차호법행)는 6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화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황망하고 당황스러워 순간 먹먹했다"며 심정을 밝혔다. '주지 스님께 올리는 글'에는 "화계사 신도들은 결코 스님을 보내지 않겠다. 화계사 주지 스님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곡한 요청도 덧붙였다.

화계사 신도회는 "40년 수행자로 살아온 수경 스님에게 화계사가 특별한 만큼 화계사 신도들에게도 수경 스님은 특별한 분"이라며 "환경운동가로서 온 몸을 사르며 수행의 길에 들었던 스님을 존경한다. 가슴이 아프다.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신도회장 차호법행 보살은 "몸도 마음도 지친 스님이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신도들은 흔들림없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화계사 신도회 등은 16일 매일 사시예불 후 수경 스님을 위한 3 · 7일 기도에 들어갔다.

수경 스님의 오랜 도반인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조계종 화쟁위원회장)은 "수경 스님은 (떠날) 조건이 돼 떠났으니 (돌아올) 조건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issue - 북한

북한 식량 패닉… 정부 지원 절실

좋은벗들 北에 인도적 식량 지원 촉구

최근 북한 중앙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식량을 못 준다"며 자력갱생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측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대북지원단체들은 인도적 지원 촉구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은 6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이 5월 26일 각 단위, 각 개인이 식량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량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포기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남북긴장 국면이라 하더라도 2000만 주민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의 시비를 논하고,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속, 대량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 중앙당은 5월 26일 '현재 조선의 식량 사정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지시문에서 "어려워진 식량 사정으로 국가에서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됐다"며 내각 산하 무역성 등에 식량 배급 및 물자공급 중단, 시장 전면 허용, 각종 무역 통제와 구제 철폐 등의 세부 사업내용을 전달했다.

법륜 스님은 "지시문을 전달받은 당중앙 간부들과 유력기관 일군들, 평양 주민 등은 '식량 사정이 나쁘더라도 당을 믿고 따르라, 잘 견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자급자족 하라는 지시에 당혹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의 배경에 대해서 스님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도 식량 원조 얘기가 아직 없으며, 화폐 교환 조치 이후 출구 없는 최악의 식량난으로 주민 소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 불안이 극도로 팽배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인도주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가난한 나라의 굶어죽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지원 원칙이다. 남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 내부의 식량 실태와 주민들의 식량수급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즉각 필요 식량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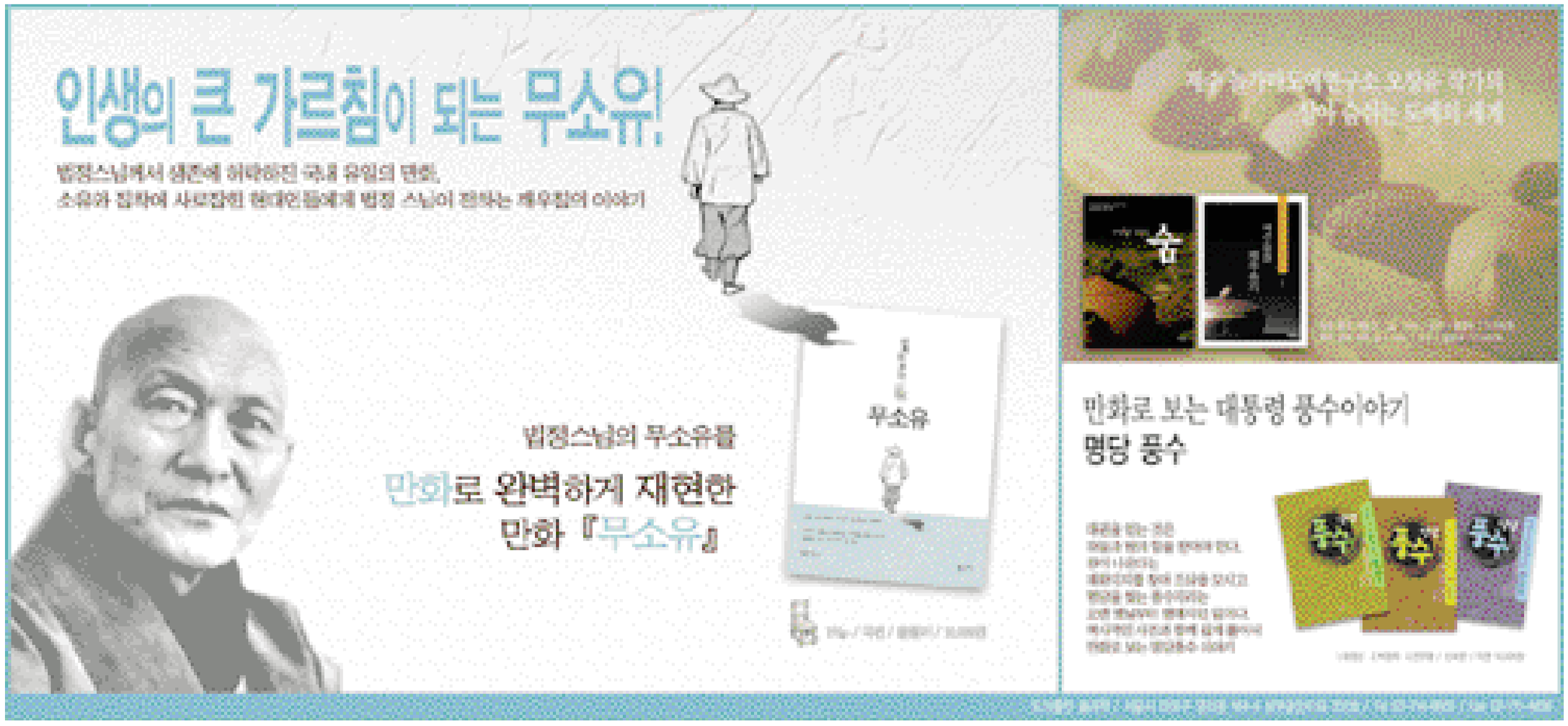
평화재단 대북 지원 대안 모색

전문가 포럼서 북한 상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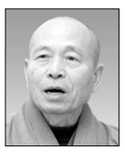
평화재단은 제41차 전문가 포럼을 열고 북한 중앙당의 5월 26일 식량 배급 중단 선포 조치 이후 춘궁기 북한의 식량 상황,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진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강동원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을 주제발표했다. 강동원 연구원은 "대북지원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의 주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라며 "대북지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 효과성 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만큼 정당성 제고가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북 지원은 양자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일 주 문



통화불교전강원 수법 강백 전수식
각성 스님은 6월 24일 의성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통화불교 전강원 수법 강백 전수식을 봉행한다.



봉선사 연꽃축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7월 24~25일 승과원 개장 1주년 기념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031)527-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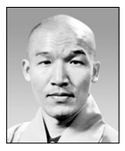
민추본 김포 올레길 순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은 6월 26일 김포 민통선 인근에서 평화통일올레를 개최한다. (02)720-0531



군종교구, 신임군승 고불식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6월 25일 경북 영천 3사관학교 충성 호국사에서 신임군승 14명의 고불식을 봉행한다.



생명사랑자비콘서트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은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2010생명사랑자비콘서트를 개최한다. (041)664-2001



부석사 제8회 한문학당 모집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7월 25~31일 제8회 부석사 한문마당을 개최한다. (041)662-3824



제1회 한국차명상 학술대회
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 지운 스님은 6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회 한국 차명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수학교 체험학습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스님은 6월 25일 대구 허브힐즈에서 영주특수학교 관계자 45명을 초청 연계 체험학습 '꿈을 위한 한걸음'을 개최한다.



세이브상가 캠페인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는 스님 도우미 운동인 '세이브상가' 캠페인을 전개한다. (02)2278-3671



엄홍길 씨, 조계종 신도 홍보대사로
히말라야 16좌 완등에 성공한 불자 산악인 엄홍길 씨는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실에서 신도등록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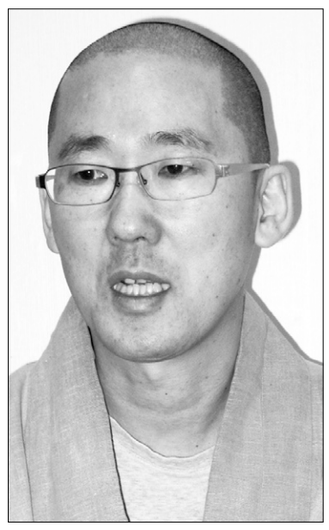
"100일 기도 대신 100일 수행"

4달간 호흡 수련회 여는 제따나와선원 일묵 스님

"숨을 쉴 때 '무(無)~' 하고 내쉴 때 '상(常)~' 해보세요. 숨이 들고 나는 것만 알아차려도 수행이 됩니다. 따로 시간도 정하지 말고 하루 500번씩만 숨 쉬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세요. 지혜가 계발되고 행복해집니다."

제따나와선원장 일묵 스님(사진)은 6월 17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묵 스님은 1996년 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 중 해인사 백련암에서 원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6~1997년 스님을 비롯해 서울대 재학생 · 졸업생 10여 명이 잇따라 출가한 것이 이슈가 돼 2003년 KBS 봉축특집 프로그램 <선객>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일묵 스님은 "현대인은 쉴 새 없이 바깥 세상에 끄달리며 산다.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밖으로 향했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라면서 "호흡을 보는 순간은 아무 분별이 없는 마음[平常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연예인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 까지 다 알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맹점"이라면서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일묵 스님은 최근 쉽게 호흡을 셀 수 있는 휴대용 카운터기와 수행수첩을 만들어 대중에게 보급하고 있다. 수행수첩 표지에는 '사소한 실천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쓰여 있어 호흡을 지켜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지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말을 저절로 떠올리게 한다.

"수행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부터 수행으로 챙겨보십시오. 깨진 바가지에서 물이 새듯 버려지는 시간부터 수행하세요."

2009년 서울 방배동에 부처님이 머물던 기원정사를 의미하는 제따나와선원을 개원한 스님은 수행공동체 마을인 '제따나와 국제 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한국에 재현해보자는 원력을 갖고 있다. 명상마을이 마련되면 세계 수행자가 어울려 살아가는 계 · 정 · 혜 삼학이 두루 갖춰진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따나와 선원은 7월 9일~10월 31일 원주 푸른솔 명상센터에서 붓다의 호흡 명상 수련회를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 시작되는 1주간 수행 프로그램과 별도로 직장인을 위해 금~일요일 2박3일간 진행되는 주말 수련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대중 함께 하는 학회 만들 것"

제6대 한국선학회장 추대된 송묵 스님

"대중들에게 한국 선에 대해 교육하고 알려줄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동원정사 주지 송묵 스님(원광대 박사 · 동국대 외래교수 · 사진)은 6월 11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진행된 한국선학회 총회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한국 선학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송묵 스님은 "부처님 근본정신인 수행을 바탕으로 대중과 함께 운영해 가야 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대중들을 위해 한국선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학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 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학자나 스님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송묵 스님은 "학회 자체에서 '한국선학회상'을 만들어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들에게 수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선대회'를 열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선학회 연구자료를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송묵 스님은 "1년에 두 번씩 선학회 학술행사에서 발표되는 우수 논문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고 영어번역도 함께 해 전 세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학의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의 학회장 추대까지는 곡절이 많았다. 40여 회원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경선을 요구했으나 김영두 前 회장과 고문인 현각 스님이 "학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선보다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대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송묵 스님은 "일각에서 한국선학회 이사회서 논의된 바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 총회 전 한국선학회 임원에게 차기 회장직을 수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스님은 "추대과정에서 일부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내가 회장이 돼서가 아니라 경선보다는 추대로 학회장을 선출한 것이 학회 발전과 화합에는 분명 도움이 되리라 본다"면서 "역대 회장, 이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선학회를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미얀마 파욱 스님 국내서 법문

제따나와선원, '숨' 호흡 명상 수련회 초청

남방불교 선지식인 파욱 스님(미얀마 파욱사원 조실)이 국내에서 1주일간 법문한다.

제따나와선원(선원장 일묵)은 6월 17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9일~10월 31일 진행되는 '숨' 붓다의 호흡 명상 수련회에서 파욱 스님이 1주일간 매일 법문을 한다"고 밝혔다. 파욱 스님의 법문은 7월 10~16일 열린다.

'숨' 붓다의 호흡 명상 수련회는 <청정도론>을 텍스트로 삼아 선정 수행(사마타) 후 지혜 수행(위빠사나)을 하는 파욱 스님의 수행법을 중심으로 원주 푸른솔 명상센터에서 진행된다.

수련회에서는 파욱 스님 외에도 파옥센터 지도법사인 코비다 · 레와따 스님, 선원장 일묵 스님의 수행지도 · 법문이 열린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레와따 스님이 <대념처경>을, 목요일에는 선원장 일묵 스님이 <청정도론>의 요약본이며, 파욱국제명상센터 교재인 <열반에 이르는 길>를 갖고 법문한다.

수행 초심자를 위해서는 매주 월 · 금요일 수행법 지도가, 일요일에는 회향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 받게 된다. 토요일에는 일반 대중을 위한 생활에 유용한 자유주제의 법문이 진행된다. (02)595-5115

조동섭 기자

'미소금융' 금융포교의 시작

불교계 첫 지점장 오정림 경남거제지점 대표



"미소금융은 포탈복지입니다. 미소금융을 통해 나눔과 봉사, 고용과 복지의 새로운 모델, 포교의 새 패러다임을 선보이겠습니다."

불교계 첫 미소금융 지점인 미소금융 경남거제지점이 6월 23일 거제시 고현동에 개소했다.

거제 지역은 미소금융 뿐만 아니라 불교대학 활성화를 통해 포교 성공사례로 꼽히는 거제 금강사 등 다양한 포교 실험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미소금융 경남거제지점의 오정림 대표(사진)는 불교계 첫 미소금융 시설의 대표일뿐만 아니라 미소금융 재단 최연소 · 최초의 여성 지점장이다.

오 대표는 불교계 시설인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마하재활병원 등에서 활동해 온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주변에서는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해 고용창출과 복지의 접목이 가능한데다 회계 전공, 거제 지역 불교계와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그녀가 미소금융 경남거제지점 대표를 맡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현대사회의 고통은 생계 문제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려면(離苦得樂) 금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금융 혜택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돕는 한 방편입니다."

오 대표는 "서민의 소규모 창업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경제를 도모하는데 불교계의 인적 · 물적 자원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서민 복지 모델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정림 대표는 "복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복지관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이용케 하던 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일자리 창출과 금융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며 "불교계가 미소금융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소금융 경남거제지점은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 박기련 좋은 벗 대표(조계종 종책특보), 제미순 거제대 교수, 고영주 거제 경실련 집행위원 등이 등기이사로 참여했다. (055)632-6164

조동섭 기자

옥천범음대특강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영산재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영산재가 행하여짐에 있어서 도량장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번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도량장엄' '가사조성법' '법고무' 과정을 개설하여 특강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법고무' 과정은 소정의 검증을 통하여 학교장 명의로 법고무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과 목	교 수	기 간	강의요일	시 간
도량장엄	이경암스님 (준보유자)	2010년 7월 1일 ~ 8월 5일 6주	매주 목요일	오후1시~4시
가사조성법	현 종 스님 (장벽응스님 제자)	2010년 6월 29일 ~ 8월 3일 6주	매주 화요일	오후1시~4시
법 고 무	이기봉스님 (준보유자)	2010년 6월 30일 ~ 8월 4일 6주	매주 수요일	오후1시~4시

▶ 수강료 : 400,000(사십만원)정
▶ 재료비 : 실습 재료비 별도
▶ 문 의 : 02)392-3234

※ 〈주의〉 각 과목별 개강일과 종강일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영산재보존회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이기봉 합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교문화 박물관서 나와야 할 때”

반영규 불교음악협회장 불교문화 석학강좌 시리즈서 강조



“불교계, 특히 불교음악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계 모두가 음악을 비롯한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앞장 서야 할 때입니다.”

반영규 불교음악협회 회장(사진)은 6월 13일 서울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이 개최한 ‘불교문화 석학강좌 시리즈1 – 불교와 음악’에서 불교계의 현대음악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반 회장은 이날 강좌에서 “1960~1970년대 찬불가운동을 시작할 때에 비해 지금은 외형적인 면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불교음악은 대중과 괴리되고 있다”며 “승속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회장은 “개화기를 전후해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불교음악이 만들어졌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새로워지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 회장은 “현재까지 발표된 이른바 찬불가는 1000여 곡을 넘고 불교 노래의 작사 · 작곡에 참여한 분은 각각 100여 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 회장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찬불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분은 열 손가락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라며 “불교음악에 전념하는 전문 음악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회장은 이날 찬불가 등 현대 불교음악의 활성화에 △사찰 작은 음악회 개최 △불교교성곡 공연 △전문악단 육성 △음대생을 대상으로 한 불교계 장학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사찰 작은음악회는 새 불교음악을 공개하는 마당, 각 사찰 합창단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마당, 신인 불교음악인이 첫 선을 보이는 마당과 같이 불교음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구성돼 각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자는 복안이다. 또 불교교성곡 공연은 춘향전 · 심청전과 같이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명절에 정기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하자는 것이다.

반 회장은 “현재 노래방 등에는 찬불가가 구비돼 있지만 부르는 이조차 없다. 또 봉축행사 일환으로 불교음반이 나오지만 과연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다”며 “불교방송과 불교TV 등에서 찬불가, 불교공연 등을 보다 더 많이 송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반 회장은 끝으로 “불교의 중흥은 불교문화의 창달(暢達)에 달렸다”며 “박물관에 진열된 옛 문화재 같은 불교를 벗어나 온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불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은 22일 불교와음악 세 번째 강좌로 이보형 한국전통음악연구원장의 ‘우리 민속 속의 불교음악’을 개최했다. (02)742-4288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충담 스님 추모 영산재 봉행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15일 경내 등공사리탑전에서 충담 스님 열반 제12주기 추모영산재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법어에서 “충담 스님은 불법중흥과 국태민안을 위해 불은에 보답하고자 육신등공 하신 분”이라며 “항상 화합하라 강조했던 스님의 큰 뜻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충담문도회장 도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은 한국불교의 큰 공덕이다. 이 자리가 성역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지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충담 스님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과,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 불자들의 화합과 불교흥륭의 세가지 원력을 세우시고 무생법인의 도리를 깨달아 열반에 드셨다”고 말했다.

한편, 충담 스님은 1960년 묵담 스님에게 구족계와 대승보살계를 수지했다. 일생 동안 수행정진과 대중교화 등 보살도를 실천해 온 스님은 1998년 6월 27일 새벽 감로사에서 평소 불교흥륭과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소신공양했다.

관련기사 14면 · 조동섭 기자

조계종 신도연수 체계화 절실

고명석 연구원 포교종책연찬회서 제안

신도는 출가자와 함께 종단 구성원이지만 정작 교육에서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신도 한 명 한명이 불자로서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함에도 조계종 내에서는 신도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효율적 · 체계적인 포교를 위해 신도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은 6월 17일 템플스테이정보문화센터에서 열린 포교원 제39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신도 연수프로그램 어떻게 설계해야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조계종의 신도 연수가 정확한 인재상이나 연수 준비와 시행에 따른 매뉴얼이 없을 뿐더러 인재상 · 신도상도 정립되지 않은 채 연수가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은 “포교 강화를 위해 신도 연수가 △실무자 연출 매뉴얼 개발 △강사 인력 풀 구성 △연수 평가서 개발 △교재 및 교보재 개발 △연수교육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박희승 총괄부장은 토론에서 “(가칭)종단 연수교육 실무협의회 등 기구를 만들어 신도 연수를 체계화해가자”고 말했다.

총무원 기획실 이상봉 팀장은 “신도 연수 프로그램에 앞서 신도 의식 및 신행 현황 조사를 통해 교육 수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원효 성사 탄신 1393주기 다례재 봉행 경산 제석사(주지 적연)는 6월 15일 경내 원효성사전에서 제1393주기 원효 스님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최병국 경산시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탐진치 삼독을 끊고 바른수행으로 진리를 구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100자 뉴스

조계종 “아이티 교육시설 설립에 사용”

조계종은 6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이티 지진피해 돕기 모금액 10억8834만1793원 중 아이티 현지 의료봉사에 7250만원, 유네스코 복구지원금으로 1만 달러, 중국 칭하이성 지진 구호금으로 5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관계자는 “아이티 모금액 중 남은 금액은 아이티에 교육시설 등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 중신회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법회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불교정책기획단은 7월 중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6 · 2지방선거 불자 당선자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행사는 불자 당선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불교계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 등을 당부하고자 마련된다. 조동섭 기자

조동종 고혼천도수륙재 · 선상용왕재 봉행

인천과 중국 연운항을 잇는 뱃길에서 7일간 천도재와 용왕재가 봉행됐다.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는 5월 29일~6월 4일 서해 해상에서 고혼천도수륙재 및 선상용왕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해안에서 순직한 천안함 희생 장병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와 장애’ 여름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7월 3~4일 고양 금륜사에서 ‘불교와 장애의 문제’를 주제로 2010년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불교에서 본 정신적 장애론(최훈동)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장애(이혜숙) △정의로서의 불교(박경준)가 발표된다. (02)357-9031 조동섭 기자

용암사 단오 맞이 나눔의 산사음악회 개최

서울 용암사(주지 관오)는 6월 16일 경내에서 단오 맞이 나눔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 후에는 지역 불우이웃에게 백미 300포, 라면 100박스가 전달됐다. 행사에는 광진구사암연합회장 법경 스님, 국회의원 권택기 ·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보리방송모니터회 BBS 4대강 광고 중단 촉구

BBS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이 4대강사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송출해 교계 단체들이 중단을 촉구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 사찰생태연구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6월 15~16일 BBS 불교방송에 4대강 개발 홍보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BBS는 4월 15일~5월 3일 광고가 송출됐으나 자체 회의를 통해 이미 광고를 중단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상언 기자

해병대 군법당 호국승룡사 16일 창건법회

해병대 1사단 교육단 군법당인 호국승룡사가 6월 16일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갖고 개원했다. 완공된 승룡사는 법당 709㎡(약 215평) 요사채 119㎡(약 36평) 규모로 지어졌다. 법당 건립은 2008년 9월에 터를 닦기 시작해 38억원을 투입, 16개월 만에 완공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연꽃마을 창립20주년

"한 일보다 할 일 더 많다"

'효의 사회화' 실천을 위한 방편으로 무료 노인요양원, 실비노인요양원, 전문노인요양원 등을 설립 운영하고 각종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사업소 등을 위탁 경영해온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20주년을 맞았다.

연꽃마을이 법인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6월 14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연꽃마을 예술제'를 개최했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세대가 함께하는 예술제를 개최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한마음으로 연꽃마을의 20주년을 축하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연꽃마을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월 14일 열린 연꽃마을 예술제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연꽃마을 예술제에서는 연꽃마을 산하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 22개 팀이 대회에 참가해 경연을 벌였다. 행사에서 각현 스님은 "문화·예술분야의 노인축제가 자리매김해 노인들이 삶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꽃마을 예술제에서는 연꽃마을의 40여 산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공연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용인노인복지관,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파라밀요양원, 용인노인요양원, 송파노인복지센터, 아현노인복지센터 등 총 13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1000여 점의 작품들도 전시·판매됐다.

이날 행사에서 작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은 연꽃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님 간병비(요양비) 지원사업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연꽃마을은 2010년 1월부터 스님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스님 가족들에게도 간병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파라밀병원과 파라밀요양원에서 다섯 명의 스님과 스님 가족 일곱 명이 요양하고 있다.

각현 스님은 "평생 수행정진에 매진한 스님들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출가했지만 오히려 속가의 가족들이 노스님들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 스님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수행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연꽃마을은 연꽃마을 예술제를 비롯해 10일 '전국 노인 백일장대회', 20일 '제3회 장애노인을 위한 효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했고 9월 7일 '국제 사회복지 심포지엄', 10월 '20년사 반포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각현 스님은 20주년 기념행사 등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노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문학·예술 분야 등 창조적인 활동을 하며 삶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40여 개의 산하단체 중 파라밀요양원은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99.61점으로(전국평균 76.91)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용인노인전문요양원도 A등급을 받았다. 2009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방배노인복지관도 시민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뽑혔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 박왕호 관장은 "20년간 역동적으로 도전한 결과 연꽃마을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계에서 우뚝 섰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연꽃마을과 함께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온 각현 스님은 "한 일보다 해야할 일이 더 많은 것이 불교계 노인복지의 현실이다. 타 종교에 비해 후발 주자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커피와 함께 제2의 삶 산다"

카페 '삼가연정' 변정숙 바리스타

카페 삼가연정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 북카페'이다. 삼가연정이라는 이름은 '세 가지(책·사람·차)의 아름다움이 이어지는 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009년 8월 18일 문을 연 삼가연정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책과 사람 그리고 차가 있는 문화공간이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커피향이 솔솔 풍기는 6월 14일 카페테리아의 오후. 향긋한 커피냄새와 클래식 음악이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삼가연정에서 할머니 바리스타를 만났다. 어르신 하면 힘없고, 약한, 외로운 등의 단어들이 연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삼가연정에서 만난 바리스타 어르신들은 얼굴에 모두 '웃음꽃'이 피어있다. 변정숙씨(57·사진)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의 바리스타 교육생 1기이다. 현재 삼가연정에서 일하는 열여섯 명의 실버 바리스타는 대다수가 60대 인데 50대인 변정숙씨는 여기서 만큼은 막내라고 한다.



결혼해서 아이들 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던 변정숙씨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한다. 게다가 고혈압 등의 지병이 찾아와 건강도 악화됐다. 그때 친구를 따라 봉사활동을 다니게 됐고 우연히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노인일자리 교육에 참가했다.

"제가 바라스타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커피 종류도 많은 데다 모두 이탈리어다 보니 그 이름 외우는 것부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교육을 듣다 보니 재미가 붙더라고요."

변정숙씨는 커피이름은 헷갈렸지만 배우면서 그녀만의 공부법을 터득하게 됐다. 그것은 집에 가서 노트 필기를 보며 그날 실습한 것을 머릿속으로 자꾸 그려보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달간의 교육을 끝냈고 삼가연정이 문을 연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변정숙씨는 바리스타라는 이름을 잘 지키고 있다.

"사람들이 제가 만든 커피가 맛있다고 하면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게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자꾸 뒤돌아서 있었는데 말이에요."

변정숙씨는 바리스타를 하면서 건강과 자신감을 찾았고 표정도 바뀌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 챙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리스타를 하고 있으니 세련되지는 기분이드네요."

변정숙씨는 40년간 절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변씨는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 밖에 할 것이 없다."며 밝게 웃었다.

박선주 기자

동대부여중 법당 중건 회향

개교 80주년 맞아

한국 중등 불교 교육의 효시이자 여성 교육의 산실로 출발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교장 김태원, 이하 동대부여중)가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이에 동대부여중은 6월 18일 교내 법당 불사 회향식 및 개교기념식 및 거행했다.

동대부여중은 1930년 조선불교청년동맹, 쌍계사, 다보사 등 불교계의 후원으로 명성학원이란 이름으로 종로구 수송동 태고사(지금의 조계사)안에 설립됐다. 명성학원의 초대 교장인 최범술 스님은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설립을 추진했다.

동대부여중은 종립학교인만큼 종교과목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김형중 교법사는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교관련 문학·시·문화재·고승들의 사상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주 교법사는 "입학할 때에는 비 불자 학생들도 있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수계 받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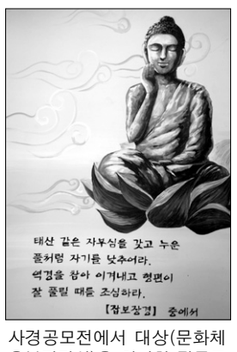
동대부여중의 김형중 교법사와 김태원 교장이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 제등행렬을 하고 있다. 동대부여중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6월 18일 개교기념식을 열고 종립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08년 부임한 김태원 교장선생님은 다문화·결손가정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학교뿐이라는 책임감으로 발로 뛰었다. 그렇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성동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35억 원에 달한다.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동대부여중은 성동교육청 내 선두그룹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박선주 기자

제13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가 불교신문사와 공동주최한 제13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에서 총 55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6월 15일 발표했다.



사경공모전에서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을 차지한 광동고 최이경 학생의 출품작.

이번 사경 공모전은 3월 10일~5월 30일 전국의 사찰, 학교에서 실시해 1차 우수작품으로 350건이 응모됐다. 이 중 심사(6월 3일)를 통해 대상 2점과, 최우수상(동국대학교 총장상) 2점, 우수상(포교원장·파라미타총재·불교시문사장 상) 6점, 장려상(파라미타회장 상) 10점, 특선(한국청소년협회 회장 상) 10점 외에 장려상(파라미타 회장 상) 25점 등을 선정했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최이경(남양주 광동고 2년) 봉축위원장상에 이예현(동대부여고 2년)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스님,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김경호씨,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단청장) 원미희씨를 심사위원으로 추대해 전체적인 작품성과 신행·사경·불화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수상은 6월 24일 오후 4시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전시된다.

박선주 기자

제1회 웰다잉 문화제 '아름다운 삶의 향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이 6월 22일 오후 7시 반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1회 웰다잉(well-dying) 문화제 '아름다운 삶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 태고종 영산재 시연과 함께 황병기 명인의 침향무 가야금 연주와 박애리 명창의 판소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 환상곡 등이 연주된다.

불교여성개발원 하현정 팀장은 "웰다잉 운동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02)722-2101~2

박선주 기자

봉 2010년도 백중맞이 조상령 및 유산아천도 합동49재 행

지장경에서 부처님은 살아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영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꿈이나, 잠결에 귀신들의 여러 형상이 나타나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고, 혹은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됨은 이는 모두 다 한 生이나 열生이나, 백生, 천生의 과거세의 부모, 형제자매,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복력으로 구해줄 곳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속세 혈육에게 호소하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영가를 위해 기도하고 재를 지내고 부처님 경(말씀)을 읽어 주면 영가는 이승에의 집착을 버리고 극락왕생을 하고,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돌아가신 분에게 끄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심원사에서는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합동 49재를 아래 일정과 같이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 선망조상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시고 그 인연공덕으로 다겁생의 업장이 모두 소멸 되시기 바랍니다.

■ 법회봉행일정

입재 : 7월 4일(음력 5월 23일) 일요일 10시
초재 : 7월 11일(음력 5월 30일) 일요일 10시
2 재 : 7월 18일(음력 6월 7일) 일요일 10시
3 재 : 7월 25일(음력 6월 14일) 일요일 10시
4 재 : 8월 1일(음력 6월 21일) 일요일 10시
5 재 : 8월 8일(음력 6월 28일)일요일 10시
(5재에는 토요일 철야기도 후 새벽 2시 제사에 구병시식을 합니다)
6 재 : 8월 15일(음력 7월 6일) 일요일 10시
회향 : 8월 22일(음력 7월 13일)일요일 10시
백중기도 : 8월 24일(음력 7월 15일)화요일 10시

◆ 49재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부터 철야 기도 합니다.
◆ 기도동참금 : 10만원. 농협 : 238-01-199000 / 국민은행 : 324501-04-042961 / 예금주 심원사
◆ 차 량 문의 : 하나관광 장 묵 기사 : 011-263-7809 홍보실 : 019-9406-4406(왕복 10,000원)
행사기간 중 조계사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7시 심원사행 차량 출발합니다.
반드시 미리 예약바랍니다.
◆ 자세한 것은 종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2번지 전화 : 033)455-5882, 455-3468 팩스 : 033)455-0419

대한불교조계종 철원 심원사 주지 정현 합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지의와 원효의 '회통' '화쟁'은 닮았다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 이병욱 고대 외래교수 주장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가운데)는 6월 15일 열린 선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천태지의와 원효의 두 사상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천태지의(智顗 · 538~597)와 원효(617~686) 대사는 중국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또한 지의는 천태종을 세운 인물이고, 원효는 크게 보아 화엄종 계열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긴밀한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사상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4월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는 6월 15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 '천태의 사상과 원효의 사상의 공통점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병욱 외래교수는 그 첫 번째로 지의의 실상론의 핵심적 내용인 일심삼관(一心三觀)을 원효의 사상에서 찾았다.

이 외래교수는 "지의는 <유마경현소>에서 일심삼관을 한 마음에 3000가지(10법계, 10여시, 3종류국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일년삼천설'로 설명한다. 즉, 한 마음에 온갖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며 "이러한 내용이 <유마경현소>에서는 '관조할 대상'이 되는데 그 핵심은 공(空)이다. 이 공속에 가(假)와 중(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일심삼관'인데 이 내용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대혜도경종요>의 대의(大義)부분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무이(無理)의 지이(至理), 곧 '이치 없는 것의 지극한 이치'를 말한다. 여기서 이치 없는 것은 공의 정신을 나타내고, 지극한 이치는 이치 없는 것의 '부정'을 통한 '긍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와 일치한다. 즉 무이의 지이는 부정과 긍정을 합쳐놓은 것으로 중도의 맥락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 "원효가 화쟁사상을 말한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지의의 사상에서도 회통(화쟁)을 제시하고 있다"며 "천태지의는 <유마경현소>에서 실상이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다르게 불리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이름에 집착해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천태지의는 진성해탈, 실혜해탈, 방편해탈을 중심점으로 해서 10가지의 3법을 회통하고, 원효는 포괄적으로 모든 불교이론을 화쟁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둘의 사상은 큰 틀에서 회통과 화쟁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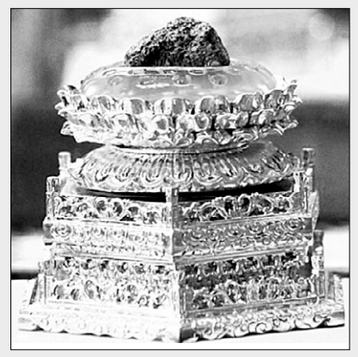
지의의 사상체계는 5시8교로 알려진 교판론(敎判論)과 점차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의 3종류의 지관으로 구분한다. 이 때 부처님이 중생을 인도해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 제시된 교법인 4실단(悉檀, 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 제일의실단)은 천태의 주요 사상인 교판론을 일으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여기서 이 외래교수는 "지의의 4실단이 원효의 <대혜도경종요>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래교수는 "원효는 4실단이 12부경전과 팔만사천의 가르침의 창고를 다 포섭한다고 주장하고, 4실단의 내용이 모두 실제여서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지의와 원효사상의 공통점을 통해 '불교의 현대화'에 대한 하나의 안목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 연구'를, 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한국불교의 종명과 종조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원혜영 대진대 외래교수가 '마라의 악몽'을 발표했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 두정골 사리 공개

中 창간사 지하궁서 발굴


두정골은 머리 뒤쪽 위를 덮고 있는 사각형의 편평한 뼈다. 황금으로 된 보관함의 맨 위에 엄지손톱의 2~3배 크기로 놓인 것이 사리다.

부처님 두정골(頭頂骨) 사리가 1000년 만에 발굴돼 6월 12일 봉안식을 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리는 창간(長干)사 지하궁에서 발굴돼 2년간 난징박물관이 보관해왔다. 난징박물관은 2008년 7월 난징 대보은(大報恩)사 유적 발굴 과정에서 '북송(北宋) 진종(眞宗) 4년(1011년)에 창간사를 중건하면서 지하궁을 만들어 아소카왕탑을 제작, 안치했으며 이 탑 안에 부처의 두정골사리와 감응사리, 제성사리 등을 모셨다'는 글이 새겨진 비각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창간사 지하궁 발굴에 나선 난징박물관은 2008년 11월 칠보(七寶)로 제작된 아소카왕탑을 찾아냈고 이 탑 안에서 금관과 은궤에 보관돼 있던 부처 두정골사리 등도 발굴했다. 지하궁에서는 또 부처 정골사리 안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비석도 출토됐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리가 북송으로 건너와 경전 번역 작업을 했던 북인도 스님으로 북송 초기 3대 고승으로 불렸던 시호(施護) 스님이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 두정골사리가 보관됐던 아소카왕탑 역시 석가모니의 출생과 성불, 열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삶에 대한 공포에 '선' 대안으로

윤양호 교수 서양문화에 미친 선사상 고찰

지난 1세기 동안 서양사상과 종교, 문화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혁명과 1 · 2차 세계대전, 경제공황 등 시대적 공황상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던 기존의 종교는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자 서양인들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면적인 감성과 새로움에 대한 인식들을 반사회 · 반문화 · 반예술 · 반종교적인 표현들로 표출시킨다"고 설명했다.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서양 문화와 사조에 동양의 선(禪)사상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는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윤양호 원광대 교수는 6월 11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현대문화와 선사상: 서양문화를 중심으로'를 통해 서양 문화에 미친 선사상의 영향을 조명했다.

윤 교수는 "산업혁명, 1 · 2차 세계대전, 경제공황 등 시대적 공황상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던 기존의 종교는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자 서양인들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면적인 감성과 새로움에 대한 인식들을 반사회 · 반문화 · 반예술 · 반종교적인 표현들로 표출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초엽 일본 선에 영향을 받은 모네의 '수련'연작을 필두로 했다.

윤 교수는 "1904년 모네는 자신의 집에 직접 일본식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 동양의 식물들을 심고 가꾸며 동양문화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며 변화를 가졌다. 그는 정원을 가꾸며 수련 등의 작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노력은 일본문화가 서구에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1915년에 등장한 다다이즘은 "수많은 모순을 잉태한 전통의 모순은 모두 무(無)로 되돌려서 백지상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표방한다.

윤 교수는 "기존의 전통 질서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다다이즘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송두리째 허물어버리는 자세인 선의 칼날 정신에 닿아있다"고 분석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1922년 헤르만 헤세가 쓴 <싯다르타>로 인해 더욱 증가한다. 싯다르타는 당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럽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겪은 서양인들은 정치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불교는 그 새로운 사상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불교는 절대적인 힘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관조해 삶의 지혜를 스스로 찾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윤 교수는 아방가르드와 제로 운동, 플럭서스(Fluxus), 포스트모더니즘, 히피 문화의 등장을 사례로 서양 문화와 선의 영향을 조명했다.

제로운동은 1957년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집단운동이다. 윤 교수는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은 삶의 존재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대안으로 불교와 선사상을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1962년에 나타난 플럭서스는 고급 예술을 멀리하고 대중 예술을 지향해 퍼포먼스와 유연한 글쓰기, 실험주의, 우상 파괴, 미니멀리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윤양호 교수는 "플럭서스는 전통질서에 대한 반발과 거부를 넘어 사고의 유연성과 깊이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종교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선 사상이 서구 사회에 확산되면서 전통 종교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일본과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는 불교를 서양에 전파하는데 일찍부터 힘써왔지만 우리나라는 숭산 스님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선 불교 전파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윤 교수는 "선사상과 불교문화예술은 1900년대 초기 주로 일본, 중국, 티베트,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의 나라에서 많은 승려들과 서적들이 건너가 번역되고 소개 됐으나 한국불교의 경우 1980년대부터 숭산 스님의 큰 역할로 소개되기 시작했다"며 "아직도 한국불교와 한국 선에 대한 인식은 미진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된 연구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티벳어 한글 표기안' 발간

東大 티벳장경연구소… 음운론 등 담아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소장 김성철)는 <티벳어 한글 표기안>(사진)을 발간했다.

42페이지의 소책자에는 △티벳어 음운론 △티벳어 한글표기 △티벳어화된 범어표기 △티벳어 한글 표기안을 따른 음절표기의 실례 등이 실렸다.

티벳장경연구소는 3월 <티벳어 한글 표기안>만들기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과정에는 땐진 남카 스님(티벳장경연구소 연구원)과 쐬남 걜챈 스님(부산 한국-티벳센터 주지)이 동참했다. 한국인 전문가로는 최연철 박사(티벳장경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은정 객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티벳어 한글 표기안>은 표준어인 중앙티벳어(라싸어)의 발음에 토대를 두고 표기의 일관성을 가장 중시했다.

김성철 소장은 "이상적인 티벳어 한글 표기안이 되려면 외래어 한글 표기법을 준수하면서 표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발음 역시 원음에 가까워야 하며, 한글표기만을 보고서도 원래의 티벳어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 표기안을 준수할 경우,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를 포함해 티벳어를 한글로 음사하고자 할 대 원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누구나 동일한 한글표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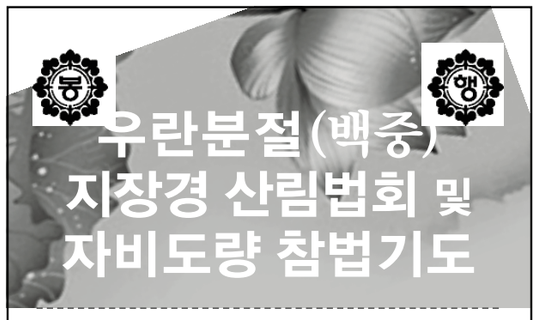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고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0년 7월 3일 - 7월 9일 [6박 7일]	우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7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7월 9일 일요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방한쇼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과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영험도량에서 있을 천도재 · 산림법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법사 : 석 혜능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일시 : 불기 2554년 5월 25일 (양, 7월 6일) ~ 7월 15일 (양, 8월 24일)
◆ 조상, 태아령 영가 천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 - 오전 10시
◆ 지장경 산림법회 - 오후 2시
금강경으로 장엄한 법당, 시왕(명부)를 모신 지장기도 영험도량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1077-6번지
수 정 사 성천 합장
052)225-0068, 0177

6 · 15공동선언 행사 따로따로

평화통일민족대회서 "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6 · 15공동선언 10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정부의 불허로 무산돼 남북에서 별도로 행사를 진행했다.

6 · 15공동선언실천 10주년 행사준비위원회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남측만 '6 · 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했다.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간 대화 촉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6 ·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는 평화통일민족대회 대회사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거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지만, 일체의 남북교류를 금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허를 통보해 남과 북이 각기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천민자본주의적 자세로 북을 대하며 6 · 15공동선언과 10 · 4선언을 폐기 처분하면서 긴장과 대립으로 냉전 북풍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극단주의적 한반도 정책을 바꾸는 길 만이 6 · 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백낙청 남측위원회 명예대표는 '6 · 15시대는 계속된다'는 제하의 격려사에서 "6 · 15공동선언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폄하해오던 우리 정부가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교류단절 선언까지 하면서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단절된 것에 통탄과 분노를 한다"고 말했다. 백낙청 명예대표는 "6 · 2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이 민주, 평화를 선택한 것은 지난 10년간 국민생활이 6 · 15공동선언이 안



6 · 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6월 1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남측위는 재신청을 해 서울 광장에서 행사를 어렵게 치렀다. 사진제공=6 · 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겨준 평화와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영위돼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6 · 15시대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로 체질화돼 과도화된 무리수를 두지 않고서는 6 · 15정신을 파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사건의 어뢰피격설은 대부분 관련 정보와 증거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가능 한 것임에도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뒤엎고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6 · 15공동선언실천 남측 · 북측 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6 · 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민족 최고의 통일 공동선언 이행이 위협받고 있다"며 "6 · 15공동선언 이행에 역행하여 군사적 긴장과 동족 사이의 대결을 추구하는 행위는 단호히 저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10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동족 적대 정책에 원인에 있지만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진효 스님, 김상근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백낙청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 유일한 대안"

김대중평화센터 6 · 15공동선언 10주년 학술회의



6 · 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6월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동현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방금 전 국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휴전선에서 대남 비방 방송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북한 백화원 초대소에서 거행된 송별 오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첫 마디 말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대립관계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 "전쟁불사론" "엄중한 전쟁국면"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6 · 15공동선언은 10주년을 맞았다.

김대중평화센터는 6 · 15공동선언실천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6 · 15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새 출발"에 의견을 모았다.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제1 · 2차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정현백 교수(성균관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제2차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 각각 △6 · 15남북공동선언 10년, 안보와 평화의 함의 △6 · 15공동선언과 화해 협력 '시민정치의 새 출발점에 서서'를 주제 발표했다.

기념행사 참가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남과 북 모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말과 행동 자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시작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이행 △제2, 3의 천안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이행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한국 정부는 관계국과 협의하여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 직후 기념만찬에는 민족공동체운동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 김대중 前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특별강연
6 · 15선언 '한반도식 통일' 계기 마련

"6 · 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그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20세기적 냉전체제를 유지하려는 21세기 세계사의 후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 지역 전체주민의 투철한 역사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만길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6 · 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6 · 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지역 남북주민들의 상호관계를 적대관계로부터 동족관계로 되돌려놓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식 통일'이 시작되는 계기 마련, 국가연합 통일방안과 연방제통일방안의 합치점을 구함으로써 한반도식 통일방안 자체의 진전과 21세기 세계평화주의 실현의 주역으로 변모해 세계평화의 정착에 이바지한 선언이라고 밝혔다.

강만길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역사가 직선으로만 나아가지 않기도 한다"며 6 · 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님을 인정했다.

강 교수는 공동선언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계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 발달에 공헌하는 것이 역사의 길인지, 20세기의 냉전 · 대립 · 분쟁을 견지하는 것이 정권의 존재 이유와 권익을 유지하는 것인지 냉철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교수
6 · 15선언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의 길

문정인 교수는 앞으로의 통일의 방향은 "평화공존, 교류협력확대"라고 못 박았다. 이어 문정인 교수는 "1 · 2차 정상회담과 6 · 15, 10 · 4 공동선언을 통해 전쟁도 없고, 적화 통일도 흡수 통일도 아닌 공존공영의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아왔다. 그러나 지난 두 정부가 이뤄 놓았던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이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해괴한 역사의 반전'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교수는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음을 밝혔다.

"첫째, 신뢰구축의 공헌이 가장 크다. 6 · 15 공동선언 채택은 55년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둘째, 북한의 최전방 전략적 요충지인 개성에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평화의 공간이 확장됐다. 셋째, 남북이 주체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넷째, 국민의 안보의식 변화다. 안보공포증 수준의 국민들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안보 불감증'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줬다."

또 문정인 교수는 현 정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도덕적 절대주의 경향을 비판했다. 문 교수는 "북한 체제를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잘못을 저지른 북한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을 여러 대목에서 볼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일방주의 자세가 대세를 이룬다"고 말했다. 비핵개방 3000, 그랜드 바게닝 제안 모두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 제안이라는 뜻이다.

문 교수는 6 · 15 공동 선언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평화 공존으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교류가 실현되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 '잘 다듬어지고 확실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교수
남북관계 개선에 "종교분야 활발" 눈길

정현백 교수는 "사회문화 교류가 남북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양적 · 질적 확대에 주목했다. 정현백 교수는 "평화 · 화해 ·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교류가 목표 실현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종교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종교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1997년까지 연 1~2건에 불과하던 교류가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 1989년 6월~2005년 11월 201건의 접촉과 173건의 방북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을 전후로 순수 종교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평양신학원, 봉수교회 재건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 밖에도 "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종교연합모임요청에 따라 남북종교교류추진협의회(2003년 결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남북종교인평화모임' 등이 종교간 화합과 민족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현백 교수는 "냉전문화 해소, 남남갈등의 극복,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문화 교류가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백 교수는 평화 통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시민사회, 국회, 정부당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담론의 구성과 확산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명락사 다문화가정 법화경 사경대회

"경전 사경 하며 한글과도 친해져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묘법연화경>을 사경하고 있다. 6월 13일 명락사에서 '다문화가정 한글배우기 묘법연화경 사경대회'가 개최됐다. 한글배우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묘법연화경> 사경은 13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외국인 스님과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에게 <묘법연화경>을 전달하고 있다.

"한글은 너무 어려워요."

캄보디아에서 온 로스속행씨가 <묘법연화경> 사경을 시작하자마자 서툰 한글 실력이 부끄러운 듯 한마디를 던졌다. 한국에 온 지 9개월 된 로스속행씨에게 한국은 아직 낯설다. 게다가 한글을 익히는 것이 많이 어렵다.

그런 그녀에게 명락사에서 사경대회를 한다는 소식은 너무 반가웠다고 한다. 로스속행씨의 고향(캄보디아) 친구인 홍나래씨는 3년간의 한국생활로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만큼 한글에 능숙하다.

로스속행씨는 "친구만큼 한글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사경을 열심히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6월 13일은 명락사의 사경대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서울 봉천동 명락사(주지 무원)에서 다문화가정 한글배우기 <묘법연화경> 사경대회가 열렸다. 법당을 가득 채운 명락사 신도들과 스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30여 다문화가정 불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명락사에서 처음 열리는 다문화가정 한글배우기 <묘법연화경> 사경대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정 불자들은 중국의 푸죈죈 · 이경화 · 송리나 · 김연자 · 정해월 · 심정씨와 몽골의 체첵 · 아즈자야씨 그리고 캄보디아의 홍나래 · 로스속행, 베트남에서 온 가오티누엣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원 스님으로부터 받은 <묘법연화경>을 들고 "100일간 정진해 부처님 법

"반갑다 반가워" 명락사 사경대회 100일 정진

결혼이주여성 위한 쉼터 명락빌리지 등 지원

도 익히고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으로부터 <묘법연화경>을 건네받은 다문화가정 불자들의 얼굴에도 연꽃이 피어올랐다.

이들은 100일간 정진하며 <묘법연화경>을 사경한다. 대회인 만큼 <묘법연화경> 사경을 회향을 한 뒤에는 명락사에서 참여자들을 치하하는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경이란 경전을 베껴 쓴다는 의미로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정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써 내려가면서 그 뜻을 새기고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 바로 사경인 것이다.

<묘법연화경>은 천태종단에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소의경전이다. 이름 그대로 묘한 법을 담고 있는 연꽃과 같은 경이라 해서 <묘법연화경>이다.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한다.

무원 스님은 "불교의 훌륭한 수행법의 하나인 사경수행을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해봄으로써 이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한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문화라는 것은 다양함에 의미가 있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될 때 새로운 것이 창조 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돕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돕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명락사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식당과 14개의 원룸을 갖춘 건물이 있다. 이곳이 바로 2009년 8월 21일에 건립된 명락빌리지이다. 이곳은 이혼하거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결혼 이민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안식처다. 이주 여성과 자녀들은 이곳에서 어두운 상처를 치료하고 미래의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 갑자기 거처를 잃은 결혼이민여성들은 새 집과 직장을 얻을 때까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다. 명락빌리지에는 현재 베트남, 몽골, 중국 등에서 온 여성 11명과 그들의 자녀 7명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취업 준비, 법률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진정한 다문화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시설로 거듭난 것이다.

명락사 인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습공간도 마련 돼 있다. 2010년 2월 25일 개원한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구립 아이뜰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고 있다.

법회에 참석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을 감싸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이벤트 아닌 실속 지원 필요해"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



"다문화와 다문화 복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됐고, 그것이 정착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기에 다문화가정 돕기에 나섰습니다."

무원 스님은 "'그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만들려면 우리 전통문화도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2009년 2월 1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명락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다문화 등(燈) 달기' 운동을 벌였고 이혼한 이주 여성들의 쉼터인 명락빌리지를 개설하는 등 다문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런 무원 스님의 다문화가정 돕기 활동으로 이제 명락사는 '다문화 사찰'로 불릴 정도가 됐다.

무원 스님은 1979년 천태종 2대 종정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이때 은사로부터 받은 '마음 잘 쓰는 것이 도 잘 닦는 것'이란 화두가 다문화 활동의 계기가 됐다.

스님이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명락사 주지로 취임하기 전 있었던 인천 황룡사에서부터였다. 스님은 그곳에서 새터민과 이주노동자를 만나게 됐고 그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다.

"주변에 사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절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스님은 2006년 당시 새터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영통포럼을 설립하고 통일부 산하 하나원 지원과 대국민 세미나, 외국인 템플스테이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무원 스님은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업종에서 일하며 경제의 공백을 메워주고있다. 또 이주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주는 등 이들이 나라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적개심을 갖거나 분별심을 낸다면 이는 우리나라 인권과 위상이 점점 뒤쳐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 · 정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스님은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마다 다문화 관련 행사가 많아져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벤트성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은 못돼요. 실속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C789-102010.6.2111:13AM페이지1(1,1)

단오맞이 쌍합선 부채전

장흥 보림사(주지 지묵)는 6월 13일 단오절을 기념, 단오의 대표적 풍습인 '단오 부채전'을 가졌다. 올해 8회째 진행된 부채전에는 '달마, 심우도, 새우' 등의 주제로 지묵 스님 쌍죽선 부채 250여 점이 선보였다. 이번 부채 판매 수익금은 보림사 불교대학의 포교활동 기금으로 활용했다.

지묵 스님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불교의 경구(經句)나 달마대사를 그린 그림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단오날 먹물로 그린 달마대사 쌍죽선 부채를 흔들며, 더위를 이기는 것이야 말로 명절을 뜻있게 보내는 선조들의 지혜를 살리는 뜻 깊은 행사"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부루나 합창단 공연 광주불교사암연합

"맑은 바람 스미는 초여름 연못에, 모든 시름 잊은 듯 초연하는 피는 모습~"

초여름 혼성 불교합창단이 시원한 감동을 전하는 정기발표회를 개최했다.

광주최초의 남성불교합창단인 부루나 합창단(단장 김형권)과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단장 서경희) LOTUS CHORUS는 6월 14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정기발표회를 개최했다.

'연꽃 피어오르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합창회는 박종찬씨의 지휘와 정현미씨의 반주에 맞춰 '반야심경', '가지산 물소리', '진리의 빛' 등 15여 곡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혜월 스님(한마음선원 광주전남지원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범능 스님(화순 불지사 주지), 지용현(광주전남신도회장)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선운골 사람들의 화합 한마당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제안 '선운골 공동체' 구성

천년고찰 선운사 일대 전북 고창군 삼인마을과 석상마을,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사람들은 생활공동체 '선운골 공동체'를 구성했다.

공동체 구성을 기념하며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이 6월 14일 선운사 생태공원 앞에서 선운골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뜻을 한데 모아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공동체 구성은 선운사를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던 중 선운사 법만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선운사 인근 200여 마을주민들과 농협, 파출소, 우체국 직원, 도솔암, 동운암, 석상암, 선운사 승가대학 학인 등 스님 50여 명이 동참한 이날 화합한마당에는 마을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이 푸짐한 음식을 먹고, 정담을 나누며 편하게 진행됐다.

또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 아래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스님들과 족구, 농구 자유투 던지기,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 던지기 등의 놀이를 겸한 경기를 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선운사 일대의 주민들과 스님들이 선운골 공동체를 구성해 친목과 화합을 다짐했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를 창건할 당시 소금 굽는 법을 주민들에게 전수해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 검담선사의 창건정신을 되살려 선운사를 중심으로 수행과 포교, 문화와 복지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인근 마을주민들과 함께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선운사를 방문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창을 여행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을 베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운사에서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지역 번영과 화해와 상생이 이뤄질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군 관계자들도 "선운사를 중심으로 선운산 도립공원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적, 템플스테이 등을 중심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계절 관광지로 인기가 높은 만큼 전 국민의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는데 '선운골 공동체'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교도소 15대 교정위원장에 자인스님 취임

교도소가 텅 비는 그날까지…

"지난 25년 동안 사회봉사활동과 군산교도소 교정교화사업을 통해 재소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순간의 실수를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군산교도소 제15대 교정위원장 자인 스님

힘들고 어렵지만 예토를 정토로 바꾼다는 원력하나로 25년간 군산교도소 교정교화활동에 매달렸던 군산 내원암 자인 스님이 6월 17일 군산교도소 교정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올해가 군산교도소가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각 종교별 교정위원들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한편 '옥정골 봉사활동'을 통해 교정교화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인 스님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을 유보한 지장보살의 원력처럼 유익하고 알찬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해 교도소가 텅 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지역에서는 '재소자들의 어머니'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자인 스님은 지난 25년동안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교도소 내 80평의 법당을 건립하고 불자 재소자들과 자매결연 주선, 취업알선 등 재소자들의 교정교화 활동에 정성을 다해왔다. 그 공로로 1991년 법무부장관 표창과 1996년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인 스님의 임기는 2년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수 스님 고향 봉동은 이제 의인의 고장

완주군 봉동읍 문수 스님 추모제

4대강 사업 중지와 부정부패 척결, 가난한 서민을 위한 세상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추모제가 6월 12일 문수 스님의 고향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완주 송광사 도영 스님, 금선암 덕산 스님, 대원사 적묵 스님 등 20여 스님들과 전주 바라밀 합창단,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을 비롯한 지역의 불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문수 스님의 큰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문수 스님의 고향 전북 완주에서 6월 12일 문수 스님의 추모제가 열렸다.

도영스님은 추모법어에서 "문수스님의 육신은 갔지만 스님의 정신만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 며 "우리지역에 의인이 나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님의 큰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스님의 큰 뜻을 이어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용 추모제전위원장 (전 완주신문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문수스님의 정신은 이제 우리 지역의 자랑인 봉동의 정신이 되었다"며 "지역민들과 합심해 문수스님의 정신을 고추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의선사 탄생 기념 문화제

초의 선사 탄생 224주년을 맞이해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용운 스님)는 지난 12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소재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초의선사탄생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초의선사 헌다의식을 시작으로 초의선사 동상 헌다제, 학술세미나, 작은음악회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임지암 일원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한국야생꽃차시연시음, 초의선사 서화탁본 체험, 국악 및 문화공연, 찻 자리전 등이 진행됐다.

용운 스님은 "많은 다인들이 올린 정성스러운 차 한잔은 초의 스님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며 "다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제3회 빛고을 연꽃문화제

동련 광주지구(지구 회장 도제, 광주 길상사 주지)는 6월 13일 무각사 앞마당에서 '제3회 빛고을연꽃문화제'를 개최해 미래 어린불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5세부터 초등학생 180여 명이 두루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글짓기, 그림 등에서 자신의 숨겨온 솜씨를 뽐냈다. 작품활동의 시제는 '부처님나라, 부처님마음, 부모님'이었다.

작품활동에서 조계종 포교원장상 대상에는 전대진(목포 북교초등 2년), 최우수상에는 박지민(효광초등 3년)과 한은상(계수초등 3년), 김경민(서석초등 5년), 김민영(유안초등 6년)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특별상, 우수상, 가작 등 16명의 어린이가 그림과 글짓기에서 각각 수상했다.

심사위원에는 원로시인 손광은 명예교수(전남대)와 김수봉 작가, 최은정 작가, 장영일 화백(호남대 초빙교수), 김송자 선생(국전 초대작가)의 심사로 진행됐다.

그밖에 우리들의 연꽃문화제, 체험 및 놀이활동(인경체험, 페이스페인팅, 즉석사진 촬영, 등 만들기, 나무 악세사리 만들기, 부채 만들기, 물풍선 만들기, 연꽃사탕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문화공연(마술, 비보이, 오카리나, 대금)등이 진행됐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동연에서는 매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창의적인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연꽃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미래이다. 부처님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방방곡곡 休~ 솔솔

올여름 템플스테이에 빠져 볼까?

여름을 맞아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 www.templestay.com)은 6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 갑사, 고성 건봉사, 순천 송광사, 하동 쌍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여름 템플스테이 일정을 발표했다.

6~8월 진행되는 여름 템플스테이에서는 휴식형 · 체험형 · 수행형 · 특별형 등 4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명상, 암자순례, 사찰음식 만들기 등 불교문화 체험이 펼쳐진다.

최근 국내 · 외 대중에게 각광 받는 사찰음식만 해도 삼색수제비(동화사), 연잎 밥과 대통 밥 만들기(보성 대원사), 야생차 채취(화엄사), 전통 떡 만들기(숭림사) 등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민화그리기(흥국사), 농사체험(통도사), 3개 사찰을 순례하는 3사3색 템플스테이(화엄사)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 줄 명상과 상담, 힐링테라피 등이 올여름 당신을 기다린다.

조동섭 기자



사찰	날짜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참가비	연락처
갑사 (공주)	6.26~27	숲속 템플스테이	발우공양,스님과의 대화,108배,참선,탁본, 컵 연등만들기,숲길(용문폭포)걷기	4만원	041-857-8981 www.gapsa.org
	6~7월중순	휴식 템플스테이	불교 기초교육,스님과의 대화	4만원	
	8월초(1회)	휴식 템플스테이	발우공양,사물체험,기수련,108배,참선,숲길 걷기(용문폭포)계곡발담그기,숲해설,석장리 박물관 관람,탁본,108염주만들기외	8만원	
건봉사 (고성)	7.17~18 8.14~15	휴식형 템플라이프	녹차밭산책,등공대참배,거진 거진등대공원 산책	2만원	033-682-8100 www.gunbongsa.org
고운사 (의성)	6.26~27	달밤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달밤차마시기,법고치기,운력	5만원	054-833-6933 www.gounsa.net gounsa@hanmail.net
	7.3~4	철야정진 템플스테이	신묘장구대다라니 120독, 300배	무료	
	7.10~11	休休 템플스테이	참선, 다도, 사찰음식,법고치기,운력	5만원	
	8.28~29	夏夏 템플스테이	사찰요리,참선,다도,발우공양,법고배우기	5만원	
	8.3~5	일반 1차 선수련회	초발심 자경문,자연염색,참선,예불, 발우공양	10만원	
	8.6~8	일반 2차 선수련회	하안거 참선수행(참선,운력,예불,발우공양)	10만원	
골 굴 사 (경주)	월~금 오전	움직이는 禪의 향기-주중	예불,금강경독송, 좌선, 행선, 108배, 선무도 수련,국궁	5만원	054-775-1689 www.sunmudo.com d-kumkang@hanmail.net
	금 오후~일	움직이는 禪의 숨결-주말	선무도비디오시청, 선무도시연, 성지순례, 발우공양	5만원	
금산사 (김제)	6.25~27	스님과의 대화 TS	참선,스님과의대화,108염주만들기,상담,차	10만원	010-6589-0108 www.geumsansa.org geumsansa@hanmail.net
	7.3~4/20~21	스님과의 대화 TS	참선,스님과의대화,108염주만들기,상담,차	5만원	
	7.9~11	도란도란 TS	참선,스님과의대화,108염주만들기,선요가테라피	6/8만원	
	7.17~18	외국인 TS	참선, 스님과의 대화, 연등만들기, 108염주만들기	6만원	
	7.28~8.1	선 나를 깨치다 TS	발우공양, 스님과의 대화, 3000배, 화두법문, 선요가테라피, 예불, 수행문답, 금강경 간경, 108염주만들기, 참선, 목탁고성염불, 수계식	25만원	
	8.3~4/10~11	스님과의 대화 TS	참선, 스님과의 대화, 108염주만들기, 상담, 차	5만원	
	8.12~15	선나를깨치다 TS	발우공양, 스님과의 대화, 3000배, 화두법문, 선요가테라피, 예불, 수행문답, 금강경 간경, 108염주만들기, 참선, 목탁고성염불, 수계식	20만원	
	8.18~19/21~22/24~25	스님과의 대화 TS	참선, 스님과의 대화, 108염주만들기, 상담, 차	5만원	
	8.27~29	스님과의 대화 TS	참선, 스님과의 대화, 108염주만들기, 상담, 차	10만원	
동화사 (대구)	6.26~27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	한국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숲속명상, 소원등 만들기, 별보기 명상	5만원	(053)982-0223 www.dhtemple.org
	6.27	마하붓다 이주민 템플라이프	다도체험, 소원등만들기, 숲속명상, 삼색수제비 만들기, 사찰순례	2만원	
	7.3~4	숲속명상 템플스테이	다도체험, 부도군명상, 옛길걷기명상, 별보기 명상, 108배, 소원등 만들기	5만원	
	7.17~19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도미노 쌓기, 염주, 탁본, 인경, 108배, 숲길걷기 명상, 참선 탑돌이	5만원	
	7.23~25	초등부 여름 수련회	물놀이, 전래놀이, 연꽃만들기, 다도체험, 탱화그리기, 퀴즈, 사경, 단청그리기, 찰흙놀이	5만원	
	7.28~8.1	대학생/일반 여름 수련회	부도군 명상, 옛길 걷기명상, 다도체험, 소원등 만들기, 108배, 염주꿰기, 발우공양	13만원	
	8.3~8	스페인 18기 무술인 템플스테이	옛길 걷기명상, 부도군 명상, 별보기 명상, 발우공양, 다도체험, 소원등 · 전통음식 만들기	미정	
	8.9~15/16~22	초등학생 영어캠프	미국교과서 수업, 골든벨(영어),염주만들기(영어),체험은 한국어(다도,명상,발우공양)	50만원	
대원사 (보성)	6.26~27	수벽 내관심수	육태안 선생님의 수벽 내관심수 수련 및 일수스님(일본)의 참선방법	3만원	(061)852-1755 www.daewonsa.or.kr daewonsa@gmail.com
	8.7~8	연꽃차 한잔	연잎밥 만들기 체험 및 연꽃차 시음	5만원	
	8.21~22	대학생 캠프	전통무예 수벽치기수련, 강도원 태권도 무술수련, 물놀이, 산행	6만원	
	8.28~29	대통밥 만들기	대통밥 만들기, 산사 체험	5만원	
대흥사 (해남)	6.25~27/7.2~4/9~11	주말 차문화체험 및 트래킹 템플스테이	다도 실습 및 체험, 두륜산 산행, 사찰예절	5만원	(061)-535-5775 www.daeheungsa.co.kr daedunsa@hanmail.net
	8.7~11	가족 숲속마을 템플스테이	참선, 다도실습 및 체험, 산행, 발우공양	10~25만원	
	8.13~18	참선 수련회	참선, 발우공양, 108 참회정진, 명상체험	20만원	
마곡사 (공주)	6.26~27/7.3~4	산사의 여유	참선, 다도, 산책, 108배, 연꽃 만들기, 문화체험, 백범 명상길 걷기	5만원	(041)841-6226 www.magoksa.or.kr magoktemple@gmail.com
	7.14~17/21~24/8.18~21/25~28	휴가 수련회	참선, 다도, 산책, 108배, 연꽃 만들기, 문화체험, 백범 명상길 걷기, 불교 습의(독경 등)	12만원 7만원 (7.21~24)	



사찰	날짜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참가비	연락처
백담사 (강원)	7.10~25	茶樂어울림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1단계 (7.10~11/17~18/24~25)	7만원	(033)462-5565 baekdamsa@hanmail.net
	7.16~18/23~25	참나를찾아떠나는 행복여행	백담사/신흥사/낙산사 연계한 지역문화여행	5만원	
	7.30~8.22	茶樂어울림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1단계 (7.30~8.1/6~8/20~22)	10만원	
	7.26~30/8.2~6	꿈 희망 도전 행복 템플스테이	Fly up into the sky	60만원	
	8.13~15	견우직녀	칠석맞이 견우직녀 참사랑템플스테이	15만원	
백 양 사 (장성)	6.26~27	숲치유명상 템플스테이	참선, 다도, 포행(산책), 108배, 숲명상	5만원	(061)392-0434 www.baekyangsa.org baekyangsa@templestay.com
	7.22~25/5~8	참 나를 찾아서	참선, 법문, 108배, 사찰예절	12만원	
	7.28~8.1/11~15	참 나를 찾아서	참선수행	15만원	
범어사 (부산)	7.17~18/8.21~22	심우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108배, 숲길명상 및 야외참선, 차담, 암자순례, 계곡에 발 담그고 윤좌법회, 참선	5만원	(0510508-5726 www.beomeo.kr beomeosa@daum.net
	7.24~25/8.28~29	휴휴 템플스테이	사물관람, 예불, 발우공양, 참선, 108염주만들기, 사찰안내, 암자순례, 주지스님 법문	5만원	
	8.6~8	청소년 템플스테이	목탁배우기, 선화그리기, 불교영화관람, 부모은중경이야기, 골든피쉬 템플스테이 퀴즈	8만원	
	8.12~15	여름 수행정진	스님과 차담, 삼보일배, 참선, 목탁배우기,선화그리기,불교영화관람,1080배,계명암 일출감상	13만원	
수덕사 (예산)	7.30~8.1/6~8/13~15	속시원 여름선수련회	달빛참선, 예불, 발우공양, 스님과의 대화, 108배하며 소원염주만들기, 숲길맨발행선	8만원	(041)337-0173 www.sudeoksa.com
송광사 (순천)	7.10~14	여름수련법회	예불, 발우공양, 참선, 기초교리강의(17~21)	15만원	(061)755-0107 www.songgwangsa.org
	7.24~28	여름선수련법회	예불, 발우공양, 참선, 참선특강(31~8.4)	15만원	
월정사 (평창)	7.31~8.15	여름 수련회	참선, 차담, 삼보일배, 산책, 108배, 적멸보궁 참배(7.31~8.3/5~8/12~15)	15만원	(033) 339-6606 www.woljoengsa.org
통도사 (양산)	7.3~4	달빛이 흐르는 산사	숲길명상,보궁참선,농사체험,들밥먹기,연꽃밭 나들이	5만원	(055)384-7085 www.tongdosa.or.kr kamjib@hanmail.net
	8.19~22/28~31	달빛이 흐르는 산사	숲길명상,보궁참선,농사체험,들밥먹기,연꽃밭 나들이,작은음악회	12만원	
	8.24~26	달빛이 흐르는 산사	숲길명상,보궁참선,농사체험,들밥먹기,연꽃밭 나들이,마음나누기(특강),작은음악회	8만원	
쌍계사 (하동)	7.18~8.8	선 · 다 · 범패 체험	참선, 선어록강의, 불교음악, 다도체험 (7.18~21/27~30/8.1~4/5~8)	10만원	(055)883-1901 www.ssanggyesa.net



C789-122010.6.2111:15AM페이지1(1,1)

“청량사의 소도, 최씨의 소도 모두 보살이었다”



소의 무덤에서 자라난 ‘삼각우송’이 영화 속 첫 장면인 석탑을 바라보고있다.

영화 ‘워낭소리’의 촬영지
⓫ 봉화 청량사(淸凉寺)

“이 소하고 나하고 같이 죽을 거다.”
“소하고? 소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장사 치러 줍니까?”
“치러 줘야지. 내가 상주질 할 건데.”

마른나무 한 아름씩을 나눠지고 팔순의 농부와 마흔의 소가 저녁길을 걷는다. 팔순의 지게가 쓸쓸하게 흔들거리고, 마흔의 달구지가 힘겹게 워낭을 흔들어댄다. 지난 해 1월에 개봉했던 영화 ‘워낭소리’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늙은 농부와 늙은 소의 이야기를 저예산 스크린에 담은 영화는 300만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의 첫 장면을 청량사에서 찍었다.

수려한 청량산의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청량사는 높고 경사가 급해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유리보전(琉璃寶殿) 앞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석탑을 바라보고 서있는데, 영화에서는 최씨 내외가 이 소나무 아래서 석탑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린다. 소나무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원효대사가 청량사를 지을 때였다. 스님이 사하촌에서 농부를 만났는데, 농부는 뿔이 셋이나 달린 소를 데리고 논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소가 농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였다. 스님은 농부에게 시주를 청했고, 농부는 흔쾌히 스님께 소를 시주했다. 신기하게도 스님을 따라온 소는 고분고분해지더니 청량사 불사에 필요한 목재와 물건을 힘든 길을 오르며 모두 날랐다. 소는 낙성을 하루 앞두고 그만 생을 마쳤고, 스님은 지금의 소나무 자리에 소를 묻었다. 그 곳에서 지금의 가지가 셋인 소나무가 자라났다. 그래서 삼각우송(三角牛松)이라고 한다.

한국영화임에도 진한 사투리 때문에 자막이 필요했던 영화는 화려한 카메라 움직임도 없고, CG와 같은 특수효과도 없다. 절에 가면 들어야 하는 풍경소리처럼 시종 스크린 뒤에서 들려오는 워낭소리가 배경음악이다.

소가 넘어졌다.

“나이가 많네요?” 소를 보러온 수의사가 말했다.
“한 40 가까이 됐지. 오래 못 살지?”
“1년.”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최씨는 할 수 없이 새 일소를 사온다. 새끼를 밴 암소였다.
“저 늙은 소는 이제 어떻게 할참이에요?”
“계속 키워야지 뭐, 죽을 때까지.”

최씨는 평생 소와 함께 살았다. 소와 함께 농사를 지어 9남매를 키웠고, 자동차 대신 30년을 달구지를 탔다. 소는 가족이었다. 그래서 부인 이씨는 소만 생각하는 남편이 늘 불만이었다.
“소한테는 맨날 꼴 베어다 주고, 죽 끓여 먹이면서 나한테는 잘해준 거 없어.”

수의사가 다시 왔다.
“할아버지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최씨는 누워있는 소의 코에서 코뚜레를 풀고 목에 걸었던 워낭을 풀어낸다.
흙 위에 던져진 코뚜레와 워낭을 바라보던 최씨의 눈이 젖어온다.
“좋은 데 가거라!”
소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고는 이내 고개를 떨어뜨린다. 팔순의 상주는 마흔의 소를 흙에 묻고 돌아와 빈 밭에 난 달구지 자국을 바라본다.

영화에 출연한 최원균 할아버지와 이삼순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청량사 신도다. 지금은 연로한 내외 대신 아들과 며느리가 절을 찾는다고 한다. 세 개의 뿔을 가졌던 청량사의 소처럼 최씨의 소도 30년을 한 가족을 위해 살다 갔다. 모두 보살이다.

최씨 내외가 힘겹게 청량사 계단을 오른다. 석탑 앞에서 내외가 부처님께 정성껏 절을 올린다.
“소 죽고 없으니까 생각이 나요?”
“뭐?”
“소가 죽고 나니까 안 됐죠? 생각이 나요?”
“그럼 안 됐지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죽어서까지 말할 거 뭐 있어.”
최씨의 투박한 손가락 끝에 워낭이 걸려있고, 워낭소리가 울리며 영화는 시작된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0>

선과 도는 뜻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노지(露地)의 흰 소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달빛 아래에서 색은 무용지물이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을 먹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예나 지금이나 씹는 것이 없어."
학승이 말했다.
"제발 스님께서 대답해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노승은 응당 이럴 뿐이야."

問 如何是露地白牛 師云 月下不用色
云 食噉何物 師云 古今嚼不著
云 請師答話 師云 老僧合與麼

길 위에 흰 소는 심우도에 나오는 소인데 검은 소는 중생의 습성이 많이 배여 있는 마음에 비유한 것이고 흰 소는 중생의 습성이 사라져서 깨끗한 마음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흰 소는 부처의 심성을 회복한 청정한 상태이다.

학승은 길 위에 흰 소에 대해 조주 스님의 선적 견해를 물은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대답은 시큰둥하다. 검은 소든지 흰 소든지 달빛 아래 서있으면 모두 흰 소가 된다. 따라서 소가 가지고 있는 색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조주 스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흰 소?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하다고… 원래 모두 흰 소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다.

신수종인 북종선에서는 닦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혜능종인 남종에서는 닦음은 중요하지 않고 깨달음을 중시한다. 중생은 원래 부처이다.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사의 말을 듣고 사람이 깨달으면 그 순간 중생의 무명(無明)은 거둬지고 밝은 상태가 된다. 검고 어두운 것은 무지(無知)한 상태이다. 사람이 깨달아 알면 무지는 즉시 사라지고 밝음만 남는다는 것이 남종의 선법인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흰 소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 소는 형체가 없어서 무엇을 먹거나 씹지도 않는다. 닳아서 줄어들 것이 없고 자라날 것도 없다. 그런데 무슨 색깔이 있겠는가. 공연히 분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흰 색과 검은 색을 갈라놓는 것이다. 마음 그 바탕은 성인이나 중생이나 똑같다. 모두 한 결 같이 깨끗하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인 것이다.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마음으로 무언가 헤아리려하면 어긋나 버린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은 세 번 치고 말했다.
"노승이 그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師示衆云 擬心卽差 僧便問 不擬心時如何
師打三下 云莫是老僧辜負闍黎麼

이 법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들어와야 한다. 도(道)에 대해 약간의 망설임이나 의심이 있게 되면 그 의심 자체가 도와 멀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래서 예부터 선사들은 헤아리지 말라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조주 스님도 마찬가지로 설법하고 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선사가 방금 헤아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금방 헤아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어떤 스님도 '헤아리지 않는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고 헤아리는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주장자로 3번이나 두들겨 줬다. 그러면서 조주 스님은 법에 대한 가르침은 정확하고 엄격한 것임을 설명했다. 그 설명은 "주장자로 너를 때리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대를 위해 이러는 것이다. 먼 훗날 네가 도에 대해 알게 되면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믿음은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

마음 그 바탕은 성인이나 중생이나 똑같다

그렇다. 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헤아리면 안 된다. 도는 헤아리면 절대 알지 못한다. 선사가 한 마디 했을 때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행하면 비로소 도에 들어갈 자질이 되는 것이다. 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진실(眞實)'이라는 과제 하나만 해도 그렇다. 무엇이 진실인가? 3아승지겁을 찾아다녀 보라. 과연 그대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릇 문답이라는 것은 뜻(意)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뜻에 떨어지지 않고 스님은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하나 물어 보아라."
학승이 말했다.
"청컨대 스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속에서는 옳다 그르다 하지 마라."

問 凡有問答落在意根 不落意根師如何對
師云 問 學云 便請師道 師云 莫向者裡是非

선(禪)을 말하고 도(道)를 말할 때 절대 뜻에 떨어지면 안 된다. 선과 도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말라' 고 말했던 것이다. 만약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다면 벌써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로 대답에는 어떤 뜻을 포함하게 돼 있으므로 대개 뜻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조주 스님과 같은 선사들은 어떻게 뜻에 떨어지지 않고 선을 보일 수 있을까? 학승은 이것이 궁금해 질문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천만번 설명해서는 안 될 일이고 네가 직접 한번 나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현장 설법을 하려고 했다. 이것은 마침 조주 스님의 선기를 볼 기회였는데 학승은 딱히 질문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그냥 설명해 달라고 재청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여기서는 옳다 그르다 하지 말라"하고 말을 마친 것이다.

오랜만에 조주 스님의 선기를 엿볼 기회였는데 실제 응답이 없어서 안타깝게 됐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뜻에 떨어지지 않는 답변은 본 <조주록>에 여러 번 나오고 있으므로 그리 실망할 일은 아니다. 독자들은 각자 존경하는 선사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그 답변이 조주 스님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용녀(龍女)가 부처님께 친히 바쳤다고 하는데 무엇을 바친 것입니까?"
조주 스님은 두 손으로 바치는 자세를 취했다.

問 龍女親獻佛 未審將什麼獻
師以兩手作獻勢

용녀헌공(龍女獻供)은 <법화경>「제바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용왕의 여덟 살 난 딸은 삼천대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주(寶珠)를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은 이것을 기꺼이 받으시었고 용녀는 즉시 성불했다.

용녀가 보주를 공양 올리고 성불한 것은 보주를 올리고 성불한 것이 절대 아니다. 보주를 올리고 성불했다면 수많은 불사를 했던 양나라 무제도 즉시 성불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 않은가. 용녀가 성불한 것은 부처님께 믿음을 바친 것이다. 믿음은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런데 용녀가 올린 보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받들어 올린 빈 양 손이다. 알겠는가?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❷ 어록의 완성

일상의 문답으로 이루어지다

당대 말기에는 마조도일과 석두희천의 계통에서 선풍이 크게 전개됐다. 소위 호남의 석두종에 대해서는 진금포(眞金鋪)라 했고, 강서의 홍주종에 대해서는 잡화포(雜貨鋪)라 불렀던 것도 그 결과였다. 그들에게 선의 사상과 수행법과 교화를 전승한 주요 수단은 어록이었다. 어록은 선자의 언행록인 까닭에 문하의 수행자들에 대한 훈계 곧 시중(示衆)과 상당(上堂) 및 전기 곧 행장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중심은 다른 선자와 행한 법거량 및 제자와의 문답 등에 대한 기록이었다. 문답(問答)은 이미 당대 초기부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716)에 수록돼 있는 지사문의(指事問義)와 같은 방식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지사문의는 스승이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사물을 가리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그에 대해 제자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마조도일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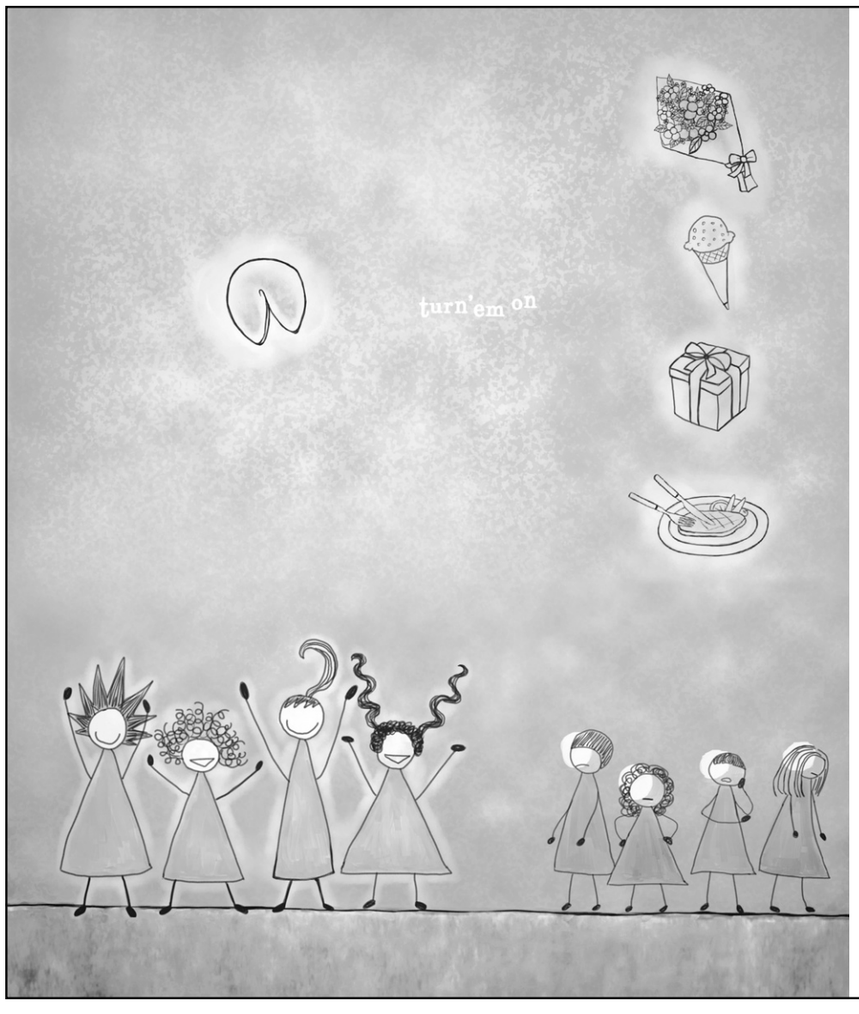
그러나 마조도일에 의해 대기대용(大機大用)이 확립됨으로써 문답의 성격은 일변했다. 마조의 선풍에서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선(禪) 아님이 없었기 때문에 선의 경지를 작용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시돼 일상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 그대로 문답이 이뤄지게 됐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 혹은 그런 입장에서 편찬된 것이 선어록이었다. 때문에 선어록 자체가 선의 깨침이 구체적인 측면과 인격을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상의 표명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어록의 선구는 후막진염(候莫陳琰)의 <돈오진종금강반야수행달피안법문요결(頓悟眞宗金剛般若修行達彼岸法門要決)>과 하택신회(荷澤神會, 684~758)의 <남양화상문답잡징의(南陽和尙問答雜徵義)>를 들 수가 있다.

당대에는 대단히 많은 어록이 편집됐는데 그러한 것들에 의해 후대에 어록이 새롭게 편집된 예도 많다. 이와 같이 어록이 성행한 배경으로는 선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해 문답상량이 대단히 성행한 까닭이었다. 당시는 수행자가 깨침을 목표삼아 각 지역의 선자들을 탐방하면서 수행을 쌓아갔기 때문에 편참(遍參)이라는 수행의 형태가 확립돼 있었다. 마조도일 이후의 선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그대로 진실한 것으로 긍정됐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 확립된 선풍이 곧 조사선(祖師禪)이었다.

대체로 현존하는 당나라 시대의 조사선의 선적은 대부분이 오대 · 송초(五代 · 宋初) 무렵에 편집된 것이다. 이미 어록이라 불리우는 것이 <송고승전>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어록으로 정리된 것은 소위 기관(機關)과 게송(偈頌)의 영역을 벗어나 새롭게 그 특색이 반성되고 의식됐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고전화(古典化)이다. 마치 <조당집>(952) <종경록>(981) <송고승전>(988) <경덕전등록>(1004) 등의 편집이 서로 연속해 행해지던 무렵이다.

본래 어록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機關)과 이치(理致)는 단순한 기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염롱(拈弄)되고 평창(評唱)되는 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기관은 스승이 학인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제시하는 갖가지 수완 내지 방편을 말한다. 또 이치는 스승이 경론의 도리를 제시해 제자를 교화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생생한 언어는 입으로부터 귀로 전달되는 가운데 점차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미된다. 마침 당말 · 오대의 동란기를 지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시작되는 송대 초기에는 그러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됐다. 특히 당말 · 오대를 통해 비교적 평온했던 강남지방에서 당대의 어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 중심은 법안종(法眼宗)으로서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의 <종경록>도, 도원(道原)의 <경덕전등록>도 모두 법안종파에 속한다. 이보다 앞선 <조당집>도 또한 같은 계통에서 나온 것이다. 본래 오대(五代) · 십국(十國) 가운데 오월(吳越)과 남당(南唐)은 중원의 전란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당 말기에 불교의 유산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그와 같은 유산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선자들에 대한 기록물이었다. 그 결과 송대 초기 어록의 성립은 법안종의 연수와 도원의 업적과 병행해 임제종의 황룡파(黃龍派) 사람들의 활동에 의한 바가 컸다. 그것은 <보림전>으로부터 <조당집> <경덕전등록> <천성광등록> 등 소위 등사(燈史)의 계보와는 다른 새로운 선종문헌의 성립을 의미한다. 선이 등사류의 기연에만 속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유동적인 발전의 시기에 출현해 이후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공안집(公案集)의 시대를 맞이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길에 몸 던지는 간절함으로 살고 있는가?



청평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

호명산 감로사에 노닐던 이 노승은
본래 서원 성취코자 삼보전에 소신공양 올리나니
이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은혜를 갚고
국태민안하여 불법이 거듭 흥륭하기를 기원하도다.

화중생연(火中生蓮), 불속에서 연꽃을 피우다. 소신(燒身)공양을 화중생연이라 한다. 소신은 사신(捨身) 유신(遺身) 망신(亡身)이라고도 하는데 몸을 버린다는 의미다. 그러나 몸을 버리는 방법에 있어 인간의지를 뛰어넘는 것이 소신이다. 하찮은 화상만 입어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인데 온 몸을 불태우며 죽음을 맞는 것은 지극한 원력과 수행이 바탕 되어야 가능하다. 울분이나 항거의 표시로 혹은 생을 비관하고 미움을 삭히지 못해 자행하는 분신(焚身)과는 다르다.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은 중국에서 이어져 온 소신공양의 일면을 그렸다. '등신불'은 어머니의 죄를 씻고자 하는 한 수행자의 간절한 원력이 소신공양으로 실천되는 이야기다. 범해각안(1820~1896) 선사가 쓴 <동사열전>에 전하는 일여(1807~1832) 스님의 이야기는 수행의 완성을 통해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일여 스님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16세에 두륜산으로 출가해 먹물 옷을 입었다. 19세에 당대의 대강백인 화담(華潭) 스님으로부터 <능엄경> <기신론> 등을 배웠다. 도반인 백인(白印) 스님과 함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법을 묻다가 25세에 금강산 만회암에서 정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일여 스님은 목숨을 걸고 서원했다.

"이 관음봉에서 100일기도를 올리겠다. 100일이 되기 전에 불 꺼진 찬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기도를 마치겠지만 100일이 되어도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으면 나의 육신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그러나 100일이 지나도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일여 스님은 절 앞마당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올라 불을 붙였다. 백인 스님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백인 스님은 "의상 스님도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도량을 더럽힐까봐 이 산에서 입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극락왕생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소리쳤고 일여 스님은 불 속에서 뛰쳐나왔다. 이미 일여 스님의 몸은 심하게 타버렸고 백인 스님은 인근 스님들에게 방조한 죄를 비난 받았다. 일여 스님은 "내가 극락왕생을 위해 스스로 한 일"이라며 입적했다. 1832년 1월, 일여 스님의 나이 26세 승랍 10년 때의 일이다.

소신공양에 대한 이야기는 <법화경> <금광명경> <열반경> <사분율> <대품반야경> <대보적경> <범망경> <대지도론> 등 여러 경전에도 설해지고 있다. 부처님은 <금광명경> '사신품'에서 일곱 마리의 새끼들과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른 범을 위해 몸을 바친 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에서는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써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하고 여러 가지 향을 먹고 향유를 마시고 바른 뒤 스스로 몸을 태우니 그 광명이 80억 항하의 모래 같은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고 찬탄하고 있다.

중국 당나라 때에는 생사를 여읜 선사들이 소신을 연출함으로써 '생사일여'의 도리를 시현한 사례가 많다. 현태(玄泰) 선사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 앉아 "금년이 65세인데 4대(四大)가 주인을 떠나려 하네. 도는 본래부터 현묘하고 현묘하니 거기에는 부처도 조사도 없다. 머리도 깍지 말고 목욕도 시키지 말고 한 무더기 사나운 불길이면 천만 번 만족하리"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단정히 앉아 불속에서 입적했다. 경통(景通) 선사의 경우 스스로 장작을 준비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 위에 서서 불을 붙여 입적했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소신은 생명의 희생이요 마음의 헌공이다. 상대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절대지상의 세계에서 빛을 투영하는 것이다. 내가 불이다. 내게 불이 붙었다. 내가 탄다. 내가 죽는다. 이러한 생각의 여지가 하나 없이 사라진 절대삼매에서 나오는 심핵(心核)"이라고 정의했다.

소신공양은 철저한 수행을 통한 자기초월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기틀에서 발현되는 원력 또한 소아적이거나 상대적 목적에 경도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구원과 해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불길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일에는 억겁의 불보살이 동조(同調)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1998년 6월 27일(음력 5월 4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호명산 감로사 아래 숲에서 한 줄기 불길이 치솟았다. 태고종 승정 충담원상(沖湛圓相) 스님이 30년 이상 발원해 오던 소신공양을 결행한 것이다. 주석하던 서울 왕십리 승가사에서 홀로 택시를 타고 찾아와 조용한 숲에 임종게를 남기고 육신을 불보살님께 공양했다. 소신공양을 위해 항상 노구(老軀)를 정갈하게 유지했던 충담 스님의 임종게는 이렇다.

잘 살기 기본은 '자기관리' 주변 돌아보는 눈 필요

충담 스님 '화중생연' 도량 감로사 성역화에 매진

만약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묻거든
다 응당히 주하는 바 없게 하라.

그리고 12년이 지났다. 충담 스님의 화중생연 12주기 추모재가 봉행된 뒷날 감로사 주지 지성(智性, 66) 스님을 찾아갔다. 지성 스님은 충담 스님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 혈연(血緣)에 사제(師弟)의 인연을 더한 것이다.

"수행자의 마지막이 소신공양이어야 한다면 나는 중노릇 그만 두겠다."

충담 스님이 소신공양을 올리기 전 해(1997년), <정토삼부경>을 편역하여 출판 단계에 있을 때 기자는 지성 스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었다. 그 때 지성 스님은 충담 스님 옆에서 "매일 지극하게 16관법을 닦으시면서 소신공양의 원을 실천할 궁리만 하신다"며 "나는 도저히 그 광경을 상상할 수도 없어 스님께서 출타하시는 걸 감시(?)하고 있다"고 했었다. 순천 선암사 계곡에 몰래 장작더미를 마련해 둔 것을 찾아내 없애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충담 스님은 12년 전에 숭고한 원력을 실행했고 지성 스님은 그 높은 뜻을 기리는 일을 필생의 원력으로 상속받았다.

"스님의 소신공양은 어떤 이슈에 대한 상대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인류의 안녕, 한반도의 평화통일, 종단간의 화합, 승속의 화합 등을 발원하며 위법망구하신 겁니다. 그 원력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한 것이니 스님의 뜻이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성 스님은 충담 스님의 원력이 실현되도록 하는 불사(佛事)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신공양은 충담 스님 한 분이 하셨지만 그 원력을 성취시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불자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가? 몸을 불길에 던지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반드시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물을 찾는 목마른 사람처럼, 일을 품은 닭처럼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참 불자가 아니겠는가?

"경전에서 설하는 소신공양의 공덕은 바로 철저한 자기 수행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대 선지식들의 소신공양 역시 생사를 관통하는 일념이 어떤 것인가를 설하는 사자후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보살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자과부지(自過不知).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아상이 가득찬 사람은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남 탓만 하거든요. 자기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과 공조되는 자신의 삶을 열어 가야 합니다. 항상 지극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방식으로만 살아가려 하니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하는 겁니다."

지성 스님은 '잘 사는 기본'은 자기관리임을 강조했다. 특히 불자라면 불자의 길을 가야하는데 입으로만 불자이고 행동으로는 비불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한 예로 생일불공을 들었다.

"부처님 생신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찬탄하는데 왜 자기 생일은 여법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생신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부처의 성품을 갖춘 당당한 '예비부처'인데 스스로의 생일을 불자답게 기리지 않습니다. 불자답게 생일을 지내는 길은 바로 생일불공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성 스님이 말하는 생일불공이란, 자신의 존재를 관조하는 진지한 의례다. 불공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온 뜻'을 되새기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갖 악행에 대한 참회가 따를 것이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발원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가족의 화목과 진지한 불자로서의 생활 규범을 지키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정월이나 칠석 불공을 지극하게 올렸어요. 그게 구복이고 기복이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불공은 타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불자의 삶에는 큰 원력 있어야



6월 15일 감로사에서 봉행된 충담 스님 12주기 추모재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

을 증장시키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생일불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뜨겁고 진진하게 살 것을 서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모른 채, 모르고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좋은 향(香)은 아무리 감추어도 그 냄새까지 감춰지지 않는다. 지성 스님은 불자라면 그렇게 좋은 향 하나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원력이란 이름의 향이다.

"충담 스님의 원력은 실로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그 큰 원력이 원력으로 그쳤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실천을 함으로써 큰 원력은 향기를 뿜어 중생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아름답고 크고 숭고한 원력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생을 마감한 뒤에도 거룩하고 알뜰한 향기로 남아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원력도 전승되고 순환되는 것이 중생계니까요."

일체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원력, 개인이 품은 원력이 비록 성취되지는 않더라고 그것이 다시 누군가에게로 전승되고 순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허투루 살 수 없을 것이다.

유구개수(有求皆遂) 여(如) 공곡지전성(空谷之傳聲)
무원부종(無願不從) 약(若) 징담지인월(澄潭之印月)
구함에는 따름이 있으니 빈 계곡에 메아리 소리와 같고
원함에는 따르지 않음이 없으니 맑은 못에 달 비치듯 하네.

불가의 기본 의례인 삼보통청의 앞부분 '유치'(부처님을 찬탄하며 불공 올리는 연유를 아뢰는 대목)에 나오는 구절이다. 지성 스님은 "원력을 품고 사는 사람은 빈 계곡의 메아리처럼 맑은 못에 어리는 달처럼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며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불사르는 투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처음 가는 길에서 늘 겪는 것이지만, 갈 때 보다 올 때 더 많은 것이 보인다. 호명산 감로사 앞으로 큰 길이 나고 있었다. 아마 충담 스님의 화중생연을 현창하는 불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지성 스님이었다.

"지금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감로사 불사 건축허가가 났다고. 다녀가시고 기쁜 일이 생기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 했어요."

"네, 스님. 어제 12주기 재를 잘 올리시어 제불보살님과 큰스님 가피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손수 일군 도량에서 불길 속 연꽃으로 피어나신 충담 스님의 원력이 지성 스님의 원력으로 이어져 향기를 뿜어내는 호명산. 6월의 산은 짙푸른 숨을 쉬고 있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지성 스님은 ...
서울 왕십리 승가사에서 득도했다. 성동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태고종총무원의 재무 총무 사회 사정부장 등과 중앙종회의원(4선), 동방불교대상임이사, 태고종유지재단 이사, 한국불교원융원 원장 등 주요 소임을 역임했다. 2004년 입재한 충담대종사 소신공양 열반성지 성역불사발원 1000일기도를 회향한 뒤로 성역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8. 푸레밧 스님과 볼칸 스님

몽골불교는 공산당의 탄압으로 뿌리째 뽑혀 형식적인 서너 개의 사찰과 서너 명의 승려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 들어 개방의 바람을 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몽골불교는 다시 부흥을 맞고 있다.

불과 10여 년의 기간 동안 몽골에는 전국에 100여 사찰이 세워졌다. 불교대학이 개설돼 있는 간단사에만 300여 명에 달하는 스님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3000명에 달하는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몽골불교가 다시 새롭게 되살아난 데는 많은 몽골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주목되는 스님들은 바로 몽골의 대표적인 정신적 지도자로 불리는 몽골전통불교미술대학 학장 푸레밧 스님과 몽골 간단사의 볼칸 스님이다.

푸레밧 스님은 불화를 중심으로 그리면서도 여러 가지 불교서적을 출판해 인간문화재로서 지성과 기능을 겸비한 성자로 존경받고 있다. 푸레밧 스님은 세계적인 밀교(密敎) 미술가이자 이론의 대가이다. 밀교 예술을 집대성한 책만 23권에 달하며, 수많은 책을 번역해 몽골불교의 미다.



몽골 간단사.

푸레밧 스님과 더불어 몽골의 대표적인 또 한명의 스님은 간단사의 볼칸 스님이다.

볼칸 스님은 1959년생으로, 1982년 자나바자라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몽골국립대학에서 외국어를 공부한 뒤 1994년 간단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다시 국립대학에 들어가 1998년 석사학위를 받고 1999년 몽골 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논문으로는 <동양철학의 지혜와 방법> <인도 · 티베트 · 몽골의 철학과 역사>를 써서 많은 학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프레밧 스님은 예술, 볼칸 스님은 철학분야서 후배 양성

푸레밧 스님은 현재 몽골전통문화예술의 부흥자이다. 몽골 불교예술은 탱화, 단청, 불상과 범패의식이 티벳 전통의식과 비슷하다. 몽골 불교예술은 티벳 불교의 연장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3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자나바자르성자께서 몽골승려의 의복과 몽골불상을 특징 있게 만들어 독특한 불교문화를 형성했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된 불상이 수십 종이 있고, 이를 계승한 간단사 운짠 스님이 1948년부터 왕궁, 동상, 조각, 불상, 탑 등 다양한 예술품을 독창적으로 제작했다. 2007년에 입적한 운짠 스님의 뒤를 이어 지금은 푸레밧 스님이 몽골 전통불교예술을 이끌어 가고 있다.

몽골에는 몽골 전통 불교 사상을 계승한 대학이 세 개 있는데 몽골불교대학, 몽골전통의과대학과 마지막으로 푸레밧 스님이 운영하는 몽골불교예술대학이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라디오의 정기강연 등 다양한 단체가 초청하는 강연과 신문 잡지를 통해 몽골인들이 전통문화를 지켜서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푸레밧 스님은 몽골불교미술대학 학장, 몽골전통문화예술원장, 아스팩 의장, 웁에르덴 학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푸레밧 스님은 항상 "전통문화를 통한 몽골불교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부흥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푸레밧 스님은 "몽골인의 생활풍습은 대부분 불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전통문화사업을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수집하고 있는 고미술품, 희귀경전 등을 모아 박물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몽골 승려로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학자로서 6개국 이상의 언어에 능통해 아세아불교연구소장을 지냈다. 2000년 이후 국립라디오와 TV에 출연해 불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강연을 많이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는 항상 '불교는 철학이요, 과학이며 문학이다. 불교 속에는 인간의 온갖 지혜와 사랑이 숨쉬고 있어,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교육하고 있다.

이 두 분은 특히 몽골불교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푸레밧 스님은 예술분야에서, 볼칸 스님은 철학과 종교에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며 라마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덕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승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삼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망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막리 쫓고 재기를 돌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신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신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미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미용실, 목욕탕, 다방, 점욕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건축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테스 모텔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문방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이곡실, 편의간, 공장, 주유소, 신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앞면 뒷면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밑에 졸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않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탄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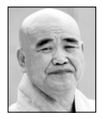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두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범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예은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족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기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예방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⑤

무엇을 이름해 참회라고 하는가?

◆무상참회(無相懺悔)

"지금 이미 사홍서원(四弘誓願) 세우기를 마쳤으니, 수행자들에게 무상참회(無相懺悔)를 줘서 삼세의 죄장을 없애게 하리라.

수행자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바로 참회니라.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할지니, 영원히 끊음을 이름해 자성(自性)의 참회라고 하느니라.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의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할지니,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수행자들이여, 무엇을 이름해 참회라고 하는가? 참(懺)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회(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만 말해도 이익이 없나니, 나의 법문 가운데는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음을 이름해 참회라 하느니라.

지금 이미 참회를 했으니, 수행자들을 위해 상(相)을 여읜 무상삼귀의계(無相三歸依戒)를 주리라. 수행자들이여, 깨달음의 양족존께 귀의하오며, 바른 법의 의욕존께 귀의하오며, 청정한 중중존께 귀의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자성의 삼보께서는 자비로써 증명하소서 할지니라.

수행자들이여, 혜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해 자성의 삼보에 귀의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바름이며 승이란 깨끗함이니라.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해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바로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한다.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삼귀의계를 받는다 하나, 만약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해도 부처가 어느 곳이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귀의할 곳이 없다. 이미 귀의할 곳이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허망 될 뿐이다.

수행자들이여, 각기 스스로 관찰해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지니, 경의 말씀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귀의한다' 했고 다른 부처에게 귀의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성품(自性)에 귀의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의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할지니,
자기의 성풍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

참회(懺悔)라는 것을 한문 그대로 단순하게 직역하면 잘 못을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참(理懺)과 사참(事懺) 참회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뼈끝을 울리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참회를 이참참회라 한다면 사참참회는 형식과 격식의 절차에 따라 모양새만 갖추는 겉치레 참회를 뜻합니다.

이처럼 이참참회는 진실로 마음에서 울어나 참회를 하는 것이고, 사참참회는 진실 됨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참회입니다. 입으로 하는 참회는 일시적으로 형식적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참회는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을 낱낱이 드러내고 씻어내어 다시는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잘못과 허물을 짓게 됩니다.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교만심과 질투심, 탐내고 성질부리며 어리석은 짓은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한번 잘못을 뉘우침에 그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참(懺)이며, 뒷날에 이르러서도 죄업에 물듦 없이 한결같음을 회(悔)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보시(布施)에만 유주상(有住相)과 무주상(無住相)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지계(持戒)와 인욕(忍辱), 정진(精進)과 선정(禪定), 그리고 지혜에도 유주상과 무주상으로 나눠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상참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일체의 모양과 경계에서 자유로운 무집착의 삶을 의미합니다.

육조 혜능 대사는 '삼세(三世)의 죄장을 없애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삼세라는 것은 바로 전생, 내생, 금생을 일컬어 삼세라고 합니다. 전생, 내생, 금생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의미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적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의 생을 전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생이라는 것은 1초 전의 상황도 전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나간 모든 것이 전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가올 내일은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의 내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다가올 내일이 미래이지만,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내생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혜능 스님이 이야기하는 삼세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서양의 학자들은 불교를 오늘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역시 항상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며, 내일은 다가올 오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바로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육조 대사는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의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할지니,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질투' 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달리 <육조단경>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육조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350년 전입니다. 그 당시는 학문과 직업 등이 세분화되지 않고 단순화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 강한 집착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혜능 스님은 질투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좀 더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眼)은 색(色)을 대함에 분별작용으로 경계에 끄달리게 되고 귀(耳)는 소리를 느낌에 칠소대상으로 싫고 좋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코와 입 그리고 몸과 의식작용 역시 빛과 어둠을 쫓아 팔만사천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도 집착하지 말 일이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도 걱정을 미리 앞당겨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지금의 일은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손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얼굴 잘생김만 같지 못하고 잘생겼다 해도 마음 잘 타고남만 같지 못하고 마음을 아무리 잘 타고났다 하더라도 때와 곳에 따라 마음을 쓸 줄 아는 것만 같지 못하다(手相이 不如觀相이요 觀相이 不如心相이며 心相이 不如用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욕심은 버릴수록 아름답지만 집착은 키울수록 병이 됩니다.

나는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되지 못하면서 그 누구는 영원히 내 것이 되길 바라는 소유욕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가정의 평화를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기도 합니다. 입으로만 무소유, 무집착을 떠벌릴게 아니라, 수행자라면 스스로 일일삼성(一日三省)하는 자세로 순수하고 정직하며 청빈한 삶을 드러 내놓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혜능 선사의 무상참회에 부끄럽지 않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사찰의 법회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림 · 김필헌

<법성게>에서는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時無量劫)이라고 했습니다. 육조 대사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한 생각을 간절히 일으키면 곧 깨달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회(懺悔)라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종신토록 참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보면 작던 크던 잘못을 범하기 마련입니다.

<중아함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잘못 사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다시는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 두 번 범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력으로서 스스로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깨달음을 성취해 가는 종교입니다. 혜능 스님은 '깨달음의 양족존께 귀의하오며, 바른 법의 이욕존께 귀의하오며, 청정한 중중존께 귀의한다' 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배울 학(學)자에는 받침에 아들 자(子)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흔들리는 존재기 때문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육조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자신이 서있는 자리가 극락이고, 정토이며 인생의 황금기임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세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고, 깨달음의 종교를 신앙으로 삼는 불교도라면 운명론적인 요행이나 신비주의에 현혹되지 말고, 일체의 만법(萬法)과 일체의 작용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됨을 철저히 사무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색신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도, 극락과 지옥도 이 마음의 닫고 열림에서 비롯되며 간절심으로 둘이 아닌 하나를 이룰 수 있게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념(一念) 가운데 찰라지간에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전생과 내생도 오늘의 삶 속에 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늘의 삶속에서 눈물과 웃음 속에서 때때로 일어나고 있으며 육도윤회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낮과 밤처럼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적, 당생윤회(當生輪廻)가 혜능의 무상참회에서 청정법신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생각의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은 무상과 무집착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와 당신입니다. 사람이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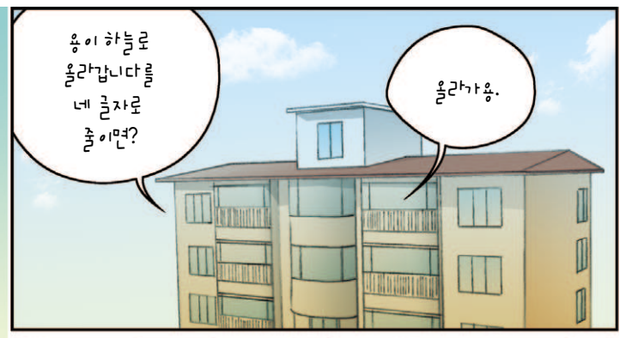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요절복통 여래네 집

#15. 넌센스 퀴즈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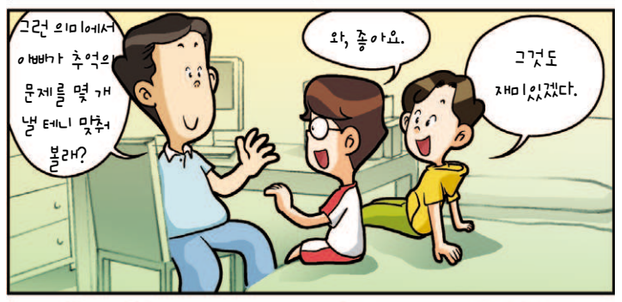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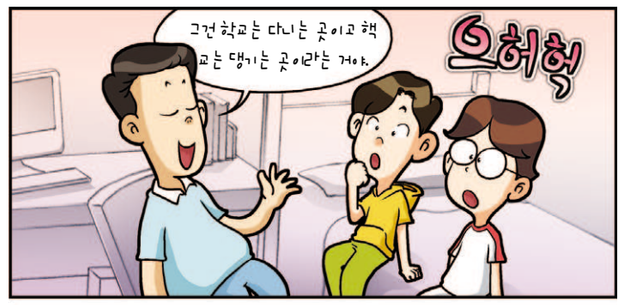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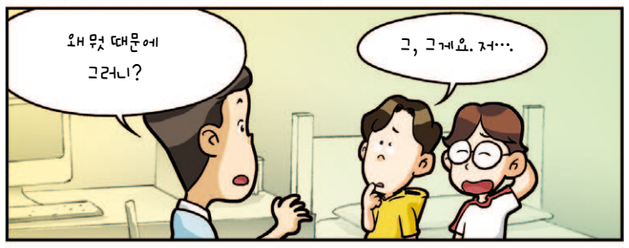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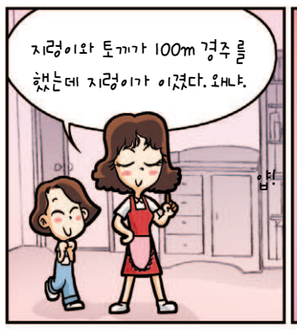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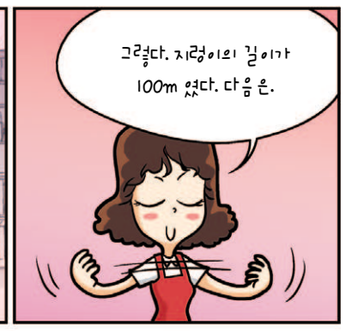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비록 천개의 게송을 외더라도
그 게송의 참 뜻을 모르는 것보다
단 한 귀절의 뜻을 이해하여
편안함을 얻는다면
그것이 나으리라.

법구경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우주에는 신이 없다



과학과 종교간 논쟁을 다룬 번역서가 최근 출간됐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허구를 지적한 책이다. <우주에는 신이 없다>는 30여년간 무신론자로 살고 있는 데이비드 밀스(David Mills)의 저서이다. 밀스는 뉴욕에서 전 세계 심리요법 치료사에게 배포한 심리학 서적과 자기계발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나사(NASA)의 우주왕복선을 취재하는 기자로 활동했다.

데이비드 밀스에 따르면, 기독교의 핵심교리인 창조론은 허구 내지 설화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화다. 특히 그리스나 로마의 신보다 기독교 신을 믿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논리의 법칙을 보더라도 신의 존재는 믿는 사람이 입증해야한다. 물론 진리로 수긍할 수

자유사상가를 위한 종교탐구

있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반면에 명확한 반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믿어야 한다면, 왜곡된 논리 때문에 허구를 실체로 믿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진리에 대한 자각보다는 신을 받아들이도록 세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종교가 주는 위안은 무엇 때문일까? 죄의식과 불안 때문이다. 성령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회개를 통해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자신의 내적 감성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성령이라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위안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과정이 성령이 실재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정신적 경향을 밀스는 신성한 최면이라고 부른다.

데이비드 밀스는 예수에 대해 역사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수에 대한 역사 기록은 있지만,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기록자로 요세푸스와 타키투스, 순교자 유스티노 등 6명의 학자와 순교자를 거론한다. 그러나 모두 예수가 처형당한 후 수십 년 이내에 태어나지 않았다. 즉, 예수 당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예수 생애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자료도 없다. 다만, 예수 기록이 집필되던 시기에 그리스도의 전설(傳說)이 있었다는 증거는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몇 십 년 후에 예수 생애를 언급했던 사료 제공자들은 예수와는 전혀 별개인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의 생애와 민간전승도 상세하게 전했다.

저자는 서두(序頭)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예나 지금이나 용감하고 꿋꿋하게 과학적 방법론에 헌신하여 공동체를 암흑시대에서 벗어나게 한 세상의 모든 자유사상가들에게 바칩니다." 이 책은 2004년 4월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영어권 지역에서만 300만 부가 팔렸으며, 판매중인 상위 1% 도서 가운데 10분의 1에 속할 만큼 꾸준히 판매되는 화제작이다.

우주에는 신이 없다 | 데이비드 밀스 | 권혁 옮김 | 돋을새김 | 1만8000원

진정화

동아시아 하나로 만든 접착제 불교

석길암 교수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아주 간단하게 동아시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사람들에게 '人'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고 사람들은 '人'을 다르게 읽지만 뜻은 한 가지로 인식한다. 또 다른 구별방법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대승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베트남은 한자문화권에 속하기도 하지만, 임제종 계열의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번창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 그 문화를 주변 지역에 전파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됐고, 그때 전파된 문화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전체에 통용됐고 동시에 강렬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한자'와 '불교문화'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아시아 문화권 지역에 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다. 이미 존재했던 동아시아 사회에 불교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불교에 의해 동아시아라는 문화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인 석길암 박사는 최근 펴낸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한자와 중국에 새롭게 전해진 불교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아시아 사회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동아시아'라는 사회 · 문화 · 사상이 형성되면서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했다"며 "따라서 한자와 불교는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접착제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불교를 축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 한 것은 중국인들만이 아니었다. 인도인, 이란인, 실크로드 도상의 유목민, 중국인, 몽골인, 티베트인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 동아시아 불교문화 네트워크 건설의 주역으로 참여했다.

저자는 "동아시아 불교문화 네트워크는 당시의 '세계인들'이 만나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서 만들어 냈던 것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문화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불경 번역자가 인도 혹은 서역출신이었다는 것, 또 중국인들이 받아들인 불교사상과 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데는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인도 및 서역과 중국 주변의 이민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그렇다. 일례로 중국불교의 4대 보살신앙의 성지 중에서 관음보살 성지인 보타도와 지장보살 성지인 구화산은 신라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말미암은 것이었고, 전형적인 중국불교로 일컬어지는 선종의 흐름에서 사천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티베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검남종은 신라출신 김무상 선사에 의한 것이었다.

석길암 박사는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진행했던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HK사업에 참여하면서 불교사상의 동아시아적 변용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한 자료를 축적했고 이를 이야기로 풀어썼다.

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원을 전후해 전래된 불교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 즉 역경이 중국의 정치 및 사회 문화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역경승과 구법승들은 단순한 종교적 구도자가 아니라 인도와 중국 두 문화를 통합하는 문화사절이었으며, 최신 정보의 전달자인 동시에 생산자였고, 정보판단의 주체였음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사용한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해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양과 같은 인쇄혁명이 동아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서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는지, 출가수행자가 탁발해서 얻은 음식만으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 구족계를 포기하고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삼계교와 신행 선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읽을 수 있다.

또한 성리학이 성행하기 이전 동아시아에서 이상적인 군주는 유교적 이상군주인 요순(堯舜)이나 주 문왕이 아니라 불교적 이상군주인 아쇼카 왕이었으며, 여러 황제와 왕들이 아쇼카 왕의 전범(典範)을 따랐던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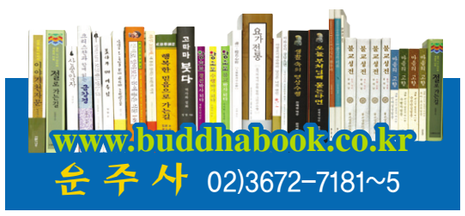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 석길암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2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5	선의 나침반	현각	김영사
6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일아	민족사
7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천진/현현	불광출판사
8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정토
9	불타 석가모니	법정	문학의 숲
10	경허선사 일대기	현담	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죽음의 길목에서 부처님이라면…

불교식 병상 · 임종의례 총정리 '낡은 옷을 갈아입고'



불자로 신심이 깊던 유명한 코미디언 故 이주일씨는 임종 시 개종을 했다. 일부 스님들조차 타종교 병원에서 임종을 맞을 때 주위로부터 개종을 종용받기도 한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평소 번뇌 없던 불자도 임종을 맞이할 때는 불교식으로 할지, 기독교식으로 할지 한참 갈등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개종을 결심하는 이도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절에서는 아무도 와주는 이가 없는데 비해, 환자를 자기 부모처럼 여기며 돌봐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이기 때문이란다.

불교도였던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열렬히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타종교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데에는 불교계 임종간호 교육 양성 및 시설이 이웃종교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스님을 찾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많은데, 임종법문을 하기보다는 임종 후의 49재나 장례의식에 참여하는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갖는 일부 스님들의 문제도 있었을 테다. 거기에 임종을 맞이하는 이와 그들을 보살피는 이를 위한 불교 임종 준비의 체계적인 안내서가 부족했던 탓도 한몫했을 것이다.

조계종출판사와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정호)은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불교식 병상의례와 임종의례를 정리한 <낡은 옷을 갈아입고>를 펴냈다.

안내서에는 강동구 · 구미래 · 김일명 · 이재우 등 불교상제례문화연구위원이 집필위원으로 참가했으며 '불자로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떻게 병상 · 임종의례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답하고 있다.

책은 1~5장으로 △불교의 생사관 △임종 준비 △병상의례 △임종의례 △임종 이후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불교의례서가 한문으로 구성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반면 <낡은 옷을 갈아입고>는 의례를 한글화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방법을 소개해 조건과 시간에 따라 신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책은 크게 병상의례와 임종의례로 구분했다. 특히 죽음이 선고 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병상의례에서 불자가 따라야할 방법도 상세히 설명됐다.

책에는 임종을 맞이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지침과 함께 병상의례와 임종의례의 식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환자와 가족들의 심경변화에 대한 조언까지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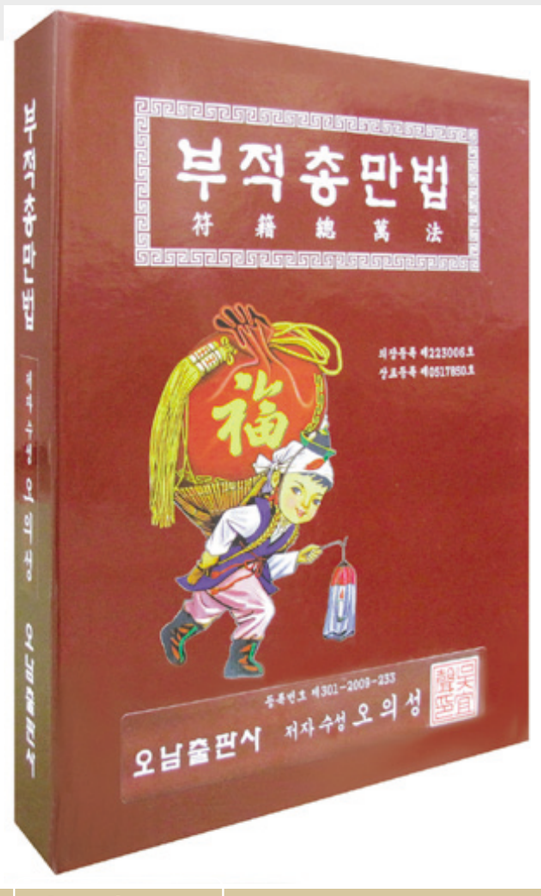
또한 의례를 하는 동안 독송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보문품><보왕삼매론><법성게><무상계>등의 경전들을 실었으며, 부록에는 관련 불교 · 봉사 단체의 연락처까지 함께 실었다.

정호 스님은 "병상에 누워 죽음의 길목에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거나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 책을 통해 건강한 생사관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이별을 통해 또 다른 뜻깊은 만남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낡은 옷을 갈아입고 |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편찬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원

이나은 기자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著者 수성 오의성

정 가 :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농 협 : 356-0203-2318-53
국민은행 : 347802-04-216456

오남출판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7-1 / 전화 02)2233-2050, 010-3094-7774

입실지도 전통에서 스승 회고

종달 이희익 거사 입적 20주기… 제자 박영재 교수 엮어

최근 간화선의 대중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은 선문답과 지도점검의 체계 확립으로 이뤄지고 있다.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나 장애에 부딪쳤을 때 지도점검을 해주는 선지식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간화선을 전통 수행법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원장 스님들은 '문답과 점검'이 간화선 대중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혹자는 오늘날 간화선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문답과 점검'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매년 수많은 불자들이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 각 단체들을 찾지만 '문답과 점검'의 부재로 정작 간화선의 참 의미를 알고 이를 다지게 되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다.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도성찰나눔실천회(이하 선도회)는 간화선의 쇠퇴라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화선 수행을 4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재가 수행 단체다. 특히 선도회는 '입실(入室) 지도'라는 전통을 이어 눈길을 끈다. 입실지도는 제자가 스승과 일대일로 만나 끊임없이 수행력을 점검받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선도회 법회에서 초보자들은 수식관 등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기초수행부터 지도받지만, 구참자들은 무문 혜개 선사의 <무문관>(無門關) 제창을 시작으로 48칙(則)을 화두로 들며 체험한 경계를 박영재 교수에게 점검받는다.

이러한 전통은 1965년 선도회를 조직한 종달 이희익 거사의 가르침에서 나왔다. 선도회 1대 지도법사인 종달 이희익 거사는 현재 재가 수행이 있게 한 기반을 닦은 재가선사다.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니네>는 1990년 입적한 종달 이희익 거사의 20주기를 기리며 그 가르침을 담고 있다. 종달 이희익 거사는 세 스승에게 귀의하기(귀의삼사 歸依三師), 지속적으로 입실점검 받기(입실점검 入室點檢),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 부리기(좌일주칠 坐一走七)를 핵심 수행가풍으로 세웠다. 여기서 세 스승은 부처님과 공안집 무문혜개 선사, 그리고 종달 이희익 거사다.



책은 이러한 핵심 수행 가풍을 총 3부로 구성해 전한다. 1부에는 종달 이희익 거사의 일대기와 선도회의 성립과정, 선도회 간화선의 요체, 10년간 선도회 활동과 언론자료 등을 실었다. 2부에는 선도회 문하생들의 수행 수기, 3부는 종달 이희익 노사가 저술한 한국선에 관한 16권의 책에 대한 소개와 그 요지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박영재 교수는 종달 이희익 거사의 치열하고 섬세한 수행지도 열정을 '화장실 입실점검' 일화로 소개한다. 1983년 서울 화신백화점 근처 시민선방을 맡게 된 종달 이희익 거사가 입실점검 할 공간이 따로 없자,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 사람들을 공부점검한 일화다. 이 밖에 종달 이희익 거사는 입적하기 전 급격히 몸이 쇠약해 가는 가운데서도 누워서 까지 입실점검에 온 힘을 쏟았다.

"스승님이 몸을 가누시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해 가셨다. 병중이신데도 토요일 입실 받으시는 것만은 거르지 않으셨다. 불편한 몸을 겨우 가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느라 입실을 받으시는 모습은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스승님은 말씀하시기가 불편해지자 벽에 기대앉아 손가락 끝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주셨다. 우리는 스승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까지도 말씀없는 법문으로 새기면서 스승님의 임종을 맞았다."

거사의 열정은 문하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문하생인 조선대 김인경 교수는 30초에서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입실점검을 받기 위해 여러 해 매주 비행기를 타고 상경했다고 회고한다. 이러한 치열한 구도열은 문하생들이 오늘날 제주도에서도 입실하러 오는 등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선도회는 서울 목동, 정릉, 서강대, 인천, 대전, 광주 등 11개 지부 모임에서 200여 회원들이 정진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종달 이희익 거사가 남긴 모습은 재가불자들의 수행선풍 진작에 대한 거사의 큰 원력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니네 | 박영재 엮음 | 본북 펴냄 | 1만 6000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종달 이희익 거사는?



1905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종달 이희익 거사는 동경 일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종달 이희익 거사가 불교에 입문한 것은 귀국 후 잡지 <조선불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종달 이희익 거사는 조선불교재단의 상무이사였던 삼소(三笑) 나까무라 선생의 권유로 일본 임제종 남선승당(南禪僧堂) 소속의 화산(華山) 노사 문하에 입문하게 된다. 종달(宗達)이란 법명을 받은 거사는 화산 노사 문하에서 8년 동안 조석(朝夕)으로 입실하며 참선 수행했다. 이후 남선승당에서 일본 임제종 최대파인 묘심사파(妙心寺派)의 '한국개교사(韓國開敎師)'는 사령장을 받았지만 9년간 수행을 계속한다.

한국 불교계가 일본 임제종 선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사는 재가자로 문서포교에 뛰어들었다. 거사는 <대한불교>(현 불교신문) 창간, 선전문지 <법시> <선문화> 등 발간을 통해 불교언론 저변확대에 나섰다.

불교잡지를 발행하며 재가자들을 직접 지도하던 거사는 어느 날 이창훈이란 청년이 좌선을 지도해 달라고 찾아오며 원력을 세운다. 1963년 조계종 종정 효봉 스님에게 '조계종 포교사'로 임명받은 거사는 조계사 법당 등에서 재가자 참선지도를 시작했다. 지도 받는 이들이 늘자 거사는 1965년 선도회를 조직해 재가선풍 확산에 앞장섰다.

악연으로 얽힌 실 풀어내니…

필립 그랭베르 서스펜스 기법으로 풀어낸 인연의 고리

'악연', 사람들에게 인연이 존재하는 한 악연도 역시 존재하리라. 누구나 선연과 악연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 아주 기분 좋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씁쓸함과 동시에 상처만을 안겨주는 인연 역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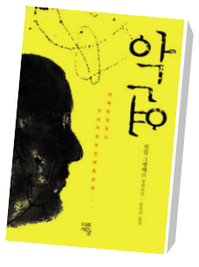
저자 필립 그랭베르는 정신분석가이자 소설가로서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치료해 온 그만의 경험을 불교적 색채로 <악연>에 녹여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책 속 두 남자 주인공의 악연은 정해진 일련의 파국으로 흘러가지만 이것이 과연 악연인지 선연인지 분간하기 조차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책은 '루'라는 남자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리고 줄곧 이 이야기의 주를 이루는 사람은 그의 샴쌍둥이와도 같은 친구 '만도'다. 두 사람은 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이다. 그것을 우정이라 하지만, 만도의 우정이 루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루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만도의 우정 앞에 몇 번의 배신과 시련을 안겨주게 된다. 결국엔 만도의 절교 선언을 받기에 이른다. 그러던 중 꽤 오랜 시간이 흘러 만도의 연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 만도가 정신착란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만도의 그런 정신착란이 자신으로 인해 깊게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루는 그러한 사실에 큰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그를 배신하지 않고 구해내겠다 다짐한다. 하지만, 결국 루가 택한 방법은 다시금 배신이라는 결말이었다. 이들의 천생연분과도 같았던 인연은 악연으로 끝맺는 듯하다.

하지만 이 책은 2005년 <비밀>로 프랑스 위조상 등을 수상하는 등 프랑스 평단의 호평을 받은 저자 특유의 서스펜스 기법이 녹아 극적인 반전으로 치닫는다.

인연, 인(因)과 연(緣)으로 불교에서는 인은 결과를 산출하는 주된 내재 원인, 연은 이를 발현시키는 간접적 계기라고 말한다. 루는 만도의 자살 이후 일기장을 보며 모든 결과가 자신과 환경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연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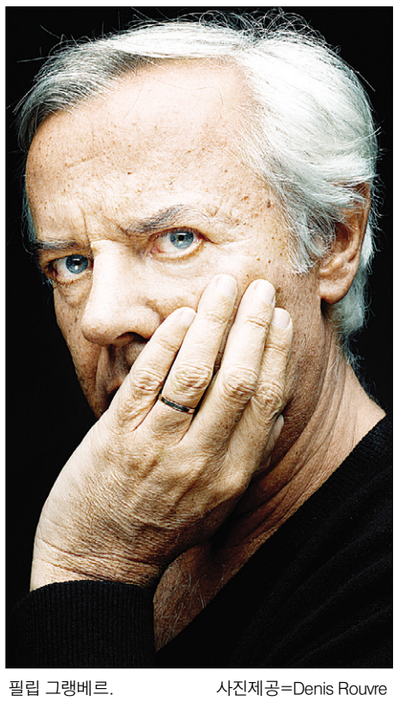
만도는 자살 이전 루에게 일기장을 통해 "내가 보는 걸 너도 보게 될거야, 보면 알거야, 네가 썼어도 아마 똑같았으리란 걸. 이 일기는 우리야"는 말을 남긴다.

"나는 마침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 뒀던 고무줄로 묶인 공책 꾸러미를 펼쳐 보기로 한다. 그 기록들은 나를 충격에 빠뜨린다. 나는 만도를 현실과 맞서게 해주는 사고의 부속물이고 그림자였다."

욕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삼키는 루의 독백은 악연 속에 또 다른 인연이 있음을 알리며 여운을 남긴다.

악연 | 필립 그랭베르 지음 | 홍은주 옮김 | 다른 세상 펴냄 | 1만원

노덕현 기자



필립 그랭베르. 사진제공=Denis Rouvre

■ 문화 소식통

전각·서예로 만난 만다라

김영옥 작가 '숭례의 문' 展



김영옥 작가의 숭례의문22. 짧은 붓터치들이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각(篆刻)과 서예를 통해 만다라를 그리는 새로운 기법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은 김영옥 작가의 세 번째 전시회가 열린다.

김영옥 작가는 6월 24일~30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벽원 갤러리에서 '숭례의 문'전을 연다. 이번에 전시되는 만다라 작품들은 돌에 새긴 크고 작은 전각을 종이에 도장으로 찍는 인장 기법 후, 붓으로 전통지 등에 순금 순은을 새로운 조형을 그린 회화 기법이 사용됐다.



김영옥 작가의 숭례의문1.

조형 기법을 살펴보면, 먼저 돌에 추상적인 단위 무늬를 새긴 다음 같은 도장으로 각도를 달리해 다시 좀 더 큰 단위무늬를 만들거나 병렬로 무늬 띠를 만든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조형으로 만들어낸다. 이어 질긴 종이를 선택, 엷은 먹물로 염색한 후 도장은 인주를 찍어 종이에 단계적으로 조형을 이루며 찍어나간다. 그 다음 붓으로 은색이나 금색으로 도장 무늬 위에 새로운 조형을 이뤄나간다. 기존 무늬의 연장선상에서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선들을 그으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형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번 작품들에 대해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대표는 "이번 전시는 전각이 부분적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붓의 터치가 지배적이다"며 "붓의 단선적인 터치에서 서예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짧은 터치들이 폭발적으로 확산하여 퍼져서 생명력으로 충만하다"고 평했다. (02)732-3777

노덕현 기자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100대 한정판매
大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中 1500×82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 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보고 일석삼조의 행복을...



JD152 – 25,000원



JD155 – 25,000원



JD169 – 25,000원



JD162 65,000원



JD121-1 (6.4mm) 68,200원

JD118 (10~10.5mm) 92,400원

구슬크기 : 16mm, 14mm, 12mm, 10mm, 8mm, 7mm, 6mm, 5mm, 3mm
(다양한 크기가 준비되었습니다.)

※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지역 대리판매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보장)
◆사찰내 판매점 환영합니다. (샘플 제공할 수 있음)

주얼드림 (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0-9490
011-441-9495
www.silverdew.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을 드날린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길잡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C789-202010.6.2111:16AM페이지1(1,1)

최연의 산 이야기 <15> 두륜산 1

삼재불입지지 두륜산이 불교 법통 지켜주었구나

〈三災不入之地〉



서산대사가 예언한 물(홍년), 불(역병), 바람(전란)의 세 가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 두륜산과 대둔사.

중국의 곤륜산(崑崙山)에서 동북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백두산(白頭山)에 이르러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높낮이를 달리하며 맥(脈)을 이어오다가 두륜산(頭輪山)에서 힘껏 솟구쳤다가 해남(海南)의 땅 끝 마을 바다 속으로 숨어들었다. 곤륜산과 백두산을 거쳐 온 산줄기가 마지막 옹골차게 솟았다고 백두산의 두(頭)와 곤륜산의 륜(崙)을 합하여 두륜산(頭崙山)이라 하였다. 두륜산의 연봉들이 바퀴처럼 둥글게 휘돌아 있다고 해서 '바퀴 륜(輪)'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산경표 山經表〉의 산줄기 개념에 의하면 백두대간(白頭大幹)은 백두산에서 지리산(智異山)까지를 말하는데, 백두산의 기맥(氣脈)이 지리산까지 흘러왔다는 의미로 지리산을 달리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두륜산은 백두대간의 끝자락이 아니고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호남정맥(湖南正脈)의 끝자락에 있는 산이다. 그런데 굳이 백두산의 기운을 받았다는 의미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 끝에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산이기에 그렇게 하였는 듯하다.

두륜산은 주봉인 가련봉(일명 관음봉이라고도 함)을 중심으로 고계봉, 두륜봉, 도솔봉, 연화봉, 혈망봉, 향로봉 등의 아홉 봉우리가 그야말로 병풍을 두른 듯 의연하게 동서남북 사방에 솟아 있고 각 봉우리에서는 각각의 산줄기가 내려와서 한곳에서 머리를 맞대는데, 그곳이 대둔사 터이고 산줄기 사이의 물줄기들은 한줄기로 모여 장춘계곡(長春溪谷)이 된다. 장춘계곡은 산골짜기를 휘돌아가며 장춘구곡(長春九曲)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든다. 이러한 형국(形局)을 풍수학에서는 구룡농주(九龍弄珠)의 땅이라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천추혈식(千秋血食), 즉 천년 동안 제사를 받는 현인(賢人)이 난다고 한다.

명당수가 한줄기가 되어 협곡 사이를 굽이굽이 휘돌아나가니 이곳은 서산대사가 예언한 물(홍년), 불(역병), 바람(전란)의 세 가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임에 틀림이 없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6년 뒤인 1604년 묘향산 원적암에서 입적하면서 자기의 의발(衣鉢)과 선조(宣祖)가 하사한 대선사 교지(大禪師敎旨)를 자기가 죽는 날로 대둔사에 보내라고 유언을 남겼다.

"두륜산은 기이한 꽃들이 철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며 먹을 것이 풍족하다. 내가 보기에 두륜산은 오래오래 좋은 일이 많을 곳이다. 북쪽에는 월출산(月出山)이 있어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되었고(天柱), 남쪽의 달마산(達磨山)은 튼튼한 지축(地軸)이다. 동쪽의 천관산(天冠山)과 서쪽의 선은산(仙隱山)이 또 우뚝 마주 솟았다. 바다와 산들이 호위하고 골짜기가 그윽하니 만세토록 훼손되지 않을 땅이다. … 종통(宗統)이 거기로 돌아가리라."

서산대사의 예언대로 두륜산은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았다. 임진왜란도 한국전쟁도 이곳을 비켜갔다. 또 서산대사의 유품을 모신 뒤 대둔사는 조선조 후기 쇠퇴한 불교를 중흥시킨 명찰(名刹)이 되어 13종사(宗師) 13강사(講師)로 불리는 고승대덕들이 머물며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그야말로 종통(宗統)이 대둔사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유언 중에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해남 땅은 왕화(王化)가 덜된 땅이라 왕화를 위해서"라는 부분인데 억불정책을 써온 조선시대에 불교가 왕화를 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특히 법통을 상징하는 의발과 함께 '대선사 교지'라는 관직의 사령장을 함께 보관하라는 것은 대선사로서 합당치 않은 유언이라 생각되지만, 필경에는 서산대사가 바라는 숨은 의도가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겠다. 늘 그렇듯이 전란이 끝나면 의병들은 본래의 상놈과 노비로 돌아가야 했다. 그 공로는 관군과 양반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승병도 마찬가지로 천민취급을 받는 승려로 돌아가야만 했다.

전란 후 파탄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관리들의 가렴주구는 혹심해지고 세금 또한 몇 배로 뛰어 오르니 참다못한 백성들은 민란을 일으키게 되고 승려들도 이들의 행렬에 동참하기에 이른다. 진주에서 일어난 승병들의 반란은 불교를 더욱더 탄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법통(의발)이 모셔져 있고 임금이 하사한 정2품에 해당되는 '대선사 교지'가 모셔져 있으니 지방수령이 대둔사에 와서 감히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 여섯 개 군의 군수가 봄, 가을로 와서 제사를 지낼 정도의 특별 예우를 받게 되었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다시 자유를 생각하다

느릅나무 아래 서 있으니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다. 하늘하늘 그네를 타며 내려온다.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으로 '휘이이' 날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땅을 향해 나아간다. 꽁무니에서 뽑아내는 실 한 가닥에 의지한 채, 자라난 나뭇가지를 떠나 땅으로 내리는 자의 모습이 여유롭기만 하다.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나는 벌레가 부러웠다.

크기로야 2-3cm에 풀줄기 마냥 가냘퍼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띄지도 않을 벌레다. 허여멀건한 색이어서 눈길을 확 끌지도 못한다. 눈앞에서 오가는 모습에 본능적인 경계심이 작동했다고나 할까? 아니면 막연한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나는 하늘거리며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가는 한 마리 벌레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갉아먹던 잎을 벗어나 아래로 아래로 흔들흔들, 몸을 흔드는 모든 것에 자신을 맡긴 상태로 벌레는 공간을 이동하고 있었다. 몸을 일직선으로 뻗은 채 여유로운 자태로 내리는 벌레의 모습엔 자유로움과 설레임과 두려움이 뒤섞여 어려 있었다. 내가 갈망해온 내 모습이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거대한 벽으로만 다가오던 날들로부터 나는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국가나 학교, 고용인의 눈치를 보며 마음 속 이야기를 마음대로 내뱉을 수도 없었던 시절로부터 나는 또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스스로 닫아건 마음을 열지 못해 자신을 털털 털어내는 글을 쓸 수 없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조차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인가? 결혼을 하고 아이도 얻었으니 깊이를 알 수 없던 외로움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된 것만은 분명하나 그것도 나를 송두리째 바꾸진 못했다.

사람살이가 다 운명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진 말자
저 작은 벌레가 누리는
크기만한 자유가
내게도 주어질지는,
여전히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언뜻 보면 보이지도 않는 줄을 타고 벌레 한 마리가 땅을 향해 나아간다. 어둠이 내린 뒤에 닿아도 괜찮다는 듯, 도중에 천적의 먹이가 된다손 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듯, 흐늘흐늘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늘의 비단줄을 타고 벌레가 내려간다.

하려고 하던 일이 생각나 나무 밑을 벗어나려 할 때까지도, 벌레는 훨훨 날기라도 하듯이 실 하나에 몸을 의지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 '땅에 닿으면 어디로 갈건가요?' 묻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여 입을 열지도 않았다. 벌레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세상은 흐를 곳으로 흘러간다. 다만 내가 선택한 삶이 즐겁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때마다 살펴보며 나아갈 일이다.

바람이 나뭇가지와 풀을 흔들며 불어와 나까지 흔들며 스쳐간다. 벌레는 바람을 타고 내 몸에서 멀찍이 물러났다가 '휘이' 원을 그리며 돌아왔다. 그 반동으로 다시 내게서 멀어지며 원을 그리는 벌레를 바라보다가, 끝내 땅에 내려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발길을 옮겼다.

그리 급할 게 무엇이냐고 내게 물으며, 좀 더 천천히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벌레의 소리가 등줄기에 내려앉는다. 세상이 진정 갈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바쁠 게 대체 무엇인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합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딛는 발걸음만큼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마음자락이나마 느긋하게 풀어놓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비록 미세하여 보이지 않을 지라도 절망할 이유는 없다. 사람살이가 다 운명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진 말자. 저 작은 벌레가 누리는 크기만한 자유가 내게도 주어질지는, 여전히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유가 운명에 속한 것이라면 운명은 자유에 속한 것이다.

■ 유승도 (시인)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각종의식
범음범패, 바라작법
010-2290-9270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동영상 기문둔갑
● 26강좌로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홍국한국기문둔갑, 평생의명, 육친, 신수, 일진의 길흉, 결혼날짜, 장사 잘되는 개업식날 잡는 법 등등 강의
● 그외에 사주원리, 용신, 일진내정법
● 명반법(낙화법), 육효, 파동성명학과 오운육기등의 과목을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좌입니다.
www.beumchun.com

당뇨 : 암, 속보
깊은 산 나무뿌리
40년 당뇨 각종 암.
정상수치 효과 없을 시
100% 환불
010-2414-4984

"임종기도" 최상
임종기도 해줄 분 없으면 저가 무주상 보시 하오니 임종시 다음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요. (향후 10년 이내로)
반야심경, 신묘장구대다라니 아미타불(염불)무상게, 법성게 전화로도 좋다는 계시받음.
울산에서 (정명) 권오상
052)271-9977
010-2810-6375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공양주 모십니다
(노보살 원함)
02)917-3363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한국선불교조계종
강원도 대덕사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9219-7695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님 자연의 치유법으로 건강하게 해드립니다.
▷5세 이하 남.녀 다섯분까지
금화산 관음사
031)533-0741
www.saam.asia

사무직원 모십니다
▷대전
010-5792-3000

사찰을 맡아
수행하실 스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
010-3793-1059

수행정진하실
예비 女행자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역
010-9409-5001
011-9762-3672

공양주 모십니다
▷경기도 성남
011-212-9810

男 처사님 모십니다
사찰에서 지내실 분.
위빠사나 수행 배우며
지내실 분. 정년 퇴직후
봉사하며 사실 분.
女 사무직원도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한 가족같이 함께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시흥, 60세미만
011-314-9848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도서지역)
법납 10년이상,
50세 미만 권속있는스님
및비구니스님
꼭필요한스님만 전화하세요
011-663-4893

공양주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가족처럼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울산
011-9660-4241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공양주 보살님, 사무장 모십니다
▷강화도
010-9021-8088

암자 지을 땅
시주하실 불자님
인연 만남
원성취 지대원
010-4182-1874 신묘

부처님과 함께
새 인생을
펼치세요.
남녀 행자 모집
▷달마선원 대현사
010-5279-8419

기도정진 할
인연있는 도량을
찾습니다.
▷50대 비구
010-8634-3113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침 술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본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최면), 신병, 용신의활용, 초간단명리(적중율90%)
제2강 : 오행과 침술, 따주기 비법, 내몸내가고친다.
제3강 : 정골요법, 일침요법, 각종처방(견비, 허리, 무릅, 중풍, 심장질환)
"침, 특수활용법 (한의학 박사 강의)
강 의 : 매주 화-수요일 10시-16시(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 야간 070)8861-3359 팩스 : 221-3358
핸드폰 : 스님 010-9027-3117
함께 나누는 세상을... - 좋은날 되소서 - 의암 합장

대 체 의 학 비 법 전 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 (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포교당 및 암자 구합
서울지역 및 근교,
보증금 1천만원 정도,
월세 100만원 미만,
승려가 직접 구합니다.
설치 안된 곳도 가능함.
011-716-3811

대한불교 법화 조계종 창종
본종은 본문 불교의
여설수행하는 단체로
부처님 진실만을 표방합니다.
종단불문. 종단등록을 원하는
사찰, 사암, 스님 연락주세요.
010-7176-2177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정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체험자 모집
● 대상 : 15일 수행관 생활이 가능하신 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회주 우학스님의 법문 및 강의, 교육비, 숙식비 전액 무료제공
●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수행관
●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상시 지원 가능! 언제든지 상담가능!
문의 :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도 요 타 홈 미 싱
법복수선 / 정신수양
● 모터 힘이 강력하여 [법복 수선]도 척척
● 생산적인 작업에 집중하여 [정신 수양]에 최적
● 각종 주머니, 손가방, 보조가방, 걸망을 원하는대로 손수 제작
● 추천모델: EC164(149천원), 무료 택배, 사찰 주문시 사은품

문의.02)2637-4172
홈페이지 www.toyotakr.com
도요타자동차 기술이 미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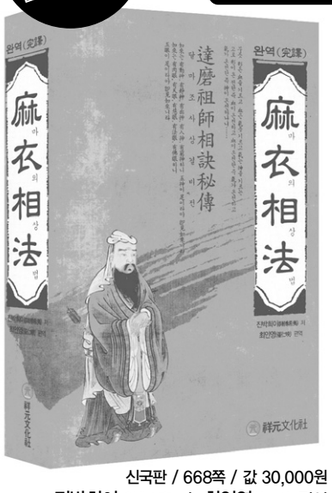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5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완역(完譯) 麻衣相法
마의상법
이 시대 최고의 관상서!
국내 최초 완역(完譯)!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무릇 形은 血을 기르고 血은 氣를 기르고 氣는 神을 기르는 고로 形이 온전한 즉 血이 온전하고 血이 온전한 즉 氣가 온전하고 氣가 온전한 즉 神이 온전하나니……
신국판 / 668쪽 / 값 30,000원
진박희이陣搏希夷 저 최인영催仁映 편역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의상법》 역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祥元 文化社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법당 : 45(실평)
- 요사:45평 ● 부지:46평
- 가액 : 20억
  산세수려한 고찰터에 자리잡은 사찰임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외 1동
- 부지 : 260평
- 가액 : 7억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 110평
- 건평 : 100평
- 가액 : 4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토굴 도량터

- 저희 대력불사는 스님 및 수행자를 위하여 전국의 좋은 수행처를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불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 원하시는 지역 · 원하시는 사찰 · 원하시는 토굴 · 원하시는 도량터 이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수행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대 가람터

- 총 평수 : 8만 6천평
- 4만여평 평지, 1만평 (약초재배)
- 위치: 진주, 단성 근처
- 산세 및 주변풍광 최고, 계곡물 철철
- 평당 1만원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16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가액 : 13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일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0평
- 법당 : 40평 (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80평 ● 산신각: 10평(목조, 단청)
- 기타: 석불(15자), 연못, 석등
- 가액: 5억 5천만원
- 특징 : 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대가람임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소재
- 부지 : 3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단청, 3포 7포)
- 요사 : 40평
- 산신각: 5평(목조, 단청)
- 가액 : 9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의 정통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최고의 명승 사찰 터

- 위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서울에서 2시간 거리)
- 평수 : 31,500평(임야20,600평, 전10,900평)/ 3억2천만원(평당10,000원)
- 풍기 IC에서 7분거리로 조망권이 우수하고 계곡이 본 부지앞으로 흐르고 있음
- 토종 산림이 울창하며 임야 곳곳에 샘이 있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약수가 솟아남
- 테라피한방공원조성지 주변에 위치하며, 경치가 우수하며 최적의 등산로 코스
- 봉현 한천은 예로부터 물이 차고 깨끗하며 명명되어 온 지역이며, 본 부지 터는 예로부터 명승 사찰로부지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토지임.
- 소백산 비로봉, 옥녀봉 등 등산로 입구까지 10 ~ 20분 소요
- 풍기온천까지 10분 소요
- 용도 : 사찰부지, 휴양지, 펜션, 수련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010-2037-728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487-36번지
- 평수 : 50평. 반지하
- 위치 아주 좋음. 시장 인접
- 삼존불, 산신님, 독송님 원만히 다 갖춰져 있음
- 포교하기 적합
- 보증금 500만원, 월 27만원 시설비 1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040-358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500만원(DC 無)

010-4199-004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만동
- 4층 상가건물 ● 동불 삼불
- 4층 요사, 3층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51)638-1134
070-8842-610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구포시장 내
- 평수: 54평, 2층건물 중 2층
- 1층 허가된 주차장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주차장 사용비 35만 포함)
- 주차장 완비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1)364-4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천구 신정 4동
-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 대지: 80평,●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멘트 2층 사찰
- 법당 30평, 2층 요사 40평 1층 지하 15평
- 주차장 완비, 실외화장실 2
- 시가 평당 1700만원
- 가액 : 13억

011-236-62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콘크리트 40평
- 종각 약 1평
- 대지 380평(기타부지 500평)
- 가액: 4억

010-3112-3513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지 66평
- 사용평수 100평 이상
- 건물 1층 36평, 2층 법당 20평
- 법당 뒤 대나무밭 채소밭
- 주차가능
- 가액: 3억 2천만원

주인직 010-3133-001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황영산 자락
- 대지 130평 .법당, 주지실, 대중방
- 공양간, 산신각, 기타 시설 일체
- 전세 5000만원(시설비 포함)
-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1-871-15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포교원안내

- 위치: 경산시내 대도로변에있음
- 상가건물내에 법당주불은 관세음보살. 산신. 칠성탱화
- 방1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시설비4백만원. 보증금 3백만원 월세 이십오만원(250.000원)

010-3780-6183

사찰 터 안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원주역 도보 10분거리
- 5일풍물시장중심
- 건물 81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법당1, 법당사용가능한 거실1, 방3, 화장실 2
- 노천 대형 주차장 완비
- 스님 건강 증진. 포행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지방 불사 관계로 급 양도
-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010-7191-26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5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0-5427-644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당리동
- 3층건물 중 3층
- 법당 1, 상담실1, 주방겸 큰방1
- 4층 옥탑방1,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지리산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4784-550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 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안락 1동 안락로터리 서원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앞
- 평수 : 50평
- 법당1, 방3, 주방1, 화장실2
- 삼존불,후불탱화,약사후불,신중탱화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8213-010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 건물 약 50평
- 땅은 종중땅
- 건물 등기 有
- 가액: 3천만원

010-8852-1479 법정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 대지: 350㎡, 건평: 60평
- 구조: 법당 1, 거실 1, 방 3, 공양간 1, 창고 1
- 주변여건: 앞에는 큰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뒤에는 낮은산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수행도량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 대지 290평, 전 910평
- 건평 23평(조립식)
- 천장산 옛 사찰터
- 교통양호. 마을 제일 위쪽
- 가액: 9천만원

010-3518-3958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연기군 세종도시근접지역
- 전통사찰 삼존불 기도도량
- 미륵불 및 주차장 완비
- 요사채 방3, 주방, 거실, 심야전기
- 창고에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전세가능)
- 자세한 사항은 상담 후 결정

010-5498-65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2층 30평 ● 소불 100분 인등 270등, 각단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 주택가 횡단보도 신호등사거리 1층은 불교용품점 온천천 공원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010-2446-26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최중심 (지하철역)
- 평수: 단독 3층 (1층 52평, 2층 30평, 3층 35평)
- 지하 및 옥외 주차장 약 50평
- 종무소 법당 등 최고시설 완벽
- 가액: 보증금 2500만원에 월 85만원
- 시설비 별도
- 문의, 내방시 상세안내

010-6780-6271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2분)
- 평수 약 42평 (3층중 2층)
- 법당 약 20평
- 방 2개, 주방겸 거실
- 포교활동 최적지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010-4626-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부근
- 법당 1, 방2, 산신각, 공양실 28평
- 스님 몸만 오시면 됨
- 모든 시설 완벽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35만원

010-4934-5520

동해바다 사찰터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 대지: 540평(평당 100만원 조정)
- 시내중심가 2km 인 산자락
- 연못 2개소, 홍련, 백련 2년생
- 앞-시내, 바다 뒤-산자락
- 야생화 자연스런 조경 전망 및 야경 좋음

010-4544-0815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사찰안내

- 비구니 스님, 보살님, 불자님께
- 전주 중심, 대지 67평
- 건평 35평, 큰방 2개, 작은방 2, 화장실 2
- 집안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1억 4천 3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의령 자굴산 토종오가피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181-3
- 농장 인수 하실분, 건물 100평
- 공장 특허, 늘푸른 식품
- 산 좋고 경치 좋은 곳, 공장 1동 집포함
- 시설완벽, 교환가능 ● 대지 1만 1천평
- 가액: 11억 7천만원

010-8791-5655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 재래시장 부근
- 평수: 54평, 4층건물 중 3층
- 법당 약 25평, 방 4칸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관리비 無)
- 시설 및 집기 일체 상담 후 결정
- 장소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055)372-3315/010-2553-88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동
- 평수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원목단, 동불 삼존불, 방 2 . 공양간 1, 시설완벽, 에어컨 2
-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6백만원

010-8268-9880 / 010-5361-52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역세권)
- 3층건물중 3층 45평
- 방2, 상담실1, 주방, 화장실 옥상전체사용, 음향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607-0108

사찰. 펜션. 암자 가능 지역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방정리 부근
- 임야 : 8,000평. 대지 760평 中 大 370평 (田 100평, 임야 200평)
- 1,2층 펜션 9동 중 독채형 4동 식당1동
- 주차장 완비, 약수터 포함
- 가액: 6억 (융자 1억)
- 인터넷에 '시골풍경펜션' 클릭

010-4377-3387
018-376-3387

절터안내(대지)

- 위치 : 경주시 내남면 명계1리 경주시내에서 20분거리, 울산에서 30분거리
- 경주의 최고의 대 명당, 대 길지
- 마음대로 건축가능, 대지 267평 큰채, 아래채, 창고, 헛간 있음
- 투자가치 최고 " 확실" ● 주변 대나무밭
- 사찰용도 평당 50만원 보시

010-3322-0108

명 당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 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8억 5천만원, 평당 30만원(전체가 한송이 명당)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

010-732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53-8
- 대지 107평 ● 건평 총건평 약 190평(텃밭 있음, 채소, 과일나무)
- 지하 20평, 1층 70평,
- 2층 60평 법당, 거실, 방2, 주방거실, 화장실2
- 3층 32평 미륵전 방4, 창고 2
- 포교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㉓ 다리 길이2

한쪽 다리가 짧아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다리 길이가 다릅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 느끼지만 3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체의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체형의 변형 매커니즘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의 다리 중 한 개만 톱으로 3cm 가량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짧아진 다리의 방향으로 의자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심하면 의자는 결국 쓰러집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이처럼 한쪽 다리가 짧아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인체에서 한쪽 다리가 짧아지게 되면 앞서 예를 든 의자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짧아진 다리 쪽으로 체중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짧아진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상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몸은 오히려 긴 다리 방향으로 지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체의 무의식 신경계의 보완 작용이라 할 수 있는 보상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체의 한쪽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곳에서 이를 보완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즉, 한쪽 다리가 짧아지게 되면 짧아진 다리 쪽으로 체중이 무너지고, 신체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긴 다리의 방향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면서 긴 다리 방향의 하체 근육과 골격의 긴장과 비대칭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짧은 다리의 근육과 체형은 약해지면서 변형됩니다. 이는 근육이 약해지고 전신의 비대칭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골반이 뒤로 비틀어지고 쳐지게 됩니다. 또한 엉덩이의 퍼짐과 늘어짐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 짧은 다리 방향으로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이 밖에도 짧은 다리 방향의 발은 약해지고 퇴행된 근육의 영향으로 바깥쪽으로 비틀어지며 대부분 팔자걸음과 같은 발목의 비틀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리 길이 차이는 근육기능의 저하를 가져와 근육이 처지고 약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체중의 하중을 지탱해 긴 다리 방향의 전신 근육은 긴장되고 경직돼 나타나며, 그로인한 근육의 뭉침, 경직, 척추의 휘어짐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발은 안쪽으로 향하거나 비틀리며 한쪽의 긴 다리 영향으로 골반은 한쪽만 높아져 골반불균형을 일으킵니다.

허리 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짧은 다리 교정 관리입니다. 한번 시작된 다리 길이 차이는 생활습관에 의해 골반이 비틀리고 허리가 비뚤어집니다. 따라서 다리 길이의 비대칭은 허리에도 문제를 야기합니다. 허리 교정 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다리 길이 차이를 교정하면 허리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허리가 많이 불편하다며 허리 교정을 위해 필자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허리 결림 현상이 나중에는 1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 분은 골반불균형과 다리 길이 비대칭 검사 결과, 측다리가 2cm가량 짧아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척추의 휘어짐으로 인해 외관상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구부정한 체형이었습니다. 필자는 이 분께 좌우 비대칭 상태의 근육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부위별 맞춤 체형교정운동을 안내하고, 그러한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체형 교정관리를 시행했습니다.

체형교정운동과 관리를 6개월을 지속한 결과, 강해진 복근과 엉덩이 근육으로 인해 오랜 기간 운전을 해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완쾌됐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자가 맞춤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조금 짧아진 다리 길이는 이처럼 전신 체형에 많은 이상을 가져옵니다. 항상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꾸준한 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로 건강관리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해 한쪽발만 안쪽으로 향하는 현상.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⓫ 여름철 건강관리2

낮잠도 보약이다

나폴레옹은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순간순간의 짧은 수면 때문이다. 수면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면방법이 중요하다. 잠을 설치면서 10시간을 자는 것보다 방해받지 않고 6시간을 자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적게 자더라도 순간 수면으로 보충한 것이 최상의 수면 방법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올바른 수면자세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워서 잘 때에는 몸을 옆으로 하고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좋고, 깨어서는 바로 누워 사지를 쭉 뻗으면 정신이 흩어지지 않아 좋다. 대개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은 가위눌리는 상태를 유발하기 쉽다. 공자님께서도 죽은 사람처럼 반듯이 누워 자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함이다.'

다리를 뻗고 바로 누워 자면 허리나 등이 긴장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는 온몸의 긴장을 풀어서 몸도 마음도 이완된 상태에서 잠을 자야한다는 말이다. 긴장된 상태에서 취하는 수면은 가위눌림이나 꿈에 시달리기 쉽다. 활처럼 휘어있는 생리만곡(生理灣曲)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그리고 뒤척이면서 자는 잠이 충분한 휴식을 얻게 한다. 아울러 잠들기 전의 목욕이나 명상 또는 단순한 리듬의 음악 등으로 정신적인 긴장을 푸는 것이 최적의 수면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바른 수면자세와 더불어 가벼운 낮잠은 낮 시간이 길어지는 여름건강에 필수적이다. 더운 지방에서는 몸과 두뇌의 휴식을 위해 낮잠시간이 제도화 돼있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무기력,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정서불안에 가벼운 낮잠은 필수이다.

인간의 뇌는 오후 1~5시까지 일정시간의 낮잠을 요구한다.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정신노동자의 경우 뇌의 중간휴식은 필수적이다. 사무자동화에 따라 컴퓨터의 사용이 많아져 눈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은 요즘 눈의 휴식을 위해서라도 낮잠은 꼭 필요하다. 눈의 피로는 중추신경의 피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낮잠은 비교적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오후 근무에 임할 수 있게 하고 매사에 자신을 갖게 함과 동시에 의욕을 솟게한다. 오후 시간의 근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단 10분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낮잠도 오래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필요이상의 낮잠, 또는 20분이 넘는 낮잠은 오히려 머리를 무겁게 하고 피로감을 늘려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

휴식을 위한 낮잠은 꼭 잠이 들지 않아도 된다. 눈을 감고 편한 자세로 기대어 다리를 조금 높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도 낮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낮잠 잘 시간의 여유가 없을 경우, 눈을 감고 1분 이상 긴장을 풀고 명상을 해보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숨을 들이 키고 내쉬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고 가장 행복했던 장면이나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린 다음, 그 상태에 의식적으로 몰입하며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 평화와 행복의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몇 마디의 암시를 깃들이면 더욱 좋다. 시간이 허락 하는대로 그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서서히 깨어난다. 1주일 이상 계속하면 그 장면만 생각해도 온몸에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수험생들에게는 적극 권하는 방법이다.

바쁜 사람이라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금씩 조는 것도 좋다. 연습을 하면 생각한 시간만큼 짧게 졸고 깨어날 수 있다. 졸음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졸면서 가득 찬 머리를 비우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 짧게 그리고 자주 취하는 낮잠이나 졸음은 때로는 보약이상의 효과를 준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㉓ 당랑권3

독특한 기술들로 호응 얻어

당랑권은 1900년대에 들어서야 그 기술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랑권의 발상지인 산둥성(山東省)에서 조차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극권이나 팔괘장같은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본 · 출판물들을 다양한 계층에 보급한 반면 당랑권은 그러한 노력이 뒤쳐졌기 때문입니다.

당랑권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1910년 상해에 정무 체조 학교가 설립되면서 부터입니다. 당시 설립자인 곽원갑에게 초대된 칠성 · 매화 당랑권의 달인인 나광옥(羅光玉)이 당랑권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당랑권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당랑권 만의 독특한 기술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지금의 소림권과 같이 중국 무술의 대표 무술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독특한 기술들이란 첫째, 상대의 사각(死角)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 전법으로 상대에게 공격의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후좌우로 이동함으로서 상대의 겨냥을 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는 이동할 때 손기술을 함께 구사하면서 사각(허점)을 찔러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공격을 가합니다. 이 전법은 상대로서는 대처하기 힘든 전법입니다. 당랑권에서는 상대의 틈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누보(漏補)'라고 부릅니다.



칠성 당랑권.

셋째로 최초의 기술이 통하지 않았거나 피해진 경우 바로 다음 기술을 구사하는 것을 가리켜 '탁해(省解)'라고 말하는데, 이는 당랑권이 쾌속의 권법이라 불리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당랑권의 이 같은 특징은 개조인 왕랑이 북파 18문파를 철저히 연구한 결과입니다. 무자수행을 계속했던 왕랑은 수많은 사투 속에서 다양한 문파가 숨겨 놓은 기술을 간파해 자신의 전법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흔히 말하는 종합 무술인들은 다 실력이 최상이어야 하고, 이들의 상대는 없는 것일까요? 현실로 볼 때 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겨루기 대회에서도 단수가 높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랑권이 여러 문파의 장점을 따 왔다 하더라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기술만도 못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무술은 'OO권이다'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무술이나 공부나 사회생활이나 어느 방면에서도 한 우물만 꾸준히 판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소화할 능력이 된다면 전자보다 뛰어 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하튼 정무 체조 학교는 후에 중앙 정무 체육회로 이름을 바꿔 홍콩, 광주, 하문 등의 중국 남부 각지에까지 지부를 설립해 당랑권을 동남아시아 주변에 전파했습니다. 1948년에는 중국에 정변이 일어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당랑권사들이 대만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당랑권은 대만에서도 지위를 확립해 현재까지도 대만 무술계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근대 광동주에서는 주가(周家) 당랑권이라는 권법의 존재가 확인됐으나 산둥성을 발상지로 하는 당랑권들과는 원류 · 기술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불자정보

789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 평수 : 30평
- 방3, 법당
- 월45만원
- 보증금+시설비 900만원

043)532-3271
010-3240-3272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평동 4리
- 경주 남산
- 경관좋은 암자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375-274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구미시 근접
- 임법당, 연꽃연못, 옆산, 텃밭
- 총 320평
- 임대 보증금 30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1억

017-813-91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용인시 기흥구
- 한국민속촌 부근
- 보증금 6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010-8766-20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위치좋음)
- 좋은 탱화 3점, 삼존불
- 평수 30평, 방3칸
- 2층
- 전화 후 상담

010-9401-6250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학교 부근
- 평수 : 218평
- 시설: 법당 2동, 요사채 2동, 불탑 3동
- 가액: 2천 5천만원
- 원주시청에서 7분거리로 원주시내권이며 경관 수려함
- 2차선 도로접

011-9918-19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송도동
- 평수 : 법당 50평, 3층 살림집 50평
- 전세 1,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54)283-3009
010-2428-3663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제물포역 앞
- 5층에 4층 , 뒤는 공원
- 평수 : 총 33평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약간
- 몸만 오시면 됨

017-211-4908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위치
- 법당, 산신, 용왕
- 공양간 아주 큼, 교통편리
- 주차장 넓음
- 가액은 상담 후 조절

011-595-1522
052)295-3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점촌 시내
- 대지 128평
- 요사채 콘크리트 30평
- 법당. 목조 3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1-538-98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시설비 전세포함 5,000만원 월 70만원
- 평수: 50평, 법당, 방2, 주방1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6238-0180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대출수수료,꺽기등이 일체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고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 지 역 ☞ 전 국
- 형 식 ☞ 담보대출
- 금 액 ☞ 3천만 이상
- 금 리 ☞ 연7.2%~7.6%
-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다구를 찾아서 ⑱ 라쿠다완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다완

일본의 다성(茶聖)으로 추앙받는 센리큐(千利休, 1522~1591)는 사카이 이마이치에서 태어났다. 아명은 요시로(與四朗), 법명은 소에키(宗易)이며 64세 되던 1585년에 궁중으로부터 '리큐거사' 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그는 생애를 통해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에게 배운 소박하고 차분함을 중시하는 와비차를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세 명의 증손자는 다도의 지도자 가문 즉, 이에모토(家元)를 이뤄 현재 일본다도 유파(流派)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16세기의 사카이는 무역항으로 무기,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조총을 취급하는 주요 상인이 모인 부유한 상업도시였다. 이런 까닭으로 사카이는 막부의 보호아래 전시(戰時)중이라도 도심에서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만큼 안전한 도시였다. 막대한 부(富)와 안정된 사회는 이름난 다인(茶人)을 배출하고 명물 다구(茶具)가 사카이로 모이게 한 배경이었다.

리큐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에게 발탁돼 자토(茶頭-다도전문가)로써 차를 가르치고 차회(茶會)를 담당했다. 1582년 혼노지의 변(本能寺の變)으로 노부나가가 갑자기 죽자 이번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에게 발탁된다. 다도가 절대 권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도구로 인정받던 사회적 풍조 때문에 리큐는 히데요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게다가 히데요시는 노부나가보다 명물 다구 수집에 더욱 열심이었고 수집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차회를 자주 열었다. 이 시기에 히데요시는 권력 과시용으로 황금다실을 만들어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전시하기도 했다. 황금다실은 조립식으로 운반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실전(失傳)돼 현재에는 복제품이 MOA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리큐가 완성한 다도는 다실(茶室), 다구(茶具), 행다법(行茶法), 미의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다완(茶碗)의 이상적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조선이나 중국에서 수입된 다완을 선택하는 특별한 안목을 바탕으로 일본의 장인으로 하여금 다완을 제작하게 했다. 이는 곧 라쿠 조지로(樂長次郎)와의 협력으로 만든 라쿠다완(樂茶碗)으로 나타난다. 라쿠 조지로의 경력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574년에 만들어진 기와에 '樂長次郎之'라고 새겨져 있는 것이 남아 있으며, 이 기와의 태토(胎土)나 유약의 성질이 조지로의 다완과 매우 흡사하다. 이로 미뤄 투박한 기와의 흙이나 유약의 분위기가 리큐가 완성한 와비차의 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양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쿠다완의 첫 번째 특징은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으로 다완 바닥의 굽(高臺)까지 전체적으로 유약을 바르는 것을 꼽는다. 두 번째는 대부분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완의 색도 적색과 흑색 두 가지 뿐이다. 세 번째는 매우 정적인 형태와 두텁게 바른 유약이다. 그리고 손으로 하나씩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큐는 라쿠다완을 통해서 와비차의 미의식을 표현하려 했다. 또한 이는 일본에서 다구로 만든 최초의 다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586년에 '소에키카타(宗易形)'라고 표기된 다완이 차회기록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마야키다완(今燒茶碗-최근에 만든 다완)'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보면 리큐의 지도에 따라 만든 새로운 형태의 다완이 주목받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다완은 조지로가 만든 원통형 모양에 윗부분을 안쪽으로 감싸 넣고 검은 유약을 충분히 바른 검정색 다완 즉 구로라쿠다완(黑樂茶碗)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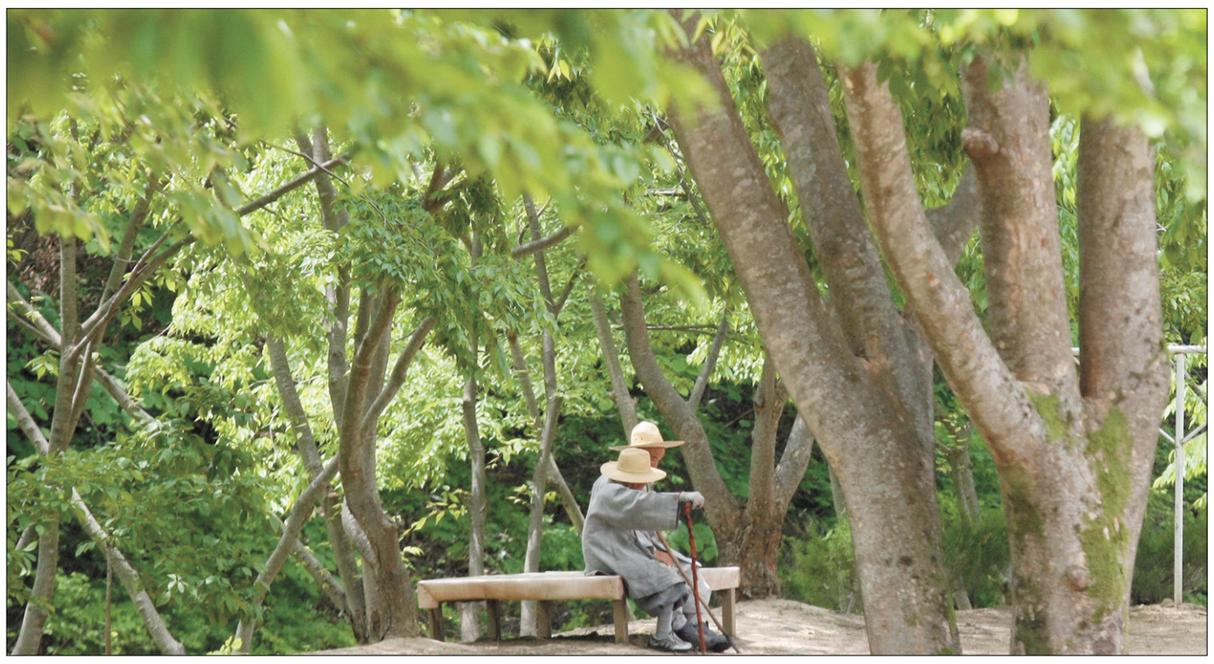
이 구로라쿠다완은 16세기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에 조지로가 만든 것으로 이름은 '슌칸(俊寬)'이다. 키카이 시마(鬼界ヶ島)에 유배돼 홀로 남겨진 슌칸 소즈(俊寬僧都)에 비유해 리큐가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보호받고 있다.



로라쿠다완(黑樂茶碗).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조지로작(長次郎作). 일본 삼정문고별관(三井文庫別館) 소장. 높이 7.9cm 구경 11.3cm 고대지름 4.8cm.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㊴ 봉암사에서



그 때, 간절히 부처님처럼 살고 싶은 스님들이 있었다. 그래서 스님들은 함께 모여 원을 세웠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고.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이 머리를 깎고 법명을 받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 하안거 하루 전 날 문경 봉암사를 찾았다. 봉암사는 도량에 들어서는 순간, 아니 일주문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산문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다. 나무 한 그루도 부처님 법대로 서 있는 듯하고, 새들도 그냥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멀리 희양산에 하얀 뭉게구름도 그렇게 걸려 있었다.

길을 걷던 스님 두 분이 평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햇살은 밀짚모자 위에 그렇게 떨어지고, 바람은 그렇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도 급고독원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경을 설한 장소인 급고독원(給孤獨園, 기원정사)의 전각을 묘사한 것이다. 전각은 화면의 오른쪽에 이층 누각 모습으로 서있는데 내부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빛과 향기가 펴져 나오고 있으며 전각은 구름에 쌓여 장엄된 모습으로 판각돼 있다.

불경 중에는 경의 내용을 압축해 이미지를 변화시킨 변상도를 권수도에 표현하거나 삽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경을 읽는 신자들의 이해를 도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인간이 유한적인 생로병사의 세계를 벗어나 영원의 세계인 극락세계에 가고자하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불자들이 막연히 극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 돼있는 극락세계의 삽화를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미지를 통한 현대 포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스물다섯 장면의 그림으로 판각돼 있는 <아미타경>의 삽화를 활용해 극락으로의 여행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아미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을 이루는 정토사상의 근본 경전이다. <무량수경>과 범명(梵名)으로 동일해 <무량수경>을 대경으로 <아미타경>을 소경이라 부른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주제하는 부처님이며, 무한한 수명과 광명의 덕상을 지니고 있어, 중생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미타불의 명호를 진실 되게 염불하면 아미타부처님이 보내주신 반야용선에 올라 극락왕생한다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한역은 서기 402년경 요진의 구마라집에 의해 이뤄졌다. 조선시대에는 <아미타경>이 정토경 중에 가장 많이 판각됐으며, 판본의 형식은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삽화로 변화시킨 변상을 글 위에 배치시키는 상도하문식으로 만들어진 판본이 가장 많다. 또한 변상도를 경전의 맨 앞에 배치하는 권수형식도 있다.

상도하문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판본으로는 충주 덕주사판본(1572년), 해남 금강사본(1575년), 담양 용천사본(1577년), 순천 송강사본(1648년)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용천사본을 제외하고는 덕주사본을 복각한 판본이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는 충주 덕주사판본(1572년), 담양 용천사본(1577년), 순천 송강사본(1648년), 삼각산 내원암판본(1853년)이 있으며, 충주 덕주사판본(1572년), 담양 용천사본(1577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152 · 153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도 급고독원도(給孤獨園圖).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젊은 날의 깨달음
하버드에서의 출가 그 후 10년
급상승 베스트 셀러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신규진입 2위
알라딘 종교분야 베스트 3위
영풍문고 오늘의 도서 선정
KBS 1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주인공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교수가 묻다.
"하버드 나오면 뭐가 좋은데?"
독립 전문서평단의 뜨거운 찬사!!!
천편일률적일 수도 있는 구도자의 책들에 색다른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책이다. [알라딘 : 러브캣 ★★★★★]
정말 생각지도 못한 멋진 책이다. 하버드에 가기 위한 열공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알찬 얘기들로 가득차 있어서 오랜만에 마음 따뜻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인터파크 : 너머나사랑으로 ★★★★★]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읽고도 또 읽고싶은,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곱씹게 되는 책을 읽었다. [인터넷 교보문고 : quartz55 ★★★★★]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케 하며 앞으로의 나를 이끌 힘이 되어주는 디딤돌 역할과도 같은 그런 글들이었다. [예스24 : parkah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전화_02-2198-5151 정가 12,000원 저자 혜민 스님
*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혜민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9호 현대불교
2010년 6월 23일(음 5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과감히 뛰어넘을 줄 아는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그 세월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해도 되고 오래 됐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월 아닌 세월이 이렇게 가는 동안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똑같이 알 수도 없고, 또 똑같이 차원이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사회에 나가서든가 또는 가정에서라든가 자식을 기르는 데서라든가, 자기가 해 나가는 소임에 따라서 모든 걸 대치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또 세상도 좋아질 테고, 자손들도 대대손손이 좋아질 테고 여러 가지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공덕을 쌓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되자고만 빌러 다녀서는 안 됩니다. 잘되는 게 있어야 못되는 게 있고 못되는 게 있어야 잘되는 게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만 있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만 있어서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걸쳐 놓고 교차로를 넘나들면서 고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저 나는 절에 그냥 다닌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내가 섭섭하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생을 두고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마음 졸이고 모든 것을 버려서, 이렇게 고구마 같고, 난장이 같고, 또 하나도 보잘것없이 못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잘나게 태어날 수도 없고 못나게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못나게 태어난 것도 재주덩어리 아닐까요? 허허허….

그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하나요, 부처님 법도 하나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로 보면, 여기 여러분 수만 명이 다 깨친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며, 일법(一法)이며 바로, 차이 없는 도리인 둥근 원리입니다. 이런 고로 우리가 좀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또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싹은 열심히 뛰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 이러셨다고요. 그 말이 보통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럭하고 가시는데요, 여러분은 패기가 없어요. 과감히 뛰어넘을 줄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더 있다 죽으나 덜 있다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또 먼저 죽으나 죽는 것은 한 번, 똑같이 죽어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뛰어넘질 못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피안으로 넘어서는 그런 도리입니다. 한 생 한 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렇게 하면 어쩌나.' 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는 거, 결사적으로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가? 여러분이 각각 소임을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이면 교직, 회사면 회사, 장사면 장사 이렇게 죄 제가끔들 다 가지고 있는 소임에 따라서 내가 자꾸 터득을 하면 그게 개척이고, 그게 계발이고, 그게 바로 나를 내가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높은 자리를 뺏어서 올라갈 양으로 애쓸 필요 없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 나가셔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전을 말합니다. 마음의 발전이 되면 스스로 행도 발전하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천차만별의 소임이 다 발전한다면 그 뒤에 발전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덩달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나간다고 해 봅시다. 그 연구진들이 제가끔들 연구하고 토론을 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연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열 가지를 연구했다면 그 열 가지 연구한 걸로 인해서 이 세계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름이 종교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해야 미래에 모두 공덕이 될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공생(共生)이면서, 공체(共體)면서, 공심(共心)이면서, 공용(共用)이면서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한 번씩은 다 돼 봤다고 생각합니다. 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계단을 하나하나 딛고 올라오지, 그냥 밑에서 날아서 올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 첨단의 위치까지 다 그냥 한 발 한 발 딛고 넘어왔단 얘깁니다.

이렇게 한걸음씩 여기까지 올라온 고등 동물로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만이 진짜 사람으로서 일체 만물을 다 먹일 수가 있고 되남게 할 수 있는가? 이 소리가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가 되남더라.' 하는 소리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모두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는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똑같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똑같이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아주 옳은

☞26면으로 계속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6. 26(토) 오후 1시부터 ~ 6. 27(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진정코 자기를 버려서 자기 뿌리를 믿으세요

☞25면에서 계속

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실천이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길러도 그냥 우뚝 올라오는 게 있죠.

그렇듯이 자라지 않았든 자랐든, 또 더 자랐든, 더 자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지 않은 사람 때문에 더 자란 사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공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도리가 현재 우리 삶에 이렇게 닥쳐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돌아간다면, 나중에 얼마나 손해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무 종자면 무 종자, 즉 배추 종자면 배추 종자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종자! 그거를 불가(佛家)에서는 종성(種性)이라고도 하고 또 불성(佛性)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불성이 말입니다, 그 똑같은 불성에서 모습이 어떻게 모두 달라지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모습이 모두 달라야만이 모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살 수 없죠, 하나로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깨나,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뭔가, 오직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하면서 세월 아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풋이라도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특출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발전하지 못한 차원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모두 살게끔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모든 게 현실 그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이지 첨단을 넘어설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고, 현실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차원이 높아졌다고 해서 '나는 이만큼 높으니까' 하고 아만과 아상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떡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떡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떡을 만들어서 다 먹인다고 자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 눈물 날 일이요, 뼈가 아플 일입니다. 그 사람네들이 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 몸이 가루가 돼서 뿌려져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차원이 높아졌다고 '난 이만큼 높으니까' 하고 아만과 아상을 갖지 마십시오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한층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찰나찰나 드는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알면 뭐,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직 터득이 되질 않고 깨치질 못해서 모르시겠거든, 절박한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라도, 같이 하는 거를 믿고 해나가면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만사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 오늘부터는 서로 토론을 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곧장 부산으로 가는데, 주변 경치를 구경도 못하고 쭉 간다고 합시다. 그럼 쭉 갔다 그냥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죠, 급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길 주변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심어져 있는데, 누가 추수를 다 해 들여서 다 나눠 먹고 뭐, 어떻고 어떤 거를 다 손살피 알려면 우리가 서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해 주시오'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는 아직까지 자기 뿌리를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코 자기를 버려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 그런 게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도중에 '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절실히 체험을 하고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참선이니 좌선이니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가 부르려면 그저 닥치는 대로 잡수실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고프다고 날더러 자꾸 먹게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따로이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먹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를 순 없지만 급할 때는 언제나 내가 여러분과 하나로 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가 그릇된 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가서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더 빨리빨리 크시란 얘기죠. 그러니 이게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알고 보고 듣고, 자기가 현실에 이렇게 하고 나갈 때 그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것을 알고선 하루는 땅을 치고 울고, 하루는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답니다. "내 불성이 있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입니다. 내 불성이 이렇게 여여하게 하는 줄 몰랐다는 거죠. "내 불성이 여러 가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랴!" 하고 말입니다. "내 불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들어내고 내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떡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사람들을 다 먹인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떡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전에 달마 대사가 왜 얼굴에 털이 없느냐고 했죠? 그런데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이 없다는데,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삐죽하게 올라간다고 그래도 평등한 거니까요. 절대로 다른 생각 말고 대답해 보세요. 그냥 토론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남들은 뭐 거창하게 주장자를 들고 온통 야단법석을 하지만요. 아, 주장자들은 모두 가죽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왜 무겁게 바깥으로만 들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염주도 이 끝없는 진리를 표현한 거지, 업보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끝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업보도 짓고 이러는 거죠.

그걸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신도1(남): 털이 없는 것이 실체라고 볼 수 묵히,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것이 무슨 까닭에 그렇게 '묵묵히' 일까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아주.

신도2(남): 털이 있어도 실체요, 털이 없어도 실체입니다.

큰스님: 털이 있어도 실체요, 털이 없어도 실체입니다? 그러면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신도2(남): 털이 있어도 실체요, 털이 없어도 실체입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불자 세상보기

박재산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기획계장

6 · 15와 대북확성기

6월 15일은 6 · 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주년이 되던 날이었다. 6 · 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분단된 이래로 지속돼온 분열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자는 남북 정상들의 선언이었으며 민족의 약속이었다. 6 · 15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다.

금강산은 육로관광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쉽게 북녘 땅을 밟을 수 있게 돼 화해와 통일의 장이 됐고, 개성공단 조성은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장관급회담이 정례화돼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나갔고, 군사회담이 열리면서 군사적 긴장을 늦추기 위한 노력들이 시행됐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고, 서해직항로, 해운항로가 연결되면서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연결됐다.

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한 개성 영통사를 북측 불교계와 힘을 합쳐 복원해 냈고, 매해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합동법회를 봉행하는 등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불교의 동질성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 민족 정서대로라면 10주년을 맞는 이날은 남과 북, 정부와 민간을 떠나서 온 겨레가 축하하고 흥성거려야할 축제의 장이 돼야할 날이다. 10년 전 그 감격과 흥분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 · 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는 정부의 불허로 인해서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남과 북이 각각 분산해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6 · 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의 분산개최가 상징하듯 현재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민간차원의 교류와 지원마저도 정부 불허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다. 말 그대로 남북간에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천안함 사태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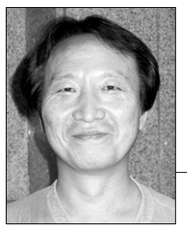
남북관계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6 · 15선언을 부정하고 지키지 않은 데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60여 년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시대로 전환시킨 것이 6 · 15선언이었지 않은가. 이를 부정하고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이전의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6 · 15선언의 정신은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상대가 온전히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상호관계는 유지되고 형성될 수 있다. 상대를 부정하고 적대하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으며 깨어지게 마련이다. 그 결과는 대결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반기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뤄볼 때 우리 정부의 대북심리전 확성기 설치는 심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남과 북은 지난 2003년 군장성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군사적 긴장을 늦추기 위한 일환으로 전방의 확성기를 제거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북을 비방하고 부정하는 방송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북은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하면 조준사격해 확성기를 격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를 지극히 자극하는 행위로써 상대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 않은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남측이 방송을 재개하고 북측이 조준사격하고, 또다시 남측이 대응사격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지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대북확성기를 제거해야 한다.

6 · 15선언 10주년을 맞는 지금, 우울하게도 전쟁을 걱정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남북교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걱정해야할 문제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임을 상기해야한다. 다시 6 · 15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과제이다.



사부대중 칼럼

김준영
불교인재원 사무국장

기도를 잘 하는 방법

"신에게 어떤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것 보다 당신이 신이 되어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류시화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의 한 구절이다. 당시에는 주의 깊게 읽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되어 글귀는 정확하지 않다. 의미만 적어 보았다. 이 말이 기도의 궁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면 원력이 자란다. 기도는 원력을 키우는 일이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그 시작은 공리적이기보다는 사사로운 주제와 원력이 대부분일 것이다. 소위 기복하는 기도요 구걸하는 기도이다. 시작이야 어찌됐건 기도는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킨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원력도 함께 자라고 성숙해진다.

또, 그 시작이 설사 대의와 공리를 위한 것이라 해도 기도는 현실적인 불만족 · 고통에서 출발한다. 나 자신의 고통이건 가까운 타인의 고통이건 기도의 출발점은 불만족과 고통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원력이 된다. 이러한 마음 작용이 바로 연민이다. 나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의 시작이다. 이 연민의 씨앗은 자비심의 토대가 된다.

자비심의 작용은 부처님 마음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은 내 속에 있는 부처님 마음과 만나는 시작이다. 내 작은 움직거림 하나하나가 보살의 행원임을 확인하고 깨닫는 시작이다.

기도하는 마음에서 작용하는 자비심은 모든 보살들이 세우는 원력의 어머니이다. 자비심은 고통과 번민을 녹이는 용광로이고 깜깜한 밤바다에서 발견되는 지혜의 북극성이다. 기도는 원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 원력의 궁극은 일체중생을 한명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보살의 서원과 하나가 된다. 지극한 기도는 중생제도를 위해 화현하는 모든 보살의 마음이 되게 한다. 보살의 행을 실천하게 한다.

한없이 어리석고 부족한 이 몸과 마음 그대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부처님 가르침과 은혜로움을 진하게 느끼고 감동케 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이고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오래지 않아 중도에 포기한다. 이유는 많다. 그 중에서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변명이 제일 많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한다. 기도를 잘하면 소원이 이뤄지고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진정 기도를 잘 하고 싶은가? 그 원력을 키우고 키워서 보살님들의 원력에 동참하면 된다. 갓 기도를 시작하는 처음이야 워낙 다급하니까, 급한대로 나만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구걸 기도라도 해보자. 기복의 기도라도 해보자. 그렇게 기도를 하다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의 대상이 된 분에 대해 이론적 공부를 해보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약사여래님, 아미타부처님 등 자신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은 존재에 대해 알아가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던 그 분의 원력은 무엇인가? 그 분은 어떻게 그런 원력을 갖게 되셨는가? 그 분의 원력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차분하게 의문을 품고 하나씩 차근히 공부해 보자. 내 바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던 그 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 분의 원력에 동참해 보자. 그 분의 원력과 자비심이 기도하는 내 마음에 살아 숨 쉬게 하자.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다.

이 세상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도 당신의 원력의 삶에 불만족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당신의 원력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기복과 구걸의 지금의 내 기도가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과 하나가 될 때까지 느긋하고 당당하게 쉼 없이 기도해 보자.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가 한없이 나약할 뿐이다. 차분히 원력을 세우고 뭇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꿈을, 바람을 실천해 가자. 꾸준히 기도하다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다.

"발심하는 까닭에 항상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 염(念)하여 잊지 않는 바가 되며, 과거 · 현재 · 미래 부처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게 된다"고. 발심은 중생을 부처로 변화시키고, 원력은 그 변화의 힘을 키운다. 모두 날마다 기도할 것을 발심하자.

사 설

종교인들의 남북정상회담 촉구

종교인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주장하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움직임도 있는 중에 우리를 안심시키는 반가운 소식이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인 모임은 또 정상회담과 함께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금 당장 인도적 대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북한 주민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평화의 비용이 아무리 많다한들 전쟁보다 훨씬 적다.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한들 증오와 복수가 따르므로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써 갚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에는 모두 527명의 종교인들이 서명했다. 진보 · 보수 · 중도를 망라한 종교인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 주목된다. 현재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평화를 주창하고 북과의 대화를 제안하면 좌파로 매도되는 비상식적 분위기가 먹구름처럼 우리 사회를 어둡게 했다. 남북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평화에는 좌우가 없다. 이명박정부의 2년여의 대북정책은 이제 큰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종교인들의 양심에 바탕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화와 포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유 장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때 외국인 관광객 숙박을 위한 대안으로 시작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템플스테이를 주목했다. "깨끗하고 편리한 숙박시설, 참선 체험시설, 사찰음식 체험식당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랜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한국의 사찰에 머물며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흔치 않다. 문화와 체험과 수행, 쉼, 자연이 어우러진 인류의 자산이다. 이런 자산이 여러 관련자들의 노력으로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장인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여기에 대고 호텔처럼 짓는다느니, 더 이상 새로 짓지 못하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문화부를 방문한 대구지역 개신교 대표들 앞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 템플스테이를 바라보는 유 장관의 인식이 설사 그렇더라도 개신교 대표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 템플스테이와 불교테마공원에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인 불교계에 했어야 한다. 불교테마공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종교간 갈등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주무부처의 장관이 한쪽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자칫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유 장관은 템플스테이를 한국의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불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서도 유 장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 · Ⅱ · Ⅲ · 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 · 래정(來情) · 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 ·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제(齊)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만을 구입 · 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 · 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특집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심상치 않은 신불교

영산불교 사상... 기존 불교계에 핵폭탄 되려나?

2000년 이상 정설로 내려온 불교 무아설의 해석 뒤집어 자재만현 큰스님

"無我輪廻 폐기, 영혼체 윤회론 주창" 새로운 실존적 불신관 (佛身觀)..

부처님은 빛의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주 법계 최초불.. 구원실성은 사실

우리 불교계에 큰 태풍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톤(giga: 10억배)급 태풍이 될 지도 모르겠다. 아니 불교계를 넘어서 세계종교계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심각한 용어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다. "신불교"라는 용어 자체가 충격적이다. 기존의 불교계 내에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정도를 가지고 감히 "신불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종파를 설립하는 정도를 가지고도 "신불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2600여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부처님의 불교 외에 또 다른 불교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오해의 우려는 "영산불교"라는 신불교 교단의 이름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영산교단 측에 의하면 "지금의 세계불교는 영산 당시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복원하고 정법을 널리 펼쳐 위대한 불교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기 위해 신불교를 주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계의 논쟁은 주로 수행방법의 정통성이나 돈오점수와 돈오돈수간의 논쟁과 같은 수행 방법론이나 '중관 대 유식' 같은 철학적 문제 또는 무아설과 윤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무아윤회라는 대전제 하에서의 구체적 윤회주체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서, 불교의 교설을 뒤바꿀만한 것이나 불교의 본질에 속하는 새로운 실체를 드러낼만한 것은 없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아와 윤회주체 문제는 단골 논쟁 메뉴로서 불교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런데 기존불교에서 2000년 이상 정설로 알고 믿어왔던 '무아설'이 하루아침에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무아윤회설이 한 순간에 사설(邪說)이 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실체개념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신불교'라고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도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자칫하면 천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불자들, 아니 3~4억명에 이르는 세계불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사안이다. 그렇다고 마냥 덮어 둘 수 만은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 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지사에서는 이 문제를 ①신불교에서 보는 기존 세계불교의 문제점 ②신불교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교설과 사상 ③신불교를 주장하는 큰스님의 실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영산 당시 가섭존자 · 아난존자, 부처님의 법맥 이어 받아 신불교 창립 금생에 불세존으로부터 붓다 인가 주장 심원한 법세계 놀라워

오늘날 세계불교는 동남아 중심의 남방불교와 한국 · 중국 등으로 전파된 북방불교, 그리고 티베트불교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 모두 자기들의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정통불교임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불교 사상을 내세우고 있는 영산불교 교단은 기존의 세계 어느 불교도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면 지금 같이 왜곡되고 왜소화된 불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불교인 영산불교만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산 당시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가섭존자의 후신이라고 하는 광명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의 후신이라고 하는 자재만현 큰스님의 등장이다. 두 분 큰스님은 한국 땅에서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부처님으로부터 붓다의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법화경》에 나와 있는 수기 내용과도 일치한다. 놀랄만한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대사건이고 전무후무한 대경사라 아니할 수 없다. 겁에 한 분 정도 나온다는 붓다가 한국 땅에서 두 분이나 한꺼번에 출세했다고 하니 불자라 해도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두 분 큰스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에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적었다는 이 책의 내용은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붓다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붓다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 많이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의 서문은 부처님께서 직접 대적정삼매 중에 불러주신 것을 정리했다고 한다. 당당하게 불세존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보통 스님이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이는 독자들이 읽어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이다.

현재 불교는 三無佛敎. 부처님 · 영혼체 · 완전해탈수행법 없어 즉, 3무불교(三無佛敎)라는 것이 신불교가 보는 기존불교의 왜곡된 실상

영산불교에 의하면 현재 세계불교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의 인격적 실존을 믿지 않는 불교라는 것이다. 기껏해야 2600여년 전에 이미 열반하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은 육신 부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계시는 법신개념의 부처님만 믿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없는 불교라는 것이다. 둘째, 지금의 세계불교는 잘못 해석한 무아설에 발목이 잡혀 윤회주체를 부정하고 영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설(邪說)이라는 것이다. 셋째, 작금의 세계불교는 자력수행에만 매달려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수행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력수행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것도 지극히 어렵고 보살이나 붓다가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세계불교는 부처님 없는 불교, 윤회주체인 영혼체 없는 불교, 완전한 생사해탈 수행법이 없는 불교이다. 즉 3무불교(三無佛敎)라는 것이 신불교가 보는 기존불교의 왜곡된 실상이다.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실존... 불자들은 보신불을 믿어야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영산불교에서 주장하는 신불교의 교설을 한 번 정리해 보자. 첫째 부처님 실존관이다. 이것은 신불교에서 주장하는 제1의 사상이다. 영산불교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여여히 계신다"고 선언하셨다. 불세존을 포함한 다보불 · 약사여래불 · 아미타불 · 보명불의 오여래부처님도 계시고, 경전에 나오는 불보살님도 다 실제로 계신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큰스님께서 부처님을 친견하신 경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경전상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사리불 존자가 공(空)의 법을 증득하고 잠된 완전한 멸도라 생각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참된 멸도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부처님이 되려면 천인과 야차와 용신들이 공경하는 32상(보신불)을 갖추고 완전한 참 멸도를 이루어야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인격적 부처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무수한 보살들을 길러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인격적 부처님의 실존을 말해주는 논거가 된다고 한다.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량 겁 전에 성불하신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다. 이것은 불교사, 나아가 종교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성불하신 이후 수없이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셔서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길러내시고 중생을 구제해 오셨는데, 가장 최근에 오신 것이 바로 2600여년 전 인도 땅에서의 일이라고 한다. 불교의 역사가 무량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이다. 신불교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인격적 부처님의 존재를 도출해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 공과 100% 하나 되어 완전히 무화(無化)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실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불보살님을 길러내시고 중생을 구제하려면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신론(佛身論)에서 주장하는 부처님의 삼신(法身,報身,化身) 중 보신불이 바로 인격적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처님의 이론적 삼신관은 실존적 삼신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화엄경》은 여러 불보살님들이 부처님의 인격적 실체와 그 위신력을 찬탄하고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법화경 여래신력품》에 나오는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

새로운 영혼체 윤회론 주창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무아윤회론 폐기 무아는 현상계에 국한된 개념, 본체계의 진아까지 부정하면 큰 잘못

신불교의 두 번째 사상은 윤회주체인 영혼체중심의 생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불교의 이 사상은 부처님 실존관 못지않게 핵폭탄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불교계가 2000년 이상 정설로 믿어왔던 무아설의 해석이 일순간 180도로 뒤집어지고, 무아윤회론이 한갓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신불교에서 바르게 해석한 무아설의 핵심은 이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의미는 현상계에는 영원불변하는 '나의 실체'가 없다(無我)라는 것이다. 또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현상계의 나는 영원불변하는 '나의 실체'가 아니다(非我)라는 의미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중생들이 너무 자기자신에 집착하여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집착을 떼어주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깊은 삼매 중에 무아가 잘못 해석 되었다고 큰스님께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학자들이 현상계에 국한된 개념인 무아의 개념을 본체계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절대무(絶對無)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본체계의 실체마저 부정하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로서의 나의 실체인 영혼체 마저 없다고 함으로써 불교의 근간을 흔들고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말살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 신불교 측에서 보는 입장이다. 본체계의 나의 실체인 영혼체가 없다면 불보살님의 실존도 근거를 잃어버리고, 구제받아야할 중생의 실체도 없고, 열반하는 주체도 없고, 천도재를 지낼 이유도 없으며, 우주성자를 내는 불교의 위대성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불교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힌두교에 밀려난 것도 바로 이 잘못 해석된 무아설 때문이고 오늘날 불교가 서구나 미주지역 등으로 세계화 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잘못 해석된 무아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왜곡된 무아설이 불교를 망친 주범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불교에서는 영혼체의 존재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천도시켜줌으로써 이론의 여지없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영혼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대부분의 사찰에서 천도재를 지내고 있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그러면서 본체계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 진아(眞我)의 존재는 대승의 《열반경》에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본체계의 실상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 불러오는 칭명염불 아니면 불보살 될 수 없어

신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 번째 사상은 자력기반 · 타력중심의 칭명염불 수행론이다. 신불교에 의하면 지금 세계불교의 수행방법으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성과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윤회를 벗어나 자기의 분신을 가지는 완전한 생사해탈의 경지인 정토보살이 되거나 최고의 해탈경지이면서 불신을 갖는 붓다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 보자.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장을 소멸시켜 영혼체를 보름달 같이 빛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력수행만으로는 이것이 지극히 어렵다. 특히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한삶정리라는 업장소멸 절차가 필요하고, 빙의 등 외마를 물리쳐야 하며, 4개의 영혼체를 완전히 분리해야 되고, 여자인 경우 영체를 남자로 만들어야 하며, 정토에 자기 분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타력을 받는 칭명염불을 해야 한다. 칭명염불 중에서도 부처님 중의 부처님이신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해야 된다. 칭명염불은 부처님 재세 시부터 있었던 수행법이고 모든 불보살들의 수행법이며, 많은 경전에 근거가 있는 수행법이다."

신불교에서 말하는 칭명염불은 석가모니불을 칭명한다는 점과 염불시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금강경)을 읽고 다라니를 한다는 점에서 정토종의 염불수행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신불교 사상-불교학계 · 교계의 진지한 논의로 정법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신불교가 주창하는 세 가지 사상은 불교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3대사상은 상호간 매우 논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체계의 실체인 영혼체의 존재는 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부처님의 실존은 칭명염불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불교의 사상은 어떤 형태로든 기존 불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혼체 윤회론이라는 신불교의 주장은 영혼체를 부정하고 있는 기존의 불교계와 학계에, 나아가 종교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모든 진통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정립하고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진통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기존 불교계나 학계에서도 새로운 사상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과거의 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자재만현 큰스님 인터뷰

왜곡된 무아설이 2천년이상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선지식이 왔다 가셨고 달라이 라마나 틱 낫한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도 생존해 계시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아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체계의 실체인 영혼체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체 이론은 상품보살 정도의 법위에 가야 어느 정도 실체를 알 수 있고, 붓다의 경지에 가서야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는 심오한 차원의 교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해도 무아설이나 영혼체 이론을 바르게 정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어떤 큰스님도 이런 경지에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산불교에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의 이름으로 왜곡된 무아설을 바로 잡고 영혼체 윤회론을 주창하여 정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스님께서 칭명염불하실 때의 경지나 체험이 궁금한데요?

수행경지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① 귀가 쫑커덕 하고 닫히며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단계
② 대낮같이 환해지며 현란한 빛의 입자를 보는 선정 단계
③ 시공을 초월한 적멸세계로 들어가 본성(공)을 보는 무아단계
– 견성(화두타파)
④ 문수 · 보현보살님으로부터 자금색 정토 빛을 받는 단계 – 보살(8지)
⑤ 햇살 속보다 더 밝고 강렬하고 영롱한 무량 억종광을 보는 단계
– 붓다의 관문

큰스님께서 친견하신다는 부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의 현신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키는 1m78cm, 몸무게는 80kg이고 60세 안팎으로 보입니다. 항상 회색 장삼에 108쪽 빨강가사를 수하시고 깔끔하고 청정하시며, 머리는 언제나 백호를 친 듯하고 잘 생긴 모습에 취합니다. 얼굴은 항상 자애로운 아버지상이고, 맑고 깨끗한 자태가 싱그러우며, 피부는 우유 빛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보입니다.

신불교의 수행덕목으로서 특히 효행을 중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불교에서는 신심, 효행, 청정계율, 자비이타행, 실천행 등을 중요한 수행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효행은 불교의 중심사상이며, 우주이법 차원의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행은 돌아가신 후 지옥이나 축생의 몸으로 지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조상의 영혼을 구해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천도재입니다. 그리고 천도재는 반드시 부처님이 주관해야 천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사는 관음태교를 통해서, 그리고 모범효행자 포상을 통해서 효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지사는 호국평화불교를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현지사의 호국 평화불교는 과거의 호국불교와는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우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과 다보불탑을 조성하여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우주적 불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통일과 국운융창, 나아가 인류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산불교 – 자재만현 큰스님〉 30여 년간 수행 염불삼매 속에서 부처님 친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1937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다. 1960년에 석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경봉스님 문하에서 화두참구의 참선수행을 통해 10여 년 만에 공성을 증득했다.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상임포교사로 활동했으며, ≪화엄경≫의 선재동자처럼 여러 선지식을 두루 찾아 구법을 하기도 했다. 그 후 경전을 통해 더 높은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과감하게 염불행자로 방향을 전환했다. 30여 년간 사력을 다해 수행한 결과 깊고 깊은 염불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드디어 2000년에 ≪법화경≫의 수기대로 불세존으로부터 불호 '산해혜자재통왕불'로 붓다 인가를 받았다. 좌우보처는 상행보살과 정행보살이다. 현재 영산불교의 교조로 계신다. 저서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가 있다.

신불교의 총본산 – 영산불교 현지사



중생구제와 호국평화 위해 38선 이북에 설립한 신불교의 총본산
아난존자의 설법 시 불세존께서 엄장 씻어주시는 붓다회상
절대계의 실제 부처님 모습대로 머리 깎고 눈 뜬 불상 모셔
금년 4월 초파일 사상 유례 없는 봉축 10만등 불사 봉행

현지사는 정법포교를 통한 중생구제와 호국평화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두 분 큰스님께서 2001년 5월에 창건한 정법도량으로서 38선 이북 춘천시 교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산불교의 총본산이다. 부산과 대전에 분원을 두고 있다. 현지사(顯智寺)는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절"이란 의미로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한다.

춘천본사에는 부처님 본불(노사나불)을 모신 대웅보전과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 그리고 다보부처님을 모신 다보불탑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보명불 · 산왕불 · 치성광여래불을 모신 삼불보전이 있다. 현지사에 모셔놓은 부처님들의 불상은 절대계에 계시는 본불의 모습대로 재현하여 세계 어느 절에서도 볼 수 없는 머리 깎고 눈 뜬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년 사월 초파일 대웅보전 개원시에는 불교사상 유례가 없는 10만등 봉축불사를 성공적으로 봉행한 바 있다. 또한 현지사는 호국평화와 중생구제를 위한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2대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대적광전과 다보불탑을 조성해 놓고 있다.

현지사에는 불세존의 본불이신 노사나부처님께서 상주하고 계시고, 오여래부처님, 준제보살님과 미륵부처님을 포함한 여러 부처님께서 상주하고 계신다고 한다.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영산회상 이후 26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매월 2회의 붓다회상을 열고 있으며, 설법시에는 불세존께서 무량광으로 참석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첨, 전국 각지에서 상시 10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다고 한다.

■ **현지사** :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033-243-1795)